

리아호나

연차 대회 말씀

청소년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의 변화가 발표되다

넬슨 회장이 성전의 축복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찬미하다

8개의 새로운 성전이 발표되다



당신 생각 하오니
(메시아),
엘스페스 영

“구주의 속죄에 대해 러셀
엠 벨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가장 위대한
본보기이십니다.[히브리서 12:2]
생각해 보십시오! 구주께서는
지상에 주어진 가장 고통스러운
일을 견디기 위해 기쁨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은 구주의 구원 사업에서
그분을 돕는 기쁨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성도들의 기쁨」,
17쪽.



토요일 오전 모임

- 6 메시지, 의미, 그리고 군중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
- 9 구주의 참된 제자
터렌스 엠 빈슨 장로
- 12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충실한
자가 되십시오
스티븐 더블유 오언
- 15 성도들의 기쁨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 19 영적인 능력
미셸 크레이그
- 22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확고한
결심
데일 지 렌랜드 장로
- 26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

토요일 오후 모임

- 30 교회 총관리 직원, 지역 칠십인 및
본부 직원 지지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31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여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 35 몰몬경의 권능으로 발견됨
루벤 브이 알리아우드 장로
- 38 증인, 아론 신권 정원회, 청년반
러셀 엠 넬슨 회장
- 40 청소년을 강화하기 위한 변경 사항
쿠엔틴 엘 쿡 장로
- 44 와서 나를 따르라—주님의 대응 전략
및 사전 대책
마크 엘 페이스
- 47 변함없고 꺾이지 않는 신뢰
엘 토드 버지 장로
- 50 신앙의 시련을 겪은 후에야
호르헤 엠 알바라도 장로
- 53 우리의 약속과 성약을 굳게 지킴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 장로

여성 총회

- 57 개나 흐리나 함께하소서!
레이나 아이 아부르토
- 60 그분의 이름을 명예롭게 함
리사 엘 하크니스

- 67 사랑하는 딸들
보니 에이치 코든
- 70 하나님과 협력하는 성약의 여성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73 두 가지 큰 계명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
- 76 영적인 보화
러셀 엠 넬슨 회장

일요일 오전 모임

- 80 성약에 속하는 것
게릿 더블유 공 장로
- 83 복음을 나누는 일에서 기쁨을 찾음
크리스티나 프랑코
- 86 여러분의 위대한 모험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 90 구주의 손길
월터 에프 곤잘레스 장로
- 93 나를 속이지 말라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
- 96 크고 둘째 되는 계명
러셀 엠 넬슨 회장

일요일 오후 모임

- 100 거룩함과 행복의 계획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104 알고, 사랑하고, 성장하기
한스 티 보움 장로
- 106 영이 육신을 다스리게 함
엠 러셀 벨라드 회장
- 110 대적을 이길 힘
피터 엠 존슨 장로
- 113 자기 십자가를 지고
율리세스 소아레스 장로
- 116 열매
닐 엘 앤더슨 장로
- 120 폐회 말씀
러셀 엠 넬슨 회장

- 64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총관리 직원 및 교회 본부 직원
- 123 교회 소식
- 127 와서 나를 따르라—연차 대회 말씀을
통해 배우기



제189차 반연차 대회

2019년 10월 5일 토요일 오전 모임

사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개회 기도: 래리 와이 윌슨 장로
 폐회 기도: 스티븐 알 벵거터 장로
 음악: 템플 스퀘어 태버나클 합창단.
 지휘: 맥 윌버그, 라이언 머피, 오르간
 반주: 앤드루 언스워스. “동트니 날이 밝는다”, 『찬송가』, 4장. “하늘 아래 사는 온 백성아”, 『찬송가』, 52장, 윌버그 편곡. “거룩하신 경전으로”, 『찬송가』, 143장, 머피 편곡. “군도가 그 기초”, 『찬송가』, 35장. “신앙”, 『어린이 노래책』, 50쪽, 엘리엇 편곡. “우리 구원의 날을 함께 다 즐기세”, 『찬송가』, 32장, 윌버그 편곡.

2019년 10월 5일 토요일 오후 모임

사회: 맬린 에이치 옥스 회장
 개회 기도: 매튜 엘 카펜터 장로
 폐회 기도: 크레이그 시 크리스틴슨 장로
 음악: 유타 프로보 스테이크 연합 합창단.
 지휘: 짐 캐슨. 오르간 반주: 조셉 피플스. “주는 나의 빛”, 『찬송가』, 48장, 캐슨 편곡. “나의 하나님 나의 왕”, 『찬송가』, 63장, 캐슨 편곡. “이스라엘 구속주”, 『찬송가』, 27장. “주여 내 영 감동하사”, 『찬송가』, 90장, 생크 편곡.

2019년 10월 5일 토요일 저녁, 여성 총회

사회: 조이 디 존스
 개회 기도: 살로테 투쿠아푸
 폐회 기도: 캐롤 코스틀리
 음악: 유타 웨스트조던 스테이크 초등학교 소녀 및 청년 연합 합창단. 지휘: 케이시 브래드베리. 오르간 반주: 린다 마켓츠. “전지 전능하신 주님께”, 『찬송가』, 56장, 웹 편곡. “우리 인도하실 선지자 주신”, 『찬송가』, 6장. “나 성전 보고 싶어”, 『어린이 노래책』, 99쪽, 모울맨 편곡. “아들 보내셨네”, 『어린이 노래책』, 20쪽, 디포드 편곡.

2019년 10월 6일 일요일 오전 모임

사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개회 기도: 오 빈센트 할레르 장로
 폐회 기도: 베키 크레이브
 음악: 템플 스퀘어 태버나클 합창단. 지휘: 맥 윌버그, 오르간 반주: 브라이언 마티아스, 리처드 엘리엇. “위대하셔라 주님의

경륜”, 『찬송가』, 184장. “높은 산 언덕 위”, 『찬송가』, 2장, 윌버그 편곡. “어린이의 기도”, 『어린이 노래책』, 6쪽, 페리 편곡. “사랑의 빛 안에 걸어가고”, 『찬송가』, 192장. “의와 진리 지키기에”, 『찬송가』, 141장, 라이언 편곡. “Love Divine, All Loves Excelling,” Wesley and Prichard, arr. Wilberg.

2019년 10월 6일 일요일 오후 모임

사회: 맬린 에이치 옥스 회장
 개회 기도: 잭 엔 제라드 장로
 폐회 기도: 더글러스 디 홈즈
 음악: 템플 스퀘어 태버나클 합창단.
 지휘: 맥 윌버그, 라이언 머피, 오르간
 반주: 리처드 엘리엇. “오라 주의 자녀들”, 『찬송가』, 13장, 머피 편곡.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 『찬송가』, 111장, 머피 편곡. “하나님의 일 부지런히 하세”, 『찬송가』, 149장. “거룩함도 더욱”, 『찬송가』, 60장, 스탈리 편곡.

대회 말씀 자료

연차 대회 말씀을 온라인에서 여러 언어로

시청 또는 청취하고 싶다면 conference.ChurchofJesusChrist.org에 접속해서 해당 언어를 선택한다. 연차 대회 말씀은 복음 자료실 모바일 앱에서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차 대회 후 6주 이내에 배부 센터에서 영상 및 음성 자료를 구할 수 있다. 장애가 있는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연차 대회 자료에 관한 정보는 disability.ChurchofJesusChrist.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표지

앞표지 사진: 저네 빙엄
 뒤표지 사진: 윌덴 앤더슨

대회 사진

솔트레이크시티 사진: 윌덴 앤더슨, 코디 벨, 저네 빙엄, 랜디 콜리어, 웨스턴 콜튼, 브루노 리마, 브라이언 니콜슨, 레슬리 닐슨, 매튜 라이어, 크리스티나 스미스, 데이브 와드.



2019년 11월호, 제56권 제11호

리아호나 18611 320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제일취장단: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헨리 비 아이어링

심이사도 정원자: 엠 러셀 벨라드, 제프리 알 홀랜드,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 게리 이 스티븐슨, 데일 지 랜랜드, 게릿 더블유 공, 올리세스 소아레스

편집자: 랜디 디 펄크

고문: 브라이언 케이 에슈턴, 랜들 케이 베네트, 베키 크레이븐, 크리스티나 비 프랑코, 쉐런 유벵크, 도널드 엘 홀스트롬, 래리 에스 캐처, 에릭 더블유 쿠푸피쉬게, 린 지 로빈슨

관리 책임자: 리처드 아이 하튼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프 캐넌

관리 편집인: 애덤 시 울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출판 보조: 카밀라 카스트리온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데이비드 덕슨,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리트, 게릿 에이치 가프, 존 라이언 쟈슨, 애런 존슨, 살라 라카발, 마이클 알 모리스, 에릭 비 머독, 조슈아 제이 퍼키, 잰 핀보로우, 리처드 엠 롬니, 민디 셸루, 로리 풀러 소사, 자켈 워들레이, 머리사 위드슨

편집 인턴: 알렉산드라 파머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킵트 크누센

미술 책임자: 태드 알 피터슨

디자인: 저넷 앤드류스, 페이 피 앤드러스, 맨디 벤틀러, 시 김볼 보토, 토머스 차일드, 조슈아 데니스, 데이비드 그린, 콜린 핑클리, 에릭 피 존슨, 수잔 로프그렌, 스코트 엠 무이, 에밀리 치에코 레밍턴, 마크 더블유 로빈슨, 브래드 로프, 케이 니를 워크호스트

디자인 인턴: 소피아 스파너스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클레트 네베커 오온

제작 관리자: 케인 앤 피터스

제작팀: 아이라 글렌 어데어, 줄리 버넷, 토머스 지 크로닌,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지니 제이 날슨, 머리사 엠 스미스

사진 인쇄: 조슈아 데니스

인쇄 책임자: 스티븐 티 루이스

배부 책임자: 트로이 알 바커

우편 주소: Liahona, Fl. 23,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3, USA.

통권: 제644호, 제56권, 제11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9년 11월 1일(월간지)

발행일: 박경렬

편집 및 번역 책임자: 최봉선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구로 자하문로 152

인쇄: 한국학술정보(주) 채종준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http://liahona.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8-8000)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원은행 100-001-389810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살어, 말라가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중국어(간체자),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티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태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8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저작권 정보: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리아호나에 실린 자료는 교회 및 가정에서 (교회 부름을 포함하여)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한은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는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FL 13,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June 2019 Vol. 43 No. 6.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store.lds.org.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5071.5.2)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연사 색인

게리 이 스티븐슨, 93
게릿 더블유 공, 80
닐 엘 앤더슨, 116
델린 에이치 옥스, 26, 73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31
데일 지 랜랜드, 22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15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86
러셀 엠 넬슨, 38, 76, 96, 120
레이나 아이 아부르토, 57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 53
루벤 브이 알리아우드, 35
리사 엘 하크니스, 60
마크 엘 페이스, 44
미셸 크레이그, 19
보니 에이치 코든, 67
스티븐 더블유 오언, 12
엘 토드 버지, 47
엠 러셀 벨라드, 106
올리세스 소아레스, 113
윌터 에프 곤잘레스, 90
제프리 알 홀랜드, 6
쿠엔틴 엘 쿡, 40
크리스티나 비 프랑코, 83
테렌스 엠 빈슨, 9
피터 엠 존슨, 110
한스 티 보움, 104
헨리 비 아이어링, 30, 70, 100
호르헤 엠 알바라도, 50

주제 색인

가난, 96
가정, 12, 44
가족, 83, 106
감독, 38, 40
개종, 15, 22, 35
거룩함, 100, 120
결혼, 9, 22
결혼, 73, 80
경신 공부, 44, 110
계명, 15, 73, 93
고결성, 53
교회 조직, 40, 67
구원의 계획, 83, 100, 106, 116
권능, 35, 76, 110
금식 헌금, 96
기도, 19, 31, 104, 110
기쁨, 9, 15, 47, 83, 96, 116
기술, 12, 19, 40, 110
모범, 50
물문경, 35, 80, 83, 110
보호, 31, 44
봉사, 15, 19, 60, 70, 86, 96
분별력, 76, 93
사랑, 73, 86, 104, 106, 110, 116
사탄, 31, 44, 93, 110
선교 사업, 83, 86
성신, 19, 35
성약, 22, 53, 60, 76, 80, 83, 116
성역, 70, 96, 104
성전, 26, 76, 120
성찬, 110
소망, 47, 90
속죄, 9, 47, 60, 106, 116
순종, 15, 73, 93
승영, 73
신권, 76, 80
신뢰, 19, 26, 47
신앙, 6, 12, 19, 22, 47, 50,

67, 76, 116
아론 신권, 38, 40
안전, 31
여성, 70, 73, 76
역경, 15, 47, 50, 57, 90, 100, 104, 113, 116
영성, 12, 19, 44
영의 세계, 26, 106
예수 그리스도, 6, 9, 15, 22, 26, 35, 44, 47, 53, 57, 60, 80, 83, 86, 90, 93, 100, 110, 113, 116
용서, 113
우정 증진, 12, 67
유혹, 31, 93
율법, 73
의식, 38, 80, 116
인도주의적 지원 기금, 96
자기 극복, 106, 113
전세, 86, 106
정신 질환, 57
제자 됨, 9, 15, 19, 22, 60, 86, 96, 104, 113
조셉 스미스, 6, 93, 100, 104, 113, 120
좌절, 110
준비, 31, 70
지도력, 38, 40, 67
지식, 104
첫번째 시현, 6, 104, 120
청남, 38, 40
청녀, 38, 40, 67
청소년, 12, 38, 40, 53, 120
축복, 76, 90, 120
치유, 57, 90
필멸의 몸, 31, 106
행복, 100
회개, 73, 100, 104, 106, 113
회복, 120



제189차 반연차 대회 하이라이트

연차 대회에서 말씀한 교회 지도자들은 더욱 행복하고, 더욱 거룩하고, 좀 더 구주를 닦아 가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도와라고 거듭 권고했다.

더 나아가, 지도자들은 우리 모두가 그러한 변경 사항들을 적용할 수 있다고 격려했다.

러셀 엠 넬슨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자녀가 성전에서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축복에 참여하기를 바라십니다. … 주님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합당하려면 개인적으로 많은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도움을 받는다면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행복과 거룩함 추구하기

넬슨 회장은 우리 각자에게 성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추라고

권고했다.(120쪽 참조)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거룩함을 키우는 것과 더 큰 행복을 느끼는 것 간의 연관성을 설명했다.(100쪽 참조)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어떻게 “성도들의 기쁨”을 찾을 수 있는지를 가르쳤다.(15쪽 참조)

사랑하고 나누라는 권유

넬슨 회장은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쳤으며 교회에서 펼치고 있는 광범위한 인도주의 사업을 상세히 설명했다.(96쪽 참조)

다이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장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권유할 때 발휘되는 힘을 설명했다.(86쪽 참조)

크리스티나 비 프랑코 자매는 복음을 나누는 기쁨을 설명했다.(83쪽 참조)

청소년을 강화함

선지자는 정원희 및 반 회장단에 속한 청소년들이 일어나 다른 이들을 이끌도록 격려해 줄 청소년 조직에 대한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38쪽 참조)

쿠엔틴 엘 쿡 장로는 아론 신권 지도자들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될지를 소개했다.(40쪽 참조)

보니 에이치 코든 자매는 청년 조직에 대한 변경 사항을 전달했다.(67쪽 참조)

성전을 세움, 자신을 세움.

넬슨 회장은 여성 총회에서 8개의 새로운 성전을 발표했다.(120쪽 참조)

일요일 오후 모임에서 그는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는 것에 관해 가르쳤으며 변경된 성전 추천서 질문을 소개했다.(120쪽 참조) ■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메시지, 의미, 그리고 균중

우리 시대의 끊임없는 소음과 소요 속에서
그리스도를 우리 삶과 신앙과 봉사의
중심에 두도록 노력합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장면은 생후 7개월 된 새미 호 칭이란 아기가 지난 4월에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연차 대회를 시청하는 모습입니다.

러셀 엠 벨슨 회장님과 다른 총관리 직원들을 지지하는 시간이 되자, 양손으로 우유병을 쥐고 있어야 했던 새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했습니다.

새미는 발로도 지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보여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반연차 대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일 년에 두 번 갖는 이 모임의 의미에 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신약전서의 누가복음에 나오는 다음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¹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우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나고 물은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의 대답함에 놀란 군중이 그 사람을 조용히 시키려고 했으나 “그[는]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끈질기게 소리친 결과 그는 예수님 앞으로 불려가게 되었고, 시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의 신앙 가득한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²

저는 짝막하지만 생생한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감명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가 구주의 관심을 끌고자 외치는 소리가 마치 귓가에 들리는 듯합니다. 조용히 있지 않으려는 그의 모습에 미소가 떠오릅니다. 모든 사람이 그에게 목소리를 낮추라고 말했을 때 그는 오히려



새미 호 칭이 2019년 4월 연차 대회에서 러셀 엠 벨슨 회장을 지지하고 있다.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이 성구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결연한 신앙을 보여 주는 흐뭇한 일화입니다. 하지만 모든 성구가 그렇듯이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서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최근에서야 저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을 자연스레 알아본 이 맹인의 분별력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일화의 중요성은 전적으로 익명의 몇몇 남성과 여성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무슨 소란이냐?”라고 맹인이 물었을 때[이 질문의 영문은 What does this commotion mean?으로 직역하면 “이 소란이 무슨 의미이냐?”임—옮긴이] 그 사람들은 영감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그 소란의 원인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의미가 되시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이 짧은 대화에는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신앙과 확신에 관한 질문은 실제로 신앙과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 던져야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만일 그러한다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³

그러한 신앙과 확신의 추구가 이 대회에 참석하는 우리의 목적이며, 여러분은 오늘 우리와 함께함으로써 이것이 많은 사람의 공통적인 목적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이곳에서 우리는 곳곳에서 온 여러 다양한 규모의 가족들을 봅니다. 다시 만난 옛 친구들은 기뻐하며 서로를 껴안고, 훌륭한 합창단은 노래할 준비를 하고, 시위자들은 가두 연단에서 외쳐 대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선교 사업을 했던 사람들은 옛 동반자를 찾고, 최근에 귀환한 선교사들은 완전히 새로운 동반자를 찾아다닙니다. (제 말뜻을 아시겠죠!) 사진은 또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찍으시죠! 각자 손에 휴대폰을 든 우리의 목적은 이제 “모든 회원은 선교사”에서 “모든 회원은 사진사”로 바뀌었습니다. 이 유쾌한 소란 가운데서 누군가는 당연히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신약전서에 나오는 그 일화처럼 시력, 즉 이해력을 축복받은 사람들은 이 대회에서 다른 모든 것을 얻으면서도, 그 모든 것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거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해력과 그분께서 약속하시는 치유를 얻고 이 대회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의미를 깨닫기 위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이 소란에 휘둘리지 말고 그분께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모든 연사의 기도, 노래하는 모든 이의 소망, 참석한 모든 사람의 경건함, 이 모든 것은 살아 계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평강의 왕이신 그분의 영이 임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그분의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컨퍼런스 센터에서만 그분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처음으로 물문경을 읽으면서 아빈아다이의 용기나 2천 명의 청년 병사들의 행군에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는 이 놀라운 기록에서 언제나 등장하는 중심 인물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부드럽게 덧붙일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분은 거의 모든 페이지에서 거대한 조각상처럼 우뚝 서서 거기에 등장하는, 신앙을 고취하는 다른 모든 인물들을 연결해 주십니다.

우리 종교에 관해 배우고 있는 친구가 우리 종교만의 독특한 요소와 생소한 어휘 때문에 다소 난감해질 수도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제약, 자립 비축물, 개척자 이동로, 디지털 가계도,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숯불에서 먹기 좋게 구운 훌륭한 등심 스테이크가 제공되리라 의심 없이 기대하는 수많은 스테이크 센터가 그런 예입니다. 이들이 이처럼 새로운 많은 것들을 보고 들을 때, 우리는 그들이 이러한 혼란을 넘어서서 그 모든 것의 의미와 영원한 복음의 본질적인 초점에, 즉 하늘 부모님의 사랑, 신성한 아들의 속죄 은사, 위안을 주는 성신의 인도, 이 모든 진리의 회복에, 그리고 그외의 많은 것에 집중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거룩한 성전에 처음으로 가는 사람은 그 경험이 조금은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스러운 상징과 의식 절차, 의식복과 시각 자료 상영이 구주께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하는 대상은 바로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주님의 집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성전 현관 입구에 새겨진 그 문구를 읽는 순간부터 그 건물에서 보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엄한 교리가 성전 의식 곳곳에 스며 있듯이 우리 존재에 구석구석 스며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접하는 모든 경이로운 것 가운데 무엇보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의미하는 바를 깨달아야 합니다.

최근 몇 달간 교회에서 발표한 다수의 과감한 계획과 새로운 변화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성역을 베풀고, 안식일을 더욱 훌륭하게 보내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들을 구원의 반석 위에 더 확고히 서는 데 도움이 될 상호 연관적인 노력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관련이 없는 개별적인 요소로 여긴다면, 우리는 이런 변경 사항이 계시로 주어진 참된 이유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⁴ 이것이 바로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이 우리에게 계시된 교회의 명칭을 사용하라고 하시는 이유입니다.⁵ 만일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교리, 그분의 모범, 그분의 신성이 우리 예배의 중심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엘마가 가르쳤던 훌륭한 다음 진리에 더욱 힘을 신게 될 것입니다. “장차 임할 일이 많이 있오되, 보라, 그 모두보다 더욱 중요한 일인 한 가지 있음이니— … 구속주가 사시며 자기 백성 가운데 오시[느]니라.”⁶

한 가지 정리하여 말씀드리자면, 19세기에 조셉 스미스가 살았던 국경 지역에서는 기독교인 무리들 간에 경쟁이 불붙었습니다.⁷ 하지만 이 열광적인 종교 부흥 운동가들은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일으킨 소요 속에서 어린 조셉이 그토록 간절하게 찾았던 바로 그 구주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조셉은 자신이 “암흑과 혼란”이라고 칭했던 상황에서 고투하던 중에⁸ 한적한 숲속으로 들어가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곳에서 이야기한 그 어떤 것보다도 구주께서 이 복음의 중심이심을 입증하는 더욱 영광스러운 증거를 보고 들었습니다. 조셉은 미처 예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볼 수 있는 능력을 은사로 받아 우주의 위대한 하나님으신 하늘 아버지와 그분의 완전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시현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아침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에 대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가리키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⁹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성한 정체성과, 구원의 계획에서 차지하는 그분의 절대적인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분의 지위에 대한 그 어떠한 훌륭한 표현도 그 짧은 일곱 마디를 능가하지 못합니다.

소란과 혼란이 있습니까? 군중과 논쟁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 모든 것이 술하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회의론자와 믿는 자들은 이 시현과 사실상 제가 오늘 언급한 다른 모든 것을 두고 여전히 논쟁을 벌입니다. 여러분이 수많은 견해 속에서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의미를 찾고자 애쓰고 계신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로 향하라고 권고드립니다. 또한 고대의 그 맹인이 여리고 길에서 시력을 얻고 약 1800년이 지난 후에 조셉 스미스가 시현을 보았다는 사실을 사도로서 증거합니다. 저는 이 두 사람과 그 이후의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인생에서 보고 듣는 가장 감격적인 장면과 소리는 바로 우리 옆을 지나가실 뿐만 아니라¹⁰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 옆에 멈추시고,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는¹¹ 예수님에 관한 것임을 증거합니다.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 시대의 끊임없는 소음과 소요 속에서 그리스도를 우리 삶과 신앙과 봉사의 중심에 두도록 노력합시다. 바로 거기에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시야가 제한되거나, 우리의 확신이 약해지거나,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고 정제된다면, 우리가 더욱 소리 높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¹²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도의 열정과 선지자의 확신으로 약속드리건대, 그분은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장차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¹³ 연차 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이것은 두 명의 맹인이 등장하는 마태복음 20장 30~34절에 기록된 사건, 또는 맹인이 디베오의 아들 바다매오로 나오는 마가복음 10장 46~52절에 기록된 사건과 같은 사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2. 누가복음 18:35~43 참조; 강조체 추가.
3. 누가복음 6:39.
4. 니파이후서 9:45 참조.
5. 러셀 엠 넬슨, 「교회의 정확한 명칭」,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87~89쪽 참조.
6. 엘마서 7:7.
7. 뉴욕 북부의 팔마이라 인근 지역은 그 작은 지역 사회들을 한결같이 휩쓸고 간 종교적 열의 때문에 자주 “뜨겁게 달아오른 지역”으로 언급되었다.
8. 조셉 스미스—역사 1:13.
9. 조셉 스미스—역사 1:17.
10. 누가복음 18:37 참조.
11. 요한복음 14:23 참조.
12. 마가복음 10:47.
13. 누가복음 18:42.



터렌스 엠 빈슨 장로
칠십인 회장단

구주의 참된 제자

구주와 그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뼈대가 될 때
우리는 영속적인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약전서의 학개에는 자주 찾는 성구는 아니지만, 홀런드 장로님의 권고를 전하고 싶은 한 무리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과 봉사의 중심에 두지 않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대신 안락한 집에서 거하는 이 백성들에 대한 질책이 담긴 학개의 생생한 묘사는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샅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성구들은 영원한 결실을 얻지 못할 것들을 하나님의 것들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헛된 일임을 잘 묘사해 줍니다.

제가 최근에 참석한 성찬식에서 한 귀환 선교사는 이 개념을 잘 보여 주는 한

아버지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우리는 와이파이보다 니파이가 더욱 필요하단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서아프리카에서 5년간 생활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우선시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가나에 있는 한 타이어 수리 및 휠 밸런스 업체의 상호에는

그러한 예가 잘 나타납니다. 그 업주는 상호를 “당신의 뜻대로 얼라인먼트”라고 지었습니다.(얼라인먼트[Alignment]는 ‘차바퀴 정렬’ 외에도 ‘맞추다’라는 뜻이 있어 ‘당신의 뜻’과 결합하여 ‘당신의 뜻에 맞추겠나이다’를 의미할 수 있음을 유머 있게 표현함—옮긴이)

구주와 그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뼈대가 될 때 우리는 영속적인 기쁨을²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보다 세상의 것들이 그 뼈대가 되고 복음은 그저 일요일에 두 시간만 교회에 참석하는 선택 사항이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우리의 품삯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과 같습니다.

학개는 우리에게 복음대로 생활하는 것에 관하여 “진짜”가 되기 위해 헌신하라고 권고합니다.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과 같은 사람일 때 그 사람은 진짜입니다.

저는 럭비를 하면서 진짜가 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 조금 배웠습니다. 최선을 다해 힘껏 뛰 때 그 경기에서 가장 큰 기쁨을 맛본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럭비 선수로 활약한 최고의 해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듬해였습니다.



제가 소속된 팀은 재능과 열성을 겸비한 팀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그해에 우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는 하위권의 한 팀과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후에는 모두 테이트 상대와 연례 대학 무도회에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경기에서 쉽게 이길 것으로 생각했던 저는 무도회를 한껏 즐기려면 부상을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경기에서 저희는 그전처럼 열성을 다해 상대팀과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이지 않았고, 결국 패배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경기에서 입술을 다친 저는 그토록 고대하던 그날 밤 테이트에 통통 부어오른 입술로 나가야 했습니다. 아마도 저는 뭔가를 배워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전심전력을 다했던 한 경기에서 저는 매우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상대 선수에게 세계 달려가 부딪혔는데, 곧바로 얼굴에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다친 것을 상대에게 결코 알려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아버지에게서 받았기에, 저는 끝까지 그 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날 밤, 식사를 하려는데 음식을 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 턱뼈가 골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다음 6주 동안 입을 움직이지 않도록 철사로 고정된 채 생활해야 했습니다.

저는 입술이 부어오르고 턱뼈가 골절된 경험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맑은 유동식만 삼킬 수 있었던 그 6주 동안 고정식을

갈망하며 허기졌던 기억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혼신을 다한 결과로 턱이 골절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어오른 입술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당시 일을 후회로 되돌아보게 됩니다.

혼신을 다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좋은 일만 일어나거나 언제나 성공을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기쁨을 얻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기쁨이란 순간적인 쾌락 또는 일시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기쁨은 지속적이며, 주님께서 우리의 노력을 받아들이실 때 찾아옵니다.³

올리버 그랜저의 일화에서 그러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 커틀랜드에서 추방되었을 때, 올리버는 그들의 재산을 헐값이라도 매각하라는 임무를 받고 남았습니다. 그가 성공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⁴ 그가 제일회장단에게서 받은 임무는 불가능한 일은 아닐지라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지 못한 그 노력에 대해 주님은 다음과 같은 말로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종 올리버 그랜저를 기억하거니와, 보라, 진실로 내가 그에게 이르노니, 그의 이름이 대대로 영원무궁토록 거룩한 기쁨으로 간직되리라. 주가 이르노라.

그러므로 그는 나의 교회의 제일회장단의

빛 갠 일에 힘써 싸우라. ... 그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리니, 이는 그의 희생은 그의 증진보다 내게 더욱 신성할 것임이니라. 주가 이르노라.”⁵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 중요한 것은 성공보다 우리의 희생과 노력입니다.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 있는 저의 소중한 친구 한 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또 다른 본보기입니다. 이 훌륭하고 충실한 자매님은 오랜 기간 동안 남편에게서 끔찍한 정서적 학대뿐만 아니라 일부 신체적인 학대도 당했으며, 결국 두 사람은 이혼했습니다. 그녀의 신앙과 선량함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지만, 남편의 잔인함 때문에 그녀는 오랫동안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편을 용서했다고 말했지만, 제 마음속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상처와 함께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마음에 입을 화상과도 같았습니다. 주님께 그 상처를 없애 달라고 여러 번 기도했지만, 너무나 깊은 상처였기에 남은 생애 동안 그 상처를 지우지 못할 것이라고 거의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의었을 때보다, 그리고 아버지와 심지어 아들을 잃었을 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아픔은 점점 커져서 제 마음을 온통 뒤덮은 듯했고, 저는 언제라도 곧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어떤 때는 구주라면 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자문해 보기도 했지만, 저는 ‘주님, 이건 너무하시잖아요.’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저는 이 모든 것에서 비롯되는 아픔을 제 마음속에서 찾아보았고, 더 깊이 들어가 제 영혼 속에서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픔은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픔을 느껴야 할 모든 이유를 재빨리 생각해 보았지만, 아픔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다시 아픔이 느껴지는지 보려고 온종일 기다렸지만, 아픔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터렌스 엠 빈슨, 고교 졸업 후 소속된 럭비팀의 선수, 왼쪽에서 네 번째



무릎을 꿇고 주님의 속죄 희생의 힘이 저에게서 발휘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⁶

이 자매님은 이제 자신을 깊이 사랑해 주는, 훌륭하고 충실한 남성에게 인봉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면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그리고 학개가 제안했듯이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살필” 때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라모나이 왕의 부친이 보여 준 올바른 태도의 모범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처음에 그 부친은 자신의 아들이 레이맨인들이 중오하는 니파이인 암몬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그는 암몬을 치려고 칼을 빼었으나 이내 암몬의 칼이 그의 목숨을 위협했습니다.

“이제 왕이 자기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여 이르되, 나를 살려 주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하더라.”⁷

그가 목숨을 위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한 점을 주목하십시오.

하지만 이후에 복음을 알게 된 그는 또 다른 제의를 했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야 그대가 말한 이 영생을 얻겠느냐? 참으로 내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에게서 나서, 내 가슴에서 이 간악한 영을 뿌리뽑고, 그의 영을 받아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마지막 날에 버림을 받지 않겠느냐? 그가 이르되, 보라, 이 큰 기쁨을 받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겠노라. 참으로 나의 왕국이라도 버리겠노라 하더라.”⁸

복음은 그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었기에, 이제 그는 자신의 왕국을 모두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복음에 관한 그의 마음은 진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마다 이 질문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복음에 관해 진짜입니까? 미온적인 것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지근한 자, 즉 헌신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⁹

어떤 보물이나 취미, 지위, 소셜 미디어, 비디오 게임, 스포츠, 유명 인사와의 친분 및 지상의 그 어떤 것도 영생보다 더 귀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고 권고하십니다.

니파이의 다음 말이 제 마음을 잘 대변해 줍니다. “나는 명백함을 자랑하며, 나는 진리를 자랑하며, 나는 나의 예수를 자랑하노니, 이는 그가 나의 영혼을 지옥에서 구속하셨음이라.”¹⁰

우리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치신 그분을 참되게 따릅니까?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이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변호자이십니다. 그분은 속죄 희생을 위해 절대적으로 헌신하셨고, 지금은 사랑과 자비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려는 열망에 절대적으로 헌신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읽는 모든 분에게 간청합니다. 실재하지도 않는 미래의 언젠인가에 시간이 날 때까지 기다리며 온전히 헌신하기를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진짜가 되어 그 기쁨을 맛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학개 1:4~7.
2. 요한복음 15:11; 로마서 14:17; 고린도후서 8:2; 히브리서 12:2; 모세서 5:10, 7:53 참조.
3. 이노스서 1:3~6, 27; 교리와 성약 52:15 97:8~9 참조.
4. 보이드 케이 패커, 「이들 중 지극히 작은 자」,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86쪽.
5. 교리와 성약 117:12~13.
6. 개인 서한.
7. 엘마서 20:23.
8. 엘마서 22:15.
9. 요한계시록 3:15~16 참조.
10. 니파이후서 33:6.



스티브 더블유 오언 형제
본부 청남 회장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충실한 자가 되십시오

우리는 의식적으로 매일 세상과의 연결을 끊고
하늘과 연결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잠에서 깨어 경전 공부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집어 들고 침대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복음 자료실 앱을 열려던 참이었습니다. 잠금 해제를 하고 공부를 시작하려던 순간, 밤사이에 도착한 대여섯 개의 문자와 이메일 알림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들만 얼른 확인하고 바로 경전을 봐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두 시간이 지나도록 저는 여전히 문자 메시지, 이메일, 뉴스 그리고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깨달았을 때는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느라 정신없이 서둘러야 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경전 공부를 하지 못했고, 그 결과 제가 바라던 영적인 양분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양분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대의 기술은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친구와 가족과 교통하게 해 주고, 정보를 얻게 해

주며, 전 세계 사건들에 관한 최신 소식을 알려 줍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인 하늘과의 관계에는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선지자 러셀 엠 넬슨 회장의 말씀을 다시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잡다단하고 다툼이 늘어 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소셜 미디어와 24시간 내내 생산되는 뉴스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정보와 메시지를 쏟아 냅니다. 진리를 공격하는 무수한 의견과 인간의 철학 속에서 가치 있고 유용한 것을 걸러내고자 한다면, 우리는 계시를 받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넬슨 회장은 또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성신의 인도와 지침과 위안의 영향력 없이는 영적으로 살아남[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¹

몇 해 전,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폭설 때문에 자연 서식지로 돌아가지 못한 채 아사할 위기에 처한 사슴 한 무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선한 의도를 지닌 몇몇 사람들이 그 사슴들을 구해 주려 건초를 트럭 가득 싣고 와 곳곳에 놓아두었습니다. 사슴은 보통 건초를 먹지 않지만, 사람들은 그 건초가 최소한 사슴들이 겨울을 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슴이 나중에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사슴들은 건초를 먹었지만 양분을 공급받지 못했고, 결국 배가 가득 찼음에도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²

정보화 시대에 우리에게 쏟아지는 많은 메시지는 영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사슴들에게 주었던 건초 더미와 같아서 온종일 먹어도 양분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영적 양분은 어디서 찾습니까? 보통 그런 것은 소셜 미디어에서 인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약의 길에서 “쇠막대를 계속하여 굳게 잡은 채 앞으로 밀고 나아”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그것을 찾게 됩니다.³ 이 말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매일 세상과의 연결을 끊고 하늘과 연결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리하이는 그의 꿈에서 열매를 먹은 후에 세상의 교만을 의미하는 크고 넓은 건물의 영향 때문에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⁴ 후기 성도의 가정에서 성장하고, 모든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심지어 성전 의식에도 참여했던 젊은이들이 “금단의 길로 떨어져 나가서는 잃어버린 바 되”는 일이 있습니다.⁵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많은 경우, 그들이 표면적으로는 영적으로 보이는 일들을 하고 있었지만 진정으로 개심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먹기는 했으나 양분을 취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반면, 저는 여러분과 같이 총명하고, 강하며, 충실한 후기 성도 젊은이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과 그분께서 여러분께 맡기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⁶ 여러분은 성약을 지키며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는데, 이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매일 신앙을 행사하고 회개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기쁨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성전의 축복과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 얻게 될 또 다른 기회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께 나아와 그분의 속죄에서 오는 축복을 받도록 권유하며, 재림을 위해 이 세상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느 세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충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며, 넬슨 회장님의 지도력을 통해 우리가 그 어려움에 대처하도록 준비시키고 계심을 간증합니다. 최근에 선지자는 교회에서 가정이 중심이 되며, 우리가 집회소 건물에서 하는 일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⁷ 저는 이것이 이 영적 영양실조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고 번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가정이 중심이 됨

가정이 중심이 된 교회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전 세계에는 다양한 모습의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 세대 동안 교회 회원이었던 가족의 일원일 수도 있고, 가족 중에 혼자만 교회 회원일 수도 있습니다. 기혼일 수도 있고, 미혼일 수도 있으며,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 학습 및 생활의 중심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말해 여러분이 자신의 개심과 영적인 성장에 직접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가정을 신앙의 안식처로 변화시키”라는 넬슨 회장님의 권고를 따른다는 의미입니다.⁸

대적은 영적 양분이 필요 없다고 설득하거나, 더 간교하게는 나중에 취해도 된다고 우리를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그는 방해의 대가이며 미루기의 달인입니다. 그는 긴급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들로 여러분의 주의를 끌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여 "한 가지 ... 족[한]" 일을 간과하게 하려 할 것입니다.⁹

저는 제 "훌륭하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¹⁰ 그들은 끊임없는 영적 양분과 사랑이 넘치는 관계와 건전한 오락 활동이 있는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주셨던 가르침은 늘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들과 굳건한 관계를 형성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줄어들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뒷받침함

여러분이 가정을 강화하는 동안, 교회가 여러분을 뒷받침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경험은 가정에서 공급되는 영적 양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주일 학교와 초등학교에서 교회가 뒷받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아론 신권과 청년 모임에서도 그렇게 뒷받침하는 것을 더 보게 될 것입니다. 내년 1월부터 아론 신권 및 청년 모임 교과 과정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교과 과정은 여전히 복음 주제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그 주제는 '와서 나를 따르라—개인 및 가족'에 맞추어 조정될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변화이지만 청소년들에게 영적인 양분을 제공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또 어떻게 뒷받침을 할까요? 교회에서 우리는 성찬을 취하며, 이를 통해

매주 구주를 향한 우리의 결의를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같은 성약을 맺은 믿는 자들과 함께 모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동료가 된 이들과 사랑을 바탕으로 발전시킨 관계는 가정을 중심으로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강력한 지원군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14살이었을 때, 저희 가족은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그 일이 그 당시 제게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틈에서 생활하며, 저 혼자만 저희 와드 청년들이 다니는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진학하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14살이었던 제 마음속에는 "부모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지?"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제 삶이 엉망이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청년 활동을 통해 제가 소속된 정원회의 회원들과 친해지게 되었고 그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감독단과 아론 신권 고문 형제님도 저에게 특별히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참가하는 운동 경기에 와 주셨습니다. 격려 메모도 써 주셨는데, 저는 아직도 그것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간 후에도, 선교 사업을 나갈 때도 그분들은 계속해서 저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한 분은 제가 귀환할 때 공항까지 마중을 나와 주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훌륭한 형제님들께, 그리고 그분들이 보여 주신 사랑과 큰

기대에 영원히 감사드릴 것입니다. 그분들은 저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셨고, 제 삶은 밝고 행복하고 즐거워졌습니다.

부모와 지도자로서 우리는 성약의 길을 걷는 청소년들이 자신이 혼자 아님을 알도록 어떻게 돕습니까? 우리는 청소년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쌓는 것 이외에도 청소년 대회와 야영부터 매주 하는 정원회와 반 활동 모임까지 크고 작은 모임에 그들을 초대합니다. 강해지려고 여러분과 같이 노력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오는 힘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감독님과 지도자 여러분, 부디 여러분 와드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강화하는 일에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지도자든, 이웃이든, 정원회 회원이든, 아니면 그냥 교회 회원이든, 어린이나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칠 기회가 있다면 그들이 하늘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영향력이 바로 그들에게 필요한 "교회의 뒷받침"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이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영감을 주시며, 우리가 후기에 살아남고 번영하는 데 필요한 영적 양분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영적 양분은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닌 충실한 자가 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러셀 엠 넬슨, 「교회를 위한 계시와 우리 삶을 위한 계시」,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96쪽.
2. 제프리 알 홀런드, 「교회에서의 가르침과 배움」, 『리아호나』, 2007년 6월호, 64쪽 참조.
3. 니파이전서 8:30.
4. 니파이전서 8:24-28; 11:36 참조.
5. 니파이전서 8:28.
6. 교리와 성약 4:2.
7. 러셀 엠 넬슨, 「개회 말씀」,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7쪽 참조.
8. 러셀 엠 넬슨, 「모범적인 후기 성도가 되십시오」,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113쪽.
9. 누가복음 10:41-42.
10. 니파이전서 1:1.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성도들의 기쁨

기쁨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을 통해 슬픔과 약점을 극복하며 그분이 섬긴 것처럼 섬길 때 찾아옵니다.

리하이의 손자이자 물문경에 나오는 선지자 이노스는 젊은 시절에 겪었던 놀라운 경험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숲에서 홀로 사냥을 하던 그는 아버지 야곱의 가르침을 숙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숲에 짐승을 사냥하러 갔더니, 내가 종종 들었던 바 나의 부친이 영생과 성도들의 기쁨에 관하여 하시던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느니라.”¹ 영적으로 굶주렸던 이노스는 무릎을 꿇고 온종일 그리고 밤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했으며, 이 놀라운 기도로 인해 그는 중대한 계시와 확신, 그리고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노스의 경험에서 배울 것이 많지만 자신의 부친이 종종 “성도들의 기쁨”에 관해 말했던 것을 그가 기억했다는 점이 오늘 제 마음에 특히 와닿습니다.

3년 전 이 연차 대회에서,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기쁨에 관해² 특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놓인 환경과는 관계없이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복음에 초점을 맞출 때,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옵니다. ... 후기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입니다!”³

성도들은 침례를 통해 복음 성약을 맺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르고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⁴ 따라서 “성도들의 기쁨”이란 그리스도처럼 되는 데서 오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오는 기쁨, 그분을 통해 슬픔과 약점을 극복할 때 오는 기쁨, 그리고 그분이 섬기신 것처럼 우리가 섬길 때 오는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킬 때 오는 기쁨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계명이 중요하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그저 계명을 무시해 버리는 쾌락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종종, 순결의 법, 정직의 표준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같은 신성한 계명을 의도적으로 어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번창하고 인생의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순종하려고 힘쓰는 이들보다 더더욱 그렇게 누리고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노력과 희생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아해하기 시작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민족은 한때 다음과 같이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⁵

하지만 주께서는 의인들을 “[그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그분이 “정한



날”까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⁶ 악인들이 “잠시 자기의 일에 기쁨을 누리나,” 그것은 언제나 일시적입니다.⁷ 성도들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참된 관점에서 사물을 보시고, 계명을 통해 그 관점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며, 필멸의 삶에 도사리는 뜻밖의 위험을 피해 영원한 기쁨을 향해 나아가갈 수 있도록 우리를 실질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계명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때 영원의 관점에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듯이 사물을 보시지는 않으십니다.”⁸

나이가 들어 복음을 접한 분들을 만나면 대부분 더 일찍 복음을 접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오, 그 어리석은 선택들과 실수들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은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하고 더 행복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우리는 더 훌륭한 길을 보여 주신 것에 대해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코트디부아르 아버지 서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콩고 민주 공화국 출신의 칼롬보 로제트 캄완야 자매는 십 대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녀가 어느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알기 위해 사흘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어느 날 밤, 놀라운 시현이 꿈을 통해 주어졌는데 그 꿈에서 두 건물이 보였습니다. 하나는 예배당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제 그녀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본 이 예배당을 찾기 시작하여 곧 찾아냈습니다. 간판에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캄완야 자매는 침례를 받았고 그다음엔 그녀의 어머니와 여섯 형제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캄완야 자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저는 마치 붙잡혀 있다가 풀려나게 된 새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받았습니다.”⁹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더 온전히, 더 쉽게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계명의 곧고 좁은 길은 우리를 곧바로 생명나무로 인도해 줍니다. 가장 감미롭고 “무엇보다도 가장 바랄 만한 것”인¹⁰ 생명나무와 그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영혼을 “심히 큰 기쁨으로”¹¹ 가득 채워 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¹²

그리스도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때 오는 기쁨

계명을 충실히 지킬 때도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는 시련과 비극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구주의 도움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힘쓸 때, 현재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 앞으로 기대하는 기쁨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안심시키시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¹³ 우리가 그분께로 돌이켜,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그분과 결속시키면 그 시련과 슬픔은 기쁨으로 바뀝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89년, 잭 러쉬턴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가족과 휴가를 보내며 보디서핑을 하던 중, 잭은 파도에 휩쓸려 물속의 바위에 부딪혀 목이 부러졌고 척수에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잭은 “부딪히는 순간, 몸이 마비되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회고했습니다.¹⁴ 그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고 스스로 숨을 쉴 수도 없었습니다.¹⁵



칼롬보 로제트 캄완야 자매



잭과 조앤 러쉬턴

가족과 친구 그리고 스테이크 회원들이 러쉬튼 형제와 그의 아내 조앤을 도와주었고 무엇보다도 잭의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도록 집의 일부를 개조해 주었습니다. 조앤 자매는 그 후 23년 동안 남편을 도맡아 돌보았습니다. 그녀는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이 고난받을 때 그들을 돌아보시어 짐을 가볍게 해 주셨다는 몰몬경의 기록을 언급하며¹⁶ “남편을 돌보면서 마음이 무겁지 않다는 데 종종 놀라게 된다”고 말했습니다.¹⁷

호흡보조기를 조정한 후 잭은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해가 가기 전에 그는 복음 교리 교사와 스테이크 축복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잭이 축복사의 축복을 줄 때는 다른 신권 소유자가 잭의 손을 축복을 받는 사람의 머리 위에 얹어 주었고, 축복을 하는 동안 그의 손과 팔을 떠받쳐 주었습니다. 22년간 헌신적으로 봉사한 잭은 2012년 성탄절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언젠가 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살다 보면 시련을 겪게 마련이며 그것은 이 지상 생활의 일부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으면 나쁜 일들로부터 보호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중요한 점은 그제 아니라 삶에서 나쁜 일은 일어났지만, 우리의 신앙이 강하다면 그것에 대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 신앙이 흔들린 적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울한 적이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 처음으로 한계에 내몰렸을 때 말 그대로 의지할 곳이 없었기에, 저는 주님께 의지했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마음속에서 기쁨을 느낍니다.”¹⁸

오늘날 복장과 오락, 성적인 순결함에서 주님의 표준을 옹호하려는 사람들은 때때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나 직접적으로 무자비한 공격을 받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종종 청소년과 청년 성인들이 이 조롱과 박해의 십자가를 집니다. 그런 부당한 대우를 극복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베드로의 다음 말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¹⁹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는 “무지한 상태에 머물렀으니 비참을 알지 못하며 기쁨이 없”었습니다.²⁰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로서 죄, 시련, 약점 등 모든 형태의 비참함이나 행복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데서 기쁨을 찾습니다. 이는 제자의 길에서 발전해 나감을 느끼는 기쁨, “죄 사함을 받았다는 기쁨, 그리고 양심의 평화를 느끼는 기쁨”²¹이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혼이 확장되고 성장하는 것을 느끼는 기쁨입니다.²²

그리스도처럼 섬길 때 오는 봉사의 기쁨

구주는 우리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일에서 기쁨을 느끼십니다.²³ 구주의 속죄에 대해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가장 위대한 본보기이십니다.[히브리서 12:2] 생각해 보십시오! 구주께서는 지상에 주어진 가장 고통스러운 일을 견디기 위해 기쁨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그런데 구주 앞에는 어떤 기쁨이 있었을까요? 우리를 정화하고 치유하며 강화하는 기쁨, 회개할 모든 이의 죄값을 치르는 기쁨, 우리가 깨끗하고 합당한 모습으로 본향으로 돌아가 하느님 부모와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게 해 주는 기쁨이 분명 그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²⁴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은 구주의 구원 사업에서 그분을 돕는 기쁨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과 자녀로서²⁵ 우리는 “복음의 축복 ... 구원의 축복, 곧 영생의 축복”으로²⁶ 땅의 모든 족속에게 축복을 주는 일에 참여합니다.

엘마의 말이 생각납니다.

“또한 이것이 내 영광이니, 곧 흑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어 얼마간의



영혼을 회개로 인도하는 것이라. 또 이는 내 기쁨이니라.

또 보라, 많은 내 형제들이 진심으로 뉘우쳐,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옴을 내가 볼 때, 그때 내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하다. ...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의 성공만으로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내 기쁨은 니파이 땅에 올라가 있었던 내 형제들의 성공으로 인하여 더욱 충만하다. ...

이제 내가 이들 내 형제들의 성공을 생각할 때 내 영혼이 이끌려 가서, 마치 내 몸에서 나날 듯 하나니, 그처럼 나의 기쁨이 크다.²⁷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봉사의 열매는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의 일부입니다. 낙담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빛과 위안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기쁨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인내하며 성역을 베풀 수 있습니다.

포르토프랭스 성전 헌납을 위해 지난 달 아이티를 방문했을 때 데이비드 베드나 장로님과 수잔 베드나 자매님은 비극적인

사고로 며칠 전 남편을 잃은 한 젊은 자매를 만났습니다. 두 분은 그 자매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에 열린 헌납식에서 이 자매는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을 반가운 미소로 맞이하며 안내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궁극적인 “성도들의 기쁨”은 구주께서 그들을 위해 변론하심²⁸ 알 때 올 것입니다. “[그분]께서 아버지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의 영혼을 채[울] 그 기쁨[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을²⁹ 것입니다. 저는 러셀 엠 벨슨 회장님과 더불어 기쁨은 “세상의 십자가를 견”다고³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의로운 삶을 살고자 의식적으로 애쓰는”³¹ 충실한 성도들을 위한 선물임을 간증드립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주

1. 이노서서 1:3.
2. 러셀 엠 벨슨, 「기쁨과 영적 생존」,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81~84쪽 참조.
3. 러셀 엠 벨슨, 「기쁨과 영적 생존」, 82쪽.

4. Bible Dictionary, “Saint” 참조.
5. 말라기 3:14~15.
6. 말라기 3:17~18.
7. 구주께서는 교회(또는 삶) “나의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고, 사람의 역사나, 악마의 역사 위에 세워졌으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이 잠시 자기의 일에 기쁨을 누리나, 차차 마지막이 이르매, 찍혀 불에 던져지나니, 그 곳에서는 다시 돌아움이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제3니파이 27:11).
8.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475쪽.
9. 개인 서한.
10. 니파이전서 11:22; 또한 니파이전서 8:11 참조.
11. 니파이전서 8:12.
12. 요한복음 15:10~11; 강조체 추가.
13. 요한복음 16:33.
14. Jack Rushton, in “Faith in Adversity: Jack Rushton and the Power of Faith,” SmallandSimpleTV, Sept. 2, 2009, YouTube.com.
15. See Allison M. Hawes, “It’s Good to Be Alive,” Ensign, Apr. 1994, 42.
16. 모사이야서 24:14 참조.
17. Jo Anne Rushton, in Hawes, “It’s Good to Be Alive,” 43.
18. Jack Rushton, in “Faith in Adversity: Jack Rushton and the Power of Faith.”
19. 베드로전서 4:14. 또한 니파이후서 9장 18절과 제3니파이 12장 12절에 인용된 약속들을 기억하십시오.
20. 니파이후서 2:23; 또한 모세서 5:10~11 참조.
21. 모사이야서 4:3.
22.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도록 조셉 스미스에게 영감을 준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야고보서 1:5) 하지만 그 이전의 구절들은 다소 생소해 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많은 고난을 당할 때에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아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Joseph Smith Translation, James 1:2 [in James 1:2, footnote a]; 야고보서 1:3~4).
23. 모세서 1:39 참조.
24. 러셀 엠 벨슨, 「기쁨과 영적 생존」, 82~83쪽, 원문의 강조.
25.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3:29, 또한 창세기 22:18; 26:4; 28:14; 사도행전 3:25; 니파이전서 15:18; 22:9; 교리와 성약 124:58 참조).
26. 아브라함서 2:11.
27. 엘마서 29:9~10, 14, 16.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 내게로 데려온 한 영혼과 함께 누리니 너희의 기쁨이 클진대, 너희가 많은 영혼을 내게로 데려오면,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교리와 성약 18:16). 세 명의 니파이인들은 “세상이 있는 동안”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데려오기를 원했기 때문에 충만한 기쁨을 약속받았습니다.(제3니파이 28:9; 또한 제3니파이 28:10 참조)
28. 교리와 성약 45:3~5 참조.
29. 제3니파이 17:17.
30. 니파이후서 9:18.
31. 러셀 엠 벨슨, 「기쁨과 영적 생존」, 84쪽.



미셸 크레이그
본부 청년 회장단 제1보좌

영적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로서 여러분은
그분의 계명에 부합하면서도 자신의 필요에 맞는
개인적인 영감과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여름, 청년 야영지를 떠나려는 제게 한
다정한 청년이 작은 쪽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하나님께서 제게 뭔가를
알려 주시려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늘의 본향과 연결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필요하고 유용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영의 부드러운 음성을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고대와
현대의 선지자들은 “선을 행하도록 이끌고
권유하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¹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다음과
같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권고를
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계시를 받는 영적인 능력을
키우시기를 간청합니다. … 성신의 은사를
향유하고 영의 음성을 더 자주, 더 분명히
듣는 데 필요한 영적인 일들을 하고자
선택하십시오.”²

오늘 아침 저는 제 진심을 담아, 계시를
받는 영적인 능력을 향상해 줄 네 가지
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의식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택의지를 사용해 매일
하나님의 음성, 특히 물몬경에 담긴 그분의
음성을 가까이하는 시간을 정할 때, 그분의
음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명확해지고
친숙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과 우리 가정과 삶에
가득한 방해 요소 및 소음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기가 한층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마음과
머리를 가득 채워, 성신의 부드러운
속삭임을 위한 자리를 남겨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침실이나 광야
혹은 들판에서 은밀히, 아무런 소리도 없이,
동요를 일으키지 않고”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가르쳤습니다.³

사탄은 우리를 그런 조용한 공간에
있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떼어 놓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요하고
작은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가까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와이파이에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인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십시오.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성스러운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십시오. 여기에 참으로 많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2. 즉시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이 성신의 속삭임을 듣고
의식적으로 행동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동할
때마다 성신의 음성은 더 친숙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께서 “기꺼이 그분의 마음과 뜻을 …
알려 주”신다는 것을 더욱더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⁴ 미루신다면 여러분은 영의
속삭임을 잊거나 주님을 위해 다른 이를
도울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3. 주님께 여러분이 할 심부름을 여쭙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게 해 달라고 간청하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 누구를 도울 수 있을지를 그분께 간구하여 계시를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면 성신이 임하여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에 관한 속삭임을 느낄 것입니다. 가서 그 일을 할 때 여러분은 주의 심부름을 하는 것이며, 주의 심부름을 할 때 여러분은 성신의 은사를 얻기에 합당하게 됩니다.”⁵

주님께 심부름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여러분의 평범한 능력으로 당신의 특별한 일을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외할아버지이신 프리츠 알마르 룬드그렌은 19살 때 스웨덴에서 이민을 오셨습니다. 홀로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미국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당시 6년간의 정규 교육이 전부인 상태였습니다. 영어를 전혀 하지 못했던 그분은 오리건주로 가서

별목꾼으로 일했으며, 나중에 아내와 딸인 제 어머니와 함께 교회로 개종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와드의 감독으로 봉사하신 적은 없지만 충실한 가정 복음 교사로서 50여 가정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의 문서 상자를 정리하던 중, 저는 할아버지의 사랑 덕분에 교회로 돌아오게 된 한 형제님이 쓰신 편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프리츠 형제님의 비결은 형제님이 항상 주님의 심부름을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편지는 웨인 시모니스 형제님이 쓰신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를 방문해 그 가족 한 명 한 명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흐른 뒤, 할아버지는 그 가족에게 교회에는 그들이 필요하니 교회에 참석해 달라고 초대했습니다. 그 주 일요일 아침, 시모니스 형제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직 지붕 수리를 끝내지 못했는데 그 주에 비가 올 예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교회에 가서 할아버지와 악수만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지붕

수리를 끝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을 터였습니다.

그의 계획은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사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편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 사다리 꼭대기에 프리츠 형제님이 서 계셨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셨지요. 처음에는 마치 학교를 빼먹은 걸 들킨 어린아이처럼 부끄러웠습니다. 그다음엔 ... 화가 났습니다. [프리츠 형제님은] 양복 상의를 벗어 사다리에 걸쳐 놓으시고는 흰 와이셔츠의 소매를 걷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시모니스 형제님, 망치 하나 더 있으세요? 가족을 남겨 두고 가신 길 보면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제가 돕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과 호의만이 가득한 형제님의 눈을 보니 화가 가라앉았습니다. ... 그날 저는 연장을 내려놓고 제 선한 친구를 따라 사다리를 내려가 예배당으로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님께 심부름을 받았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중풍에 걸린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될 수 있도록 지붕에 올라 그를 아래로 내려준 네 명의 친구처럼,⁶ 할아버지도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지붕에 오르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다른 이들을 도우려는 사람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4. 믿고 신뢰하십시오

최근에 저는 경전에서 주님께 심부름을 받은 또 다른 훌륭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아론에게 가르침을 받던 레이맨인의 왕은 왜 아론의 형제인 암몬이 그를 가르치려 오지 않았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에 아론이 왕에게 이르되, 보소서, 주의 영이 그를 다른 길로 부르셨”다고 말했습니다.⁷

우리는 저마다 해야 할 일이 다 다르며, 때로는 영이 우리를 “다른 길”로 부를 수도 있다고 영이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성약을



맺고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의 충실한 제자로서 여러분은 그분의 계명에 부합하면서도 자신의 필요에 맞는 개인적인 영감과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수행해야 할 특별한 임무와 역할이 있으며, 그것들을 성취하기 위해 특별한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니파이, 야렛의 형제, 그리고 모세는 모두 큰 물을 건너야 했으며, 각자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니파이는 “정교한 솜씨로 재목을 다듬”었습니다.⁸ 야렛의 형제는 “물샬틈없기가 마치 접시 같”은 배를 만들었습니다.⁹ 모세는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습니다.¹⁰

그들은 저마다 자신의 필요에 맞는 지시를 받았고, 각자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지시를 행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순종하는 이들을 염두에 두시며, 니파이의 말대로 “그가 명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길을 예비”하실 것입니다.¹¹ 니파이가 특정한 길이라고 하지 않고 단순히 “길”이라고 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예상과 다른 “길”을 예비하셨다고 해서 주님께서 직접 주신 심부름을 지나치거나 묵살하지는 않습니까?

제 할아버지는 양복을 입고, 일요일에, 지붕 위라는 예상치 못했던 곳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 길이 여러분의 예상이나 다른 사람의 길과 다르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후기 성도들은 참으로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거나 희거나,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미혼이나 기혼이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어린 자나 나이 많은 자나, “모두 다 하나님께는 동일”합니다.¹²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여러분은 주님의 만찬에 초대되었습니다.¹³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행하는 것이 일상의 한 부분이 될 때,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교회의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은 계시를 구하는 법을 배우고, 주님께서 우리가 행하기를 바라시는 바를 찾고, 그 인도에 따라 행동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고안되었습니다. 나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는 저마다 구하고, 받으며, 행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위해 마련된 이 영원한 패턴을 따를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 그분의 빛, 그분의 인도, 그분의 화평, 그분의 치유 권능 및 가능하게 하는 힘에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이 더욱 향상되고 매일 그분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어 그분의 위대한 일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베드나 장로님 부부와의 실시간 대화, (전 세계 청소년 방송, 2015년 5월 12일) facetoface.ChurchofJesusChrist.org; 또한 모로나이서 7:16 참조.
2. 리셀 엠 벨슨, 「교회를 위한 계시와 우리 삶을 위한 계시」,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96쪽; 강조체 추가.
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121쪽.
4. 리셀 엠 벨슨, 「교회를 위한 계시와 우리 삶을 위한 계시」, 94쪽.
5. Henry B. Eyring, in “President Eyring 1990s,” *Deseret News*, Apr. 2, 2009, deseretnews.com.
6. 마가복음 2:1~12 참조.
7. 알마서 22:4; 강조체 추가.
8. 니파이전서 18:1.
9. 이터서 6:5~8 참조.
10. 출애굽기 14:29.
11. 니파이전서 3:7.
12. 니파이후서 26:33.
13. 쿠엔틴 엘 쿡, 「영원한 일상」, 『리아호나』, 2017년 11월호, 51쪽.



데일 지 렌던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확고한 결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옛 방식을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완전히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권유하십니다.

지난 4월에 저는 콩고 민주 공화국의 킨샤사 성전을 헌납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¹ 저와 충실한 콩고 회원들은 그 땅에 헌납된 성전을 보며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킨샤사 성전에 들어서면 「콩고 폭포」라는 제목의 그림이 보입니다.² 그 독특한 그림은 성전에 온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닦을 내리고 하나님 아버지 계획의 성약의 길을 따르는 데 요구되는 확고한 결심을 상기시킵니다. 그림에 묘사된 이 폭포는 100여 년 전에 콩고의 초기 기독교 개종자들 사이에서 널리 행해졌던 한 관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개종하기 전에, 그들은 생명이 없는 물건들을 숭배하며 그 안에 초월적인 힘이

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³ 개종한 뒤에, 많은 이들이 종교 폭포처럼 콩고 강을 따라 늘어난 수많은 폭포 중 하나로 순례를 떠났습니다.⁴ 이 개종자들은 하나님과 다른 이들 앞에서 그들이 오래된 전통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상징으로서 이전에 우상화했던 물건들을 폭포에 던졌습니다. 그들은 그 물건들을 의도적으로 잔잔하고 얇은 물이 아니라 물건들을 다시 찾을 수 없는 거대한 폭포의 소용돌이치는 물속에 던졌습니다. 이런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새롭고도 확고한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 성전



콩고 폭포, 데이비드 미클

결심의 상징이었습니다.

다른 지역과 다른 시대의 사람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결심을 나타내 보였습니다.⁵ 엔타이-니파이-리하이인으로 알려진 물몬경 속의 백성들은 “그들의 반역의 무기를 내려놓[았으며]”, “하나님께 ... 그들이 결코 다시는 [그들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증거”로서 그것들을 “땅 속 깊이” 묻었습니다.⁶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들의 결심을 절대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주께로 돌이키고”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겠다는 결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⁷

“주께로 돌이키다”라는 말은 이전 믿음 체계를 따르던 한 행동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믿는 신앙에 기초한 새로운 행동 방식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변화는 복음 가르침을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삶의 의미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개선하며, 하나님께 변함없이 충실하도록 이끕니다. 구주께 닦을 내리고 성약의 길을 따르는 데 반대되는 개인적인 욕망은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심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주께로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확고한 결심에서 시작되며 그 결심을 우리의 일부로 만드는 일이 뒤따릅니다. 그러한 결심을 내면화하는 일은 인내와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한,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결국, 이 결심은 우리의 일부가 되고, 우리의 자의식에 자리 잡으며, 언제나 우리 삶에 함께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 자신의 이름을 항상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새겨진 결심도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옛 방식을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완전히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권유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구주를 믿는 신앙을 키울 때 일어나며, 그렇게 하는 첫걸음은 신앙을 가진 이들의 간증을 듣는 것입니다.⁹ 그런 후, 그분께 좀 더 굳건하게 닦을 내리는 방식으로 행동할 때 신앙이 더욱 커집니다.¹⁰

커진 신앙이 독감이나 감기처럼 전염된다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영적” 재채기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의 신앙이 커지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그렇게 자라지는 않습니다. 신앙이 자라나는 유일한 방법은 신앙을 행사하여 스스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주 다른 사람의 권유에서 촉발되지만, 우리는 누군가의 신앙을 “키워” 줄 수도, 전적으로 남에게만 의지하여 자신의 신앙을 강화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하려면, 우리는 기도와 경전 공부를 하고

성찬을 취하고 계명을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처럼 신앙을 키우는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과 약속을 맺으라고 권유하십니다. 성약이라 불리는 이러한 약속은 우리의 개심의 표현입니다. 성약은 또한 영적 진보를 위한 확실한 기초를 만듭니다. 침례를 받겠다고 선택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기 시작하며¹¹ 그분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되고 그분의 속성을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합니다.

성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닦을 내리게 하며, 하늘 본향으로 이르는 길을 따르도록 이끌어 줍니다. 성약의 권능은 우리의 마음에 크나큰 변화가 일어나게 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나게 하며, 우리의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니게 합니다.¹² 하지만 우리가

맺은 성약에 온전히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않습니다.¹³ 우리는 어물쩍한 태도를 취하거나 우리의 옛 방식을 잔잔한 물에 던지도록, 혹은 반역의 무기를 손잡이가 보이게 땅에 묻도록 유혹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약을 애매하게 지키는 태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하게 하는 권능을 불러오지 못할 것입니다.

성약을 지키겠다는 우리의 결심은 어떤 조건이나 변화하는 삶의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꾸준함은 낫사사 성전 근처에 흐르는 믿음직한 콩고강과 같아야 합니다. 이 강은 세계의 대부분의 강과는 달리 일 년 내내 한결같이¹⁴ 거의 초당 41만 5천 리터의 물을 대서양으로 쏟아 냅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처럼 믿음직하고 굳건한 사람이 되라고 권유하시며, “그러므로 너희는 …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명하는 바를

행[하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¹⁵ 우리의 성약을 지키겠다는 "굳은" 결심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속적인 기쁨이 온전히 실현되게 합니다.¹⁶

많은 충실한 후기 성도들이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굳게" 지키고 있으며 영원히 변화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세 사람, 반자 무치오코 형제와 반자 레긴 자매 그리고 음부이 응키타분기 형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77년에 반자 부부는 오늘날 콩고 민주 공화국으로 알려진 자이르의 킨샤사 지방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개신교 교회 공동체에서 크게 존경받았습니다. 재능이 있는 그들을 위해 교회에서는 그 젊은 가족이 스위스로 유학을 하러 가도록 주선하고 대학 장학금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제네바에 머무는 동안, 반자 형제는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고 적힌 작은 집회소를 자주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후기에도 성도들을 두고 계시나?"하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가서 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반자 형제와 자매는 그 지부에서 따뜻하게 환영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바람과 같은 영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될 수 있었는가?"



반자 무치오코, 반자 레긴과 그들의 아들들



그분은 어떻게 보좌에 앉아 계실 수 있는가?"와 같이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 그들이 끊임없이 품었던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선교사들이 간단한 토론을 통해 회복된 교리를 설명해 주기 전까지는 이제껏 만족스러운 답을 얻은 적이 없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떠난 후, 반자 부부는 서로 바라보며 "우리가 들은 내용이 진리가 아닐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교회에 나와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교회에서 침례를 받으면 어떤 결과가 뒤따르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들의 장학금이 박탈되고, 비자가 취소되며, 그들과 어린 두 자녀가 스위스를 떠나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1979년 10월에 침례와 확인을 받기로 했습니다.

침례를 받고 2주 뒤, 반자 형제와 자매는 자기 나라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교회 회원으로서 킨샤사에 돌아왔습니다. 제네바

지부의 회원들은 그들과 계속 연락했으며 그들이 교회 지도자들과 연락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반자 부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자이르에 세우실, 약속의 시간까지 충실하게 기다리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한편, 자이르 출신의 또 다른 교환 학생인 음부이 형제는 벨기에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1980년에 브뤼셀 와드에서 침례를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영국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음부이 형제는 자기 나라의 세 번째 교회 회원이 되어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의 동의를 받아 그의 집에서 교회 모임이 열렸습니다. 1986년 2월, 교회가 정부의 공식 인정을 받게 하려는 청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이르 국민 세 명의 서명이 필요했습니다. 반자 형제와 반자 자매, 그리고 음부이 형제가 청원서에 기쁘게 서명했습니다.

이 충실한 회원들은 진리를 듣고 그것이 참됨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침례받을 때 구주께 닮을 내리게 하는 성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옛 방식을 다시는 찾지 않겠다는 결심의 상징으로 그것을 소용돌이치는 폭포에 던졌습니다. 그 성약의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결심이 굳건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정치적 혼란, 교회 지도자와의 제한된 접촉, 그리고 성도들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으로 좌절했을지도 모릅니다.



전임 선교사인 음부이 응키타분기

그러나 반자 형제와 자매, 그리고 음부이 형제는 신앙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낚시사 성전 헌납식에 참석했으며, 이때는 그들이 자이르에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던 청원서에 서명한 지 33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반자 부부는 오늘 이 컨퍼런스 센터에 함께하고 있으며, 그들의 두 아들인 반자 2세와 필, 그리고 며느리인 에니와 유유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1986년에 반자 2세와 필은 처음으로 자이르에서 침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온 두 사람이 되었습니다. 음부이 형제는 그의 아내 마구이와 다섯 자녀와 함께 낚시사에서 이 모임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 개척자들은 성약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합니다. 성약을 통해 그들은 “주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인도되고 “그들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게” 되었습니다.¹⁷

우리는 어떻게 이들과 이들의 모범을 따른 수만 명의 콩고 성도들과 또 전 세계에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처럼 구주께 뜻을 내리고 충실하게 남을 수 있을까요? 구주께서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주 성찬을 취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성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구주의 이름을 받들고 항상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함으로써 그분과 하나가 되겠다는 성약을 맺습니다.¹⁸ 매주 성실하게 준비하여 이러한 성약을 합당하게 맺을 때, 우리는 구주의 굳건한 기초 위에 뜻을 내리고, 우리의 결심을 내면화하며,¹⁹ 성약의 길을 따라 나아갈 강력한 힘을 얻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분의 제자가 되는 평생에 걸치는 과정에 헌신하도록 권유합니다. 성약을 맺고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옛 방식을 깊고 소용돌이치는 폭포 속으로 던지십시오. 여러분의 반역의 무기를 손잡이가 보이지 않게 완전히 묻으십시오. 꾸준하고 견실하게 지키겠다는 진정한 의도를 지니고 성약을 맺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여러분의 삶은 영원히 축복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구주를 기억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는 가운데 좀 더 그분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굳건한 기초이심을 간증합니다. 그분은 신뢰할 수 있으며, 그분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 헌납식은 리셀 엠 벨슨 회장의 지명에 따라 2019년 4월 14일 종려 주일에 거행되었다.
- 화가인 데이비드 미클은 키우부 폭포 사진을 보고 「콩고 폭포」를 그렸다. 키우부 폭포는 콩고 민주 공화국의 남동부 지역에 있는 루뭄바시에서 북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곳에 있다.
- 이러한 물건은 콩고어로 *inkisi*, 프랑스어로 *fétiches*라고 알려졌다. 해당 단어는 부적, 호신부, 또는 주문이라고 번역된다.

- 데이비드 미클은 또한 폭포의 사진을 보고 「종고 폭포」를 그렸다. 종고 폭포는 콩고 민주 공화국 낚시사에서 약 130km 떨어진 곳에 있다. 그 폭포가 있는 강은 *Nzadi Inkisi* 또는 “주문의 강”으로 알려졌다. 이 이름은 본문에서 설명한 관습을 반영한다.
- 주후 1000년, 아이슬란드의 씨족 지도자들은 2주에 걸친 그들의 연례 행사 *Allting*을 위해 함께 모였다. 이는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는 법을 만드는 비공식적인 의회였다. 소르게르라는 이름의 남자는 기독교로 개종하거나 계속해서 북유럽 신들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 모두를 위한 결정을 내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사흘 동안 자신의 천막에서 은둔한 후에, 소르게르는 씨족들이 기독교로 개종해야 한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소르게르는 그의 마을로 돌아가면서, 그가 소중히 여겼던 북유럽 신 우상들을 오늘날 *Godafoss* 또는 “신들의 폭포”라 불리는 폭포 속으로 던져 버렸다. 이 행동은 소르게르가 기독교로 온전히 개종했음을 나타냈다.
- 엘마서 23:13; 24:17-18.
- 엘마서 23:6;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주께로 돌아왔고,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106~109쪽 참조.
- 에스겔 11:19~20; 고린도후서 3:3 참조.
- 로마서 10:14, 17 참조.
-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 개정판(2018), 203쪽 참조.
- 델린 에이치 옥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 「성도의 빛」, 1985년 7월호, 88~91쪽 참조.
- 엘마서 5:12~14 참조.
- 교리와 성약 82:10 참조.
- 콩고강은 세계에서 가장 깊고, 두 번째로 물살이 세며, 아홉 번째로 긴 강이다. 적도를 두 번이나 지나기 때문에, 적어도 강의 한 구간은 항상 우기에 있다. 그래서 유수량이 규칙적이다. 유수량은 일 년 내내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며, 해에 따라 변하기도 하지만(범위 23,000~75,000m³/s), 평균적으로 41,000m³/s이다.
- Joseph Smith Translation, Luke 14:28 (in Luke 14:27, footnote b).
- 니파이후서 9:18; 리셀 엠 벨슨, 「기쁨과 영적 생존,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81~84쪽 참조. 벨슨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기쁨은 충실한 이에게 주어지는 은사입니다.”(84쪽)
- 엘마서 37:9.
- 교리와 성약 20:77 참조. 2019년 6월에 열린 선교부 지도자 세미나에서 리셀 엠 벨슨 회장은 성찬을 취한 뒤 공식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준비해 온 메시지보다 오늘 제가 이곳에서 성약을 맺는 행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찬을 취하면서, 저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기꺼이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겠다는 성약을 맺었습니다. 저는 종종 우리가 성찬을 취할 때 침례 때 맺은 성약을 새롭게 한다는 표현을 듣습니다. 그 말도 맞지만, 거기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성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성약을 맺었습니다. ... 이제 그에 대한 보답으로,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항상 그분의 영과 함께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 제3니파이 18:12 참조.



반자 레긴과 반자 무치오코



음부이 응키타분기와 음부이 마구이



달린 에이치 옥스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분명하고도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에 대한 신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오늘 제 말씀의 주제와 관련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편지를 쓴 분은 영원한 동반자를 먼저 떠나보낸 한 남성과의 성전 결혼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그 자매님은 그의 두 번째 아내가 되는 셈입니다. 그녀의 질문은 다음 생에서 자신만의 거처에서 살 수 있는지, 아니면 남편과 그의 첫 번째 아내와 다같이 함께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매님에게 그저 주님을 신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제가 아끼는 한 동료가 얘기했던 경험을 그의 허락을 받아 나누고 싶습니다. 한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들을 낳아 준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재혼했습니다. 아버지의 재혼을 완강히 반대했던 장성한 몇몇 자녀들은 존경받는 교회 지도자였던 가까운 친척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영의 세계나 최후의 심판 뒤에 따르는 영광의 왕국에서의 조건과 관계를 중심으로 이런저런 이유를 나열하며 반대했습니다. 그들의 이유를 듣고 난 뒤 그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한 걱정을 하는군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과연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염려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집중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그곳에 도달한다면, 만사는 상상 이상으로 경이로울 것입니다.”

얼마나 위안을 주는 가르침입니까!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제가 받은 편지들을 통해, 저는 죽음 이후부터 부활하기 전까지 살게 될 영의 세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고민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어떤 이들은 이 지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여러 현재적인

문제나 상황들이 영의 세계에서도 계속되리라고 추측합니다. 우리는 영의 세계의 상태에 관해 정말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이 주제와 관련하여 브리검 영 대학교 종교학 교수님 한 분은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표준 경전을 통해 우리가 영의 세계에 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자문해 본다면, 그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 않다.” 저는 이 말이 옳다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경전을 통해 우리의 몸이 죽은 후 영으로서 영의 세계에서 계속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전은 영의 세계가 이생에서 “의롭거나” “정의”로웠던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 사이에 분리되어 있음을 알려 줍니다. 경전은 또한 일부 충실한 영들이 악하고 반항적이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가르치는지도 알려 줍니다. (베드로전서 3:19; 교리와 성약 138:19~20, 29, 32, 37 참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대의 계시를 통해 구원 사업이 영의 세계에서도 계속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는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38:30~34, 58 참조) 그리고 필멸의 기간 동안 회개를 미루지 말도록 권고를 받을지라도(앨마서 13:27 참조), 그곳에서 어느 정도 회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웁니다.(교리와 성약 138:58 참조)

영의 세계에서 구원 사업은 경전에서 자주 일컫는 “속박”으로부터 영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영의 세계에 있는 이들은 모두 어떤 형태로든 속박되어 있습니다. 경전의 일부로 교리와 성약 138편에 수록된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의 위대한 계시에 따르면 사망한 의로운 자들은 “평화”로운 상태에 있었으며(교리와 성약 138:22), 그들이 부활을 기다리는 동안(교리와 성약 138:16 참조) “자신들의 영이 자신들의 육체로부터 오래 떠나 있음을 속박으로 여겼[다고]” 합니다.(교리와 성약 138:50)

또한 악한 사람들은 추가로 속박을 겪습니다. 그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영옥”이라고 언급했던 곳에 거합니다.(베드로전서 3:19; 또한 교리와 성약 138:42 참조) 이 영들은 “매여”있거나 “포로”된 자들(교리와 성약 138:31, 42), 또는 부활과 심판을 기다리는 동안 “울고 통곡하며 이를 갈면서” “바깥 어둠으로 쫓겨날” 자들로 묘사됩니다.(앨마서 40:13~14)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영의 세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부활이 보장되었습니다.(고린도전서 15:22 참조) 비록 서로 다른 무리가 서로 다른 시기에 부활할지라도 말입니다. 그 정해진 시기까지, 경전을 통해 알 수 있는 영의 세계에서의 활동은 주로 구원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그 밖의 것은 거의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무지한 자, 회개하지 않은 자, 그리고 반역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그들은 속박에서 풀려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마련하신 축복을 받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개종한 의로운 영혼들이 겪는 속박이란, 그들이 침례를 받고 성신의 축복을 누리도록 지상에서 그들의 대리 의식이 집행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 의식들이 집행되도록 속삭여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38:30~37, 57~58 참조)² 또한 지상에서 행해지는 이 대리 의식을 통해 그들은 신권 권세로 전진하여 영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의인들의 무리에 합류하여 그 규모를 더욱 키우게 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 이외에, 우리가 가진 표준 경전에는 죽음 이후와 최후의 심판 사이에 있는 영의 세계에 관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³ 그렇다면 우리는 영의 세계에 관해 이 기본적인 개념 외에 무엇을 더 알고 있습니까? 교회의 많은 회원이 영의 세계에서 사물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또는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를 알려 주는 시현이나 다른 영감을 받았지만, 이들 개인의 영적 경험을 교회의 공식적인 교리로 받아들이거나 가르치도록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입사체험을 한 회원이나 다른 이들이 출판한 책 등에는 여러 추측이 실려 있습니다.⁴

이와 관련해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과 닐 엘 앤더슨 장로님이 이전 연차 대회에서 주신 현명한 경고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과거든 현재든, 교회 지도자가 하는 말씀 모두가 교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지도자가 특정한 경우에 한 특정 발언은 보통 개인적인 견해일 뿐 교회 전체의 공식 입장도 아니고 교회 전체에 효력을 미치지도 않는다는 것이 교회 통념입니다. 그것이 신중을 기한 발언일지라도 맞습니다.”⁵

그다음 연차 대회에서 앤더슨 장로님은 이 원리를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교리를 가르치는 이들은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를 이루는 열다섯 명 모두입니다. 한 말씀의 모호한 소절에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⁶ 열다섯

분의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가 모두 서명한 가족 선언문은 이 원리를 잘 보여 주는 훌륭한 예입니다.

가족 선언문과 같은 공식적인 것 외에도, 교회 회장들이 선지자로서 주신 가르침 중 다른 선지자와 사도들이 확언한 내용도 이러한 예입니다. 영의 세계의 상황에 관해,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성역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무렵에 두 가지 가르침을 주었으며 그의 후임자들은 이를 자주 인용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킹 폴렛 설교에서 말한 것으로 의로운 가족은 영의 세계에서 함께할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⁷ 두 번째는 그의 생애 마지막 해에 열린 장례식에서 한 다음 말씀입니다. “의로운 자들의 영들은 ... 영의 세계에서 ... 더욱 크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기 위해 높은 곳으로 갑니다. 그분들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우리 생각과 느낌, 움직임과 알고 이해하며, 그런 것들로 종종 고통을 받습니다.”⁸

그렇다면 영이 사는 곳에 관해 제가 앞서

언급한 질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 질문이 낯설거나 사소하게 여겨진다면, 자신이 가진 다른 여러 질문이나, 혹은 과거에 어떤 질문에 대해 누군가에게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답하려는 유혹을 느꼈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영의 세계에 관한 모든 질문에 저는 두 가지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며 우리 각자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성경에 나오는 익숙한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다음 구절은 답을 찾지 못한 수많은 질문을 다루는 세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언 3:5~6)

이와 유사하게, 니파이는 다음 말씀으로 그의 위대한 기록을 마무리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의뢰하였사오니 내가 또 영원히 주를 의뢰하리이다. 내가 육신의 팔에 나의 신뢰를 두지 아니하오리니”(니파이후서 4:34)

우리는 모두 영의 세계가 어떤 곳인지 개인적으로 궁금하게 여길 수 있고, 가족이나 다른 친밀한 사람들과 이런 의문이나 답을 찾지 못한 질문에 대해 공론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교리 표준에 맞지 않는 내용을 공식적인 교리로 가르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행위는 주님의 사업을 진척시키는 데 저해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주님의 계획 안에서 개인적인 계시를 통한 위안이나 교화를 추구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가르침이나 추측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성약의 길을 따라 전진하도록 도와줄 학습과 노력에 오히려 집중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친숙하면서도 참된 가르침입니다. 이는 초기 성도들이 심한

박해와 극복하기 힘든 난관에 부딪혔을 때 조셉 스미스가 준 가르침입니다.⁹ 아직 밝혀지지 않았거나 교회의 공식 교리로 채택되지 않은 문제에 관해 배우려고 노력하고 위안을 찾아보려 하지만 어려움에 부딪힐 때, 이 가르침은 여전히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최선의 원리입니다.

다음 생에서의 인봉에 관한 질문 또는 현재에서의 사건이나 범법으로 인해 재조정을 원하는 경우에 관한 질문에 답을 얻지 못했을 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에, 우리가 유일하고도 확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당신의 자녀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영의 세계에 관해 우리가 아는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의 구원 사업이 그곳에서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언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베드로전서 3:18~19; 4:6; 교리와 성약 138:6~11, 18~21, 28~37 참조) 그리고 합당하고 자격을 갖춘 사자들이 복음의 정화 효과를 여전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포함한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이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138:57 참조). 이 모든 목적은 현대의 계시로 주어진 교회의 공식 교리에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는 죽은 자는 하나님의 집의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구속함을 받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범법에 대한 형벌을 치르고 깨끗이 씻음을 받은 후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으리라. 이는 그들이 구원의 상속자가 됨이니라.”(교리와 성약 138:58~59)

회복된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고, 계명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돕고, 거룩한 성전에서 구원 사업을 행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지니고 있는 의무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이 연차 대회에서 여러분이 배웠고 또 배우게 될 내용이 참됨을 간증 드립니다. 이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우리가 현대의 계시를 통해 아는 것처럼, 그분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고, 자기 손으로 지은 모든 것을 구원하십니다.”(교리와 성약 76:43; 강조체 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What’s on the Other Side? A Conversation with Brent L. Top on the Spirit World,” *Religious Educator*, vol. 14, no. 2 (2013), 48.
2. See *Teachings of the Prophet Joseph Smith*, sel. Joseph Fielding Smith (1976), 309–10; Joseph Smith, “Journal, December 1842–June 1844; Book 2,” p. 246, *The Joseph Smith Papers*, josephsmithpapers.org.
3. 영의 세계의 상태에 관해 조셉 스미스가 받은 계시가 자주 인용되었다.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과 똑같은 사림이 그 곳에서도 우리 가운데 존재하리라.”(교리와 성약 130:2) 이것은 영의 세계보다 영광의 왕국을 묘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그 사림에는 지금 우리가 향유하지 못하는 영광, 곧 영원한 영광이 수반되리라.”(교리와 성약 130:2)
4. For example, George G. Ritchie, *Return from Tomorrow* (1978) and Raymond Moody, *Life after Life* (1975).
5.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그리스도의 교리」,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88쪽; see also Joseph F. Smith, *Gospel Doctrine*, 5th ed. (1939), 42.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가르침이 담긴 교리와 성약 74편 5절의 서술을 참조한다.
6. 닐 엘 앤더슨, 「신앙의 시련」,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41쪽.
7.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175쪽 참조.
8. *History of the Church*, 6:52; included in *Teachings of the Prophet Joseph Smith*, 326; often quoted, as in Henry B. Eyring, *To Draw Closer to God* (1997), 122; 또한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 (1997), 제38장, “영의 세계” 참조.
9. 가르침: 조셉 스미스, 231~233쪽 참조.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교회 총관리 역원, 지역 칠십인 및 본부 역원 지지

형제 자매 여러분, 러셀 매리언 빌슨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으로, 델린 해리스 옥스를 제일회장단의 제1보좌로, 헨리 베니언 아이어링을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델린 해리스 옥스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엠 러셀 벨라드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십시오.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엠 러셀 벨라드, 제프리 알 홀런드, 디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게리 이스티븐슨, 데일 지 랜런드, 게릿 더블유 공, 그리고 울리세스 소아레스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회장단 보좌들과 십이사도들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다음 호명하는 장로님들을 그동안의 헌신적인 봉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칠십인 총관리 역원에서 해임하고 명예직에 임명할 것을 제의합니다. 윌포드 더블유 앤더슨, 김 비 클락, 로렌스 이 코브리지,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브래들리 디 포스터, 오 빈센트 할레크, 도널드 엘 홀스트롬, 스티븐 이 스노우, 래리 와이 윌슨.

이분들과 그들의 가족 분들의 훌륭한 봉사에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다음 분들을 지역 칠십인에서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홀리오 시 어코스타, 블레이크 알 엘더, 얼레인 엘 엘러드, 오마 에이 알바레스, 타이이치 아오바, 카를로스 에프 어렌도노, 엘리 케이 아우나 주니어,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의회

그랜트 시 베넷, 마이클 에이치 본,
호물로 브이 카브레라, 윌슨 비 칼데론,
에르난도 카마르고, 호세 시 에프 캄포스,
니콜라스 카스타네다, 월터 차토라,
지노 초우, 로버트 제이 더드필드, 제이
케빈 앤스, 멜리올라 엠 파타, 케이 마크
프로스트, 클라우데 알 게미트, 마우리시오
지 곤자가, 레오나드 디 그리어,
호세 엘 이사기레, 정태길, 서지오 엘
크라스노셀스키, 밀란 에프 쿤즈, 브라이언
알 라슨, 지 케네스 리, 제랄도 리마,
더블유 장-피에르 로노, 콤블라니 음들체,
데일 에이치 몽크, 노먼 알 네트로, 유타카
온다, 볼프강 필즈, 라이문도 파체코 데
피노, 젠나디 엔 포드보도프, 에이브러햄
이 케로, 마르코 에이 라이스, 스티븐
케이 랜들, 프란시스코 제이 루이즈 데
멘도자, 에드윈 에이 섹스톤, 라울 에이치
스피탈레, 시 월터 드레비노, 아이사케
케이 투쿠아푸, 후안 에이 우라, 라울 에스
빌라누에바, 레오나르도 우.

이분들의 훌륭한 봉사와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호명하는 분들을 새로운 지역
칠십인으로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이클 제이 카터, 알프레드 경구, 알 페퍼
머레이, 라이언 케이 올슨, 이오투아 투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현재 구성된 총관리 역원,
지역 칠십인, 본부 역원들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를 표하신 분들은 소속 스테이크
회장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계속해서 신앙을
행사해 주시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여

(엘마서 34:39; 모로나이서 6:4; 누가복음 21:36)

안일함과 무심함에 대처하려면 끊임없이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동안 성신이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1976년 4월 연차 대회에서,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님은 특별히 교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악어”라는 제목으로 널리 회자되는 이
말씀에서, 그분은 임무 수행 차 아프리카를
방문하던 중에 자신의 몸을 잘 숨긴 악어가
아무런 낚시도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희생물을 잡아먹으려고 기다리는 모습을
지켜본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 악어를, 죄의 치명적인 본질을 감추고,
방심하고 있는 청소년을 먹잇감으로 삼는
사탄에 비유하셨습니다.

패커 장로님이 그 말씀을 전하시던
당시 저는 스물세 살이었는데, 제 아내
수전은 첫 아이의 출산을 겨우 며칠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죄를 피하는 것에 관한
그분의 말씀 내용과 더불어, 그분이 중요한
영적 가르침을 주기 위해 동물의 평범한
행동을 절묘하게 활용하시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내와 저 역시도 임무 수행 차



아프리카를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그
대륙에 살고 있는 아름다운 동물들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패커 장로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미쳤던 영향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저희는 아프리카 야생 동물의
습성을 주시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지켜본 치타 두 마리가
먹잇감을 사냥하면서 보여 준 특징과



전술을 설명해 드리고, 그중 몇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매일 생활하는 것에 연관 짓고자 합니다.

치타와 영양

치타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육지 동물로서, 그 속도가 무려 시속 120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 아름다운 동물은 가만히 서 있다가 단 3초 만에 거의 시속 110킬로미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치타는 먹잇감에게 몰래 다가간 후 짧은 거리를 전력 질주하여 쫓아가 공격하는 포식 동물입니다.

수전과 저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혼하고 널리 퍼져 사는 종의 영양 떼에게 몰래 접근하는 두 마리의 치타를 두 시간 가까이 지켜보았습니다. 아프리카 사바나의 기다랗고 메마른 풀은 황금빛 갈색이었는데, 이는 영양 떼에게 접근하는 이 포식자를 거의 완벽하게 감추어 주었습니다. 치타들은 서로 90미터가량 떨어져 있으면서도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치타 한 마리가 수풀 속에 움직이지 않고 꼴뚜기 앉아 있는 동안에, 또 다른 한 마리의 치타는 몸을 낮춰 땅에 바짝 엎드린 채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영양들에게 서서히 기어갔습니다. 그런 다음 그 치타가 몸을 세우고 앉는 바로 그 순간에, 꼴뚜기 앉아 있었던 다른 치타가 수풀 속으로 모습을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치타 한 마리가 몸을 낮춰 엎드린 채 기어가는 동안 또 다른 치타가 수풀 속에 꼴뚜기 앉아 있기를 반복하는 이 패턴은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 은밀하고 교묘한 전략은 영양들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고 속여서 다가오는 위험에 대한 관심을 흐트러뜨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치타 두 마리는 먹잇감을 확보하기 위해 끈기 있고도 꾸준히 공동 작전을 벌였습니다.

영양 떼와 다가오는 치타들 사이에는 연륜 있고 보다 힘센 영양들 대어섯 마리가 흰개미 집 위에 서서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 자그마한 언덕 위에서는 초원을 널리 둘러볼 수 있었기에 파수꾼 역할을 하는 영양들은 위험의 징조를 살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타들이 공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오자, 갑자기 온 영양 떼가 방향을 돌려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로서는 보초를 서던 영양들이 영양 떼와 의사소통을 했는지, 했다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만, 영양들은 전부 안전한 장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치타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한 마리가 몸을 숙여 앞으로 기어나가는 동안 다른 한 마리는 수풀 속에 꼴뚜기 앉아 있는 패턴을 번갈아 가며 다시 반복했습니다. 그 추적 패턴은 쉼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쉬거나 잠시 휴식 시간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산만하게 하고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전략을 끈질기게 구사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멀리

사라졌다가도 어김없이 영양 때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치타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아내와 저는 함께 관찰하고 배운 것에 관하여 기억에 남을 중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저희 자녀들과 손주들과도 이 경험에 관해 토론하고 여러 가지 가치 있는 교훈을 찾아냈습니다. 그중에서 세 가지 교훈을 설명하겠습니다.

교훈 1—마음을 현혹하는 악의 위장술을 조심하십시오

세계 치타는 세련되고 매혹적이며 흥미로운 동물입니다. 노르스름한 황갈색이나 잿빛 흰색을 띠는 치타의 털은 검은 반점과 어우러져 아프리카 초원에 사는 먹잇감을 조용히 사냥할 때 치타가 거의 눈에 띄지 않도록 훌륭히 위장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위험한 생각과 행동은 많은 경우에 매력적이거나 호감이 가거나 기쁨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각자는 선으로 위장하고 마음을 현혹하는 악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¹

생명의 경시가 권리로 칭송되고 혼란이 자유로 묘사되는 모순적인 시기에, 우리는 회복된 복음의 빛이 우리 삶을 밝게 비추 주고 대적의 어두운 속임수와 방해물 분별하도록 도움을 주는 이 후기 경륜의 시대에 사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무릇 슬기로우며 진리를 받아들이고 성령을 자기들의 인도자로 삼아 속임을 받지 아니한 자는—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찌혀 불 속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그 날을 견디리라.”²

교훈 2—깨어 있어 경계하십시오

영양의 입장에서 순간의 방심이나 부주의는 치타의 재빠른 공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안일함과 무심함은 우리를 대적의 접근과 공격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것에 무심해지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위험을 초래합니다.

니파이는 후기에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육적인 안전”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달래고 안심시키려 애쓸 것인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시온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도다, 참으로 시온은 번성하나니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도다 할 것이라—**이같이 악마가 그들의 영혼을 속여, 조심스럽게 그들을 인도하여 지옥으로 내려가느니라.**”³

안일함과 무심함에 대처하려면 끊임없이 경계해야 합니다. 경계한다는 말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어려움을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는** 상태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펴본다는 말은 무언가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깨어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깨어 있어 성신의 속삭임과 망대 위에서 주님의 파수꾼이 보내는 신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⁴

“참으로 이뿐 아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 너희는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여, 악마의 유혹에 이끌려 가지

않도록 하라.] … 이는 보라, 그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상 주지 아니함이니라.”⁵

구주와 그분의 복음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면, 육에 속한 사람이 지니는, 영적으로 방심하고 태만한 성향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지는 축복을 받았기에,⁶ 성신은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거나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아무것도 보이거나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 준비가 되어 있도록, 깨어 있으십시오.”⁷

교훈 3—적의 의도를 파악하십시오

치타는 다른 동물들을 먹잇감으로 삼는 천성을 지닌 포식자입니다. 매일, 온종일, 치타는 포식자입니다.

사탄은 “의의 적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애쓰는 자들의 적”입니다.⁸ 즉 항상, 언제나, 그의 일념이자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자기처럼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⁹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의 계획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지침을 제공하고, 영원한 기쁨을 경험하도록 도우며, 부활하여 완전해진 몸으로 무사히 그분 면전에 돌아올 수



영양의 입장에서 순간의 방심이나 부주의는 치타의 재빠른 공격을 초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안일함과 무심함 때문에 우리는 대적의 접근과 공격에 취약하게 된다.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악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혼란스럽고 불행하게 하며 영원한 진보를 가로막고자 노력합니다. 대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중 그가 가장 중요하는 요소들을 공격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합니다.

사탄은 욕신이 없기 때문에 그의 영원한 진보는 중단되었습니다. 마치 강을 따라 흐르는 물이 댐에 가로막히듯, 욕신을 얻지 못한 사탄의 영원한 진보는 좌절되었습니다. 루시퍼는 모반함으로써 살고 빠로 된 욕신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필멸의 세상에서의 모든 축복과 경험을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경전에 나오는 **정죄받은**이라는 단어(이 단어[damn]의 발음은 강물을 막는 '댐[dam]'이라는 단어의 발음과 같다—옮김)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계속 진보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될 수 없는 사탄의 상태에서 잘 나타납니다.

욕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행복의 계획과 우리의 영적인 진보에서 매우 중요하기에, 루시퍼는 우리가 욕신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유혹함으로써 우리의 진보를 좌절시키려 합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영적인 안전은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가서는 안 될 길을 가 보라거나,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해 보라는 유혹에 굴복하는 첫발을 결코 내딛지 않는’ 데 달려 있습니다. … 인간으로서 우리는 모두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욕신의] 욕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는 삶을 이어가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대적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 그는 우리의 욕구를 빌미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는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먹고, 마셔서 안 되는 것들을 마시고,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사랑하도록 유혹합니다!”¹⁰

영원에 걸쳐 이어지는 가장 큰 모순 중 하나는 바로 욕신이 없기에 비참함에 처한 대적이, 우리에게 그 욕신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비참함에 동참하도록 권하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갖지 못해서 사용할 수 없는 바로 그 도구가 우리를 육체적, 영적 파멸로

이끌기 위한 공격의 주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적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¹¹ 모로나이 장군은 레이맨인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그들이 공격해 오는 시점에 그들과 대결할 준비를 갖추어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¹² 그 똑같은 원리와 약속이 우리 각자에게도 적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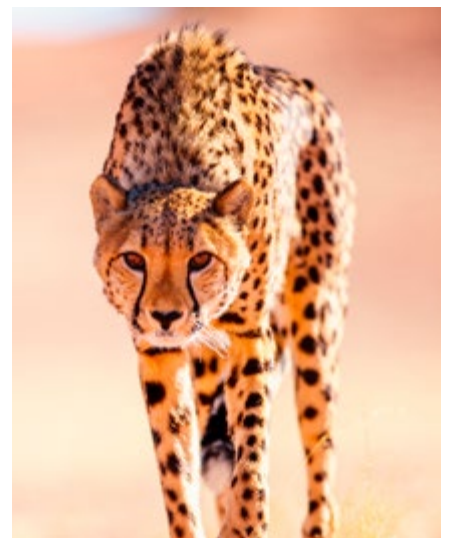
“너희가 준비 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

그리고 너희가 원수의 힘에서 벗어나[게 되리라.]”¹³

권유, 약속, 간증

치타와 영양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듯이, 우리 각자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경험에서 교훈과 경고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신의 권능이 주는 하늘의 인도를 받기 위해 생각과 마음을 열고자 애쓴다면, 우리 자신의 평범한 경험 속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가르침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줄 가장 강력한 경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강력한 비유들은 경전과 우리 매일의 삶 모두에 녹아 있습니다.

저는 아내와 제가 아프리카를





루벤 브이 알리아우드 장로
칠십인 정원회

방문하면서 겪은 경험에서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훈 중 세 가지만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치타와 영양 이야기를 되새겨 보고 여러분과 가족을 위한 교훈들을 추가로 찾아보시도록 권유하고 격려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복음 교육과 복음 생활의 진정한 중심이라는 점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권유에 신앙으로 응한다면, 영감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고, 영적인 느낌이 가슴 속에서 부풀어 오르며, 여러분은 시작하거나 지속해야 할 행동을 인식하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 ... 악한 날을 견딜 수 있게 [되]고, 모든 일을 행하고 능히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¹⁴

여러분이 깨어 있어 경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영적으로 보호받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 들어올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성약의 길에서 힘써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에 영적인 안전과 영원한 기쁨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또한 부활하셔서 살아 계신 구주께서 기쁨 때나 슬픔 때나 우리를 도우시고 복돋아 주실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이 모든 진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이사야 5:20.
2. 교리와 성약 45:57; 강조체 추가.
3. 니파이후서 28:21; 강조체 추가.
4. 에스겔 33:7; 교리와 성약 101:44~58; 경전 안내서, “살피보다(Watch), 파수꾼(Watchman)”, scriptures.ChurchofJesusChrist.org 참조.
5. 엘마서 34:39.
6. 마태복음 13:16 참조.
7. 교리와 성약 50:46.
8. 경전 안내서, “악마(Devil)”, scriptures.ChurchofJesusChrist.org.
9. 니파이후서 2:27 참조.
10. Russell M. Nelson, in “Advice from the Prophet of the Church to Millennials Living in a Hectic World,” Newsroom, Feb. 18, 2018, newsroom.ChurchofJesusChrist.org.
11. 엘마서 2:7~13 참조.
12. 엘마서 43:29~33, 48~50 참조.
13. 교리와 성약 38:30~31.
14. 교리와 성약 27:15

몰몬경의 권능으로 발견됨

모든 사람은 몰몬경에 담긴 진리의 권능을 경험하고 그 권능에 의해 발견되어야 합니다.

개종하신 분들의 가정을 방문할 때면, 저는 그분들과 가족들이 어떻게 교회를 알고 침례받게 되었는지 자주 질문하곤 합니다. 질문을 받을 당시 그분이 활동적인 회원이든 아니면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으셨든, 그분들은 예외 없이 환한 얼굴과 미소로 자신이 어떻게 발견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실 어쩌면 모든 개종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발견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것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것들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즉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탕자의 비유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그것들을 잃어버린 이유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것]을 찾아내었노라”라고 외칠 만큼 큰 기쁨이 흘러 넘칩니다. 결국, 그분께서는 아무것도 잃지 않으십니다.² 제게 가장 소중한 이야기인, 제가 어떻게



발견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오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15살이 되기 직전에, 제 외삼촌인 마누엘 부스토스는 제게 미국으로 와 그의 가족과 함께 얼마간 시간을 보내자며 저를 초대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삼촌은 이미 여러 해 전에 교회로 개종하셨고,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셨습니다. 저는 몰랐었지만, 그것 때문에 제 어머니는 삼촌에게 연락해서 절대로 저를 교회 회원으로 끌어들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걸고 제가 삼촌 댁을 방문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저희는 몇 세대에 걸쳐 천주교 신자였고, 종교를 바꿔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삼촌은 그렇게 하기로 완전히 동의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심지어는 교회에 관련된 아주 간단한 질문도 대답해 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제 삼촌과 다정한 마조리 숙모는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지까지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³

저는 책이 아주 많은 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책장에는 여러 언어로 된 몰몬경이 대략 200권 정도 있었는데, 그중 스무 권은 스페인어 몰몬경이었습니다.

하루는 그저 궁금해서 스페인어 몰몬경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늘색 겉표지에, 앞에는 모로나이 천사의 모습이 있는 몰몬경이었습니다. 몰몬경을 펴자, 맨 앞 첫 페이지에 다음 약속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 너희가 이 기록을 받거든, 내가 너희를 권면하거나, 너희는 혹 이 기록이 참되지 아니한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의도를 지니며,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할진대, 그는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에게 이것의 참됨을 드러내어 주시리라.”

이어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또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는 모든 것의 참됨을 알게 되리라.”⁴

그 구절이 제 마음과 생각에 미친 영향을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저는 “진리”를 찾고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곳의 새로운 문화를 즐기며 삶에 만족하는 십 대 소년일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책의 약속을 생각하며 몰래 몰몬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몰몬경을 더 읽을수록 저는 그 책에서 무언가를 얻고 싶다면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몰몬경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관해 기도해 보기로 결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의 수백만 명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너무나도 특별하고 독특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성신의 권능으로 몰몬경이 참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삼촌께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드리고, 침례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촌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삼촌은 차를 타시더니 공항으로 가서 집으로 가는 제 비행기 표를 사 오셨습니다. 그 표에 삼촌은 제 어머니께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라는 쪽지를 남기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몰몬경의 권능이 저를 직접 찾아낸 것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훌륭한 선교사들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찾아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의 길에 준비해 두신 친구를 통해 발견된 분들도 있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이 찾아낸 분도 있고, 심지어는 조상 중 한 분을 통해 발견된 분도 있습니다.⁵ 어떠한 경우든, 개인적인 개종으로 이어지려면 가급적 조만간 그들 모두는 몰몬경에 담긴 진리의 권능을 경험하고 그 권능에 의해 발견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진지하게 약속해야 합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께서는 제가 진심으로 침례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제가 다소





반항적인 시기였기에, 어머니께서는 반대하는 대신 아주 현명하게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고, 어머니는 모르셨겠지만, 침례 접견에서 하는 모든 질문을 제게 직접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 어머니께서하신 질문들은 선교사들이 했던 침례 접견보다도 훨씬 더 상세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침례받길 원한다면, 네 결정을 지지하마. 그렇지만 먼저 몇 가지를 물어볼 테니, 잘 생각해 보고 솔직하게 대답해 주렴. 매주 반드시 교회에 참석하기로 결심하겠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그렇게 할 거예요.”

“교회 모임이 얼마나 긴지는 알고 있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알아요.”

어머니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침례를 받는다면 나는 네가 교회에 꼭 참석하도록 할 거란다.” 그리고 어머니는 제가 정말로 절대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을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그것도 지킬 거예요.”

어머니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침례를 받는다면 나는 네가 꼭 그렇게 하도록 할 거란다.” 어머니께서는 계속해서 거의 모든 계명에 관해서 같은 방식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삼촌은 제 어머니께 전화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몇 년만 지나면 제가 교회에 관심이 없어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4년 후 저는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선교부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어머니는 삼촌께 전화해서 정확히 언제쯤이면 제가 교회에 관심이 없어질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침례를 받은 후에 어머니는 더 행복해지셨습니다.

저는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한다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는⁶ 약속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몰몬경이 개종의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니파이의 몰몬경의 주요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자손과 또한 우리의 형제들을 설득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부지런히 수고하여 기록함이니, ...

또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노니] ... 이는 우리의 자손들이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라.”⁷

몰몬경 전체가 이 신성한 목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몰몬경을 진지하게 공부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관해 배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배우게 될 것입니다. 특히 그들이 “말씀의 능력을 시험”⁸ 보겠다고 결정하고, 자신이 직접 읽어 보지도 않은 것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로 인한 편견과 믿지 않음으로⁹ 성급하게 그 책을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몰몬경을 생각할 때면 힘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몰몬경의 진리에는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위로하며, 회복하고, 구제하고, 강화하며, 위안을 주고, 복돋을 힘이 있습니다.”¹⁰



러셀 엠 넬슨 회장

증인, 아론 신권 정원회, 청녀반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회원이었던지에 상관없이, 우리 각자가 부지런히 개인적인 계시를 구하는 가운데 물몬경에 담긴 진리의 권능이 다시 한번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를 찾아내고 우리를 감싸 안도록 하시길 권유합니다. 우리가 그 권능을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물몬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이 담겨 있음을 간증하며, 인간의 영혼에 구원을 가져다주는 지식을¹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는 모든 이에게는 성신이 몇 번이고 그 진리를 확인해 줄 것임을 엄숙히 간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누가복음 15:6; 또한 누가복음 15:9, 32 참조.
2. 가장 넓은 의미에서, 이 성구들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들을 모으는 것에 관해 언급하는 예언들을 설명한다.(러셀 엠 넬슨, 「잃어진 이스라엘의 집합」,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79~82쪽 참조) 설사 그들이 잃어버린 바 되었을지라도 주님께는 잃어버려진 것이 아니다.(제3니파이 17:4 참조) 또한 그들이 발견될 때까지 특히 그들이 축복사의 축복을 받을 때까지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3. 디아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님은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가 했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어느 때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필요하다면 말로 전하라.”(「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앉아 기다리며」,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77쪽; see also William Fay and Linda Evans Shepherd, *Share Jesus without Fear* [1999], 22).
4. 모로나이서 10:4~5.
5. 우리 조상의 개종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윌리엄 알 워커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쳤다. “모든 후기 성도들이 자신의 선조가 어떻게 교회로 개종했는지 그 이야기를 안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신앙에 충실한 삶」,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97쪽)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는 처음부터 끝을 아시는 하늘 아버지 덕분에 직접적으로 또는 우리 조상을 통해 찾아내어진 것이다.(아브라함서 2:8 참조)
6. 물몬경 소개; 또한 엘마서 31:5 참조.
7. 니파이후서 25:23, 26.
8. 엘마서 31:5.
9. 엘마서 32:28 참조.
10. 러셀 엠 넬슨, 「물몬경: 그것이 없는 여러분의 삶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리아호나』, 2017년 11월호, 62쪽.
11. 제3니파이 5:20 참조.

이제 우리는 청남 청녀들이 자신의 신성한 잠재력을 계발하는 데 도움이 될 변경 사항을 발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연차 대회에서 다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침례와 인봉 의식의 증인으로 봉사할 수 있는 대상에 관한 정책 변경 사항을 교회 회원들에게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세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 돌아가신 분을 위한 대리 침례는 제한 사용 추천서를 포함하여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소유하신 분이시면 누구든 증인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2. 엔다우먼트를 받았으며 현재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소지한 모든 회원은 산 자를 위한 인봉 혹은 대리 인봉 의식의





증인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3. 침례를 받은 모든 교회 회원은 산자를 위한 침례의 증인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변경은 성전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침례에 적용됩니다.

이 정책 변경은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교리 및 성약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의식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변경 사항은 이런 의식들에서 가족의 참여를 크게 증대시킬 것입니다.

저는 또한 이 자리에서 우리 청소년과 그 지도자들에게 해당하는 변경 사항을 소개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청소년들에게 주님의 청소년 대대에 합류하여 이스라엘의 집합이라는, 오늘날 이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대업에 참여하도록 촉구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¹ 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런 권유를 한 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자신이 믿는 바를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나누는 일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집합이라는 대업은 이 세상과 그 주민들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돕는 일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각 와드에서 주님의 청소년 대대는 하나님의 현신적인 종인 감독이 인도합니다. 감독의 첫째 되고 가장 중요한 책임은 그 와드의 청남과 청녀를 돌보는 것입니다. 감독과 그의 보좌들은 와드의 아론 신권 정원화와 청녀 반의 일을 인도합니다.

이제 우리는 청남 청녀들이 자신의 신성한 잠재력을 계발하는 데 도움이 될 변경 사항을 발표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아론 신권 정원화와 청녀 반을 강화하고, 이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 봉사하는 감독 및 다른 성인 지도자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제 쿠엔틴 엘 룩 장로님이 청남에 관계된 변경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여성 총회에서 본부 청녀 회장이신 보니 에이치 코든 자매님이 청녀에 관계된 변경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을 강화하려는 이러한 노력을 지지하고 승인하는 일에서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들은 하나로 단합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희망,] 시온 군대, 언약된 날의 자녀들”입니다.²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감사를 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러셀 엠 넬슨, “이스라엘 시온 군대”(청소년을 위한 전 세계 영적 모임, 2018년 6월 3일), HopeofIsrael.ChurchOfJesusChrist.org 참조.
2. “이스라엘 시온 군대”, 『찬송가』, 156장.



쿠엔틴 엘 쿡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청소년을 강화하기 위한 변경 사항

청소년들에게 쏟아붓는 이러한 집중된 노력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청남 청년들이 어려움을 이겨 내고
계속해서 성약의 길을 따라 나아갈 것입니다.

넬슨 회장님, 침례 증인에 관한 매우 기쁜 내용의 계시로써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청소년을 강화하고 그들의 신성한 잠재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 사항을 이야기하라는 임무를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계속되고 있는 복음의 회복 과정에 수반된 여러 변화에 대해 회인 여러분이 훌륭히 응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넬슨 회장님께서 작년에 제안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은 비타민을 드시고 새로운 변화를 맛을 준비를 참 잘하셨습니다!¹

여러분은 가정에서 기쁜 마음으로 와서 **나를 따르라**를 공부하고 계십니다.² 또한 교회의 여러 가지 변화에 잘 순응하고 계십니다. 장로 정원회 회원들과 상호부조회 자매님들은 한마음으로 구원 사업에 동참하고 계십니다.³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⁴ 또한 계속해서 굳건하고 충실하게 생활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특별히 더 감사를 전합니다.

청소년들은 가슴 벅차면서도 힘든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선택들은 전례없이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례로, 현대의 스마트폰은 가족 역사 자료 및 경전을 포함하여 참으로 중요하면서도 영적으로 고양되는 정보들을 접하게 해 줍니다. 반면에, 그것은 과거에는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어리석고 부도덕하며 사악한 정보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수많은 정보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기 위해, 교회는 심오하고도 포괄적인 세 가지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교과 과정이 강화되고 그 영역이 가정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둘째, 지난 일요일, 러셀 엠 넬슨 회장님과 엠 러셀 벨라드 회장님 및 본부 직원들은 흥미로운 활동과 개인 발전 과정이 포함된 어린이와 청소년 프로그램을 발표하셨습니다. 세 번째 계획은 감독과 다른 지도자들이 청소년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조직상의 변화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영적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며, 우리 청소년들이 넬슨 회장님께서 권고하신 것처럼 청소년 대대가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결된 패턴

지난 몇 년간 발표된 여러 계획과 더불어 이러한 노력은 결코 동떨어진 변화가 아닙니다. 각각의 변화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의 연결된 패턴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 패턴의 한 부분은 자라나는 세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청소년들은 부모와 지도자가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대신해 주는 일 없이, 더 어린 나이에 더욱 개인적인 책임을 지도로 권고받고 있습니다.⁵

공지 사항

오늘 우리는 와드와 스테이크에서 시행될 청소년 조직 개편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벨슨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년 조직에 있을 변화는 오늘 저녁 보니 에이치 코드 자매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변화의 한 가지 목적은 아론 신권 소유자들과 정원회 및 정원회 회장단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우리의 관행은 교리와 성약 107편 15절에 나오는 말씀, 즉 “감독단은 이 [아론] 신권의 회장단이니, 이 신권의 열쇠 곧 권세를 가지느니라”라는 말씀에 일치될 것입니다.

경전에 나오는 감독의 의무 중 하나는 제사를 감리하고 그들과 함께 평의회에 앉아 그들이 받은 직분의 의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⁶ 이에 더하여, 감독단 제1보좌는 교사 직분에 대해, 제2보좌는 집사 직분에 대해 구체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리와 성약에 나온 이 계시와 보조를 같이 하기 위해 이제 와드 청년 회장단은 폐지됩니다. 이 충실한 형제들은 지금까지 많은 훌륭한 일들을 해 오셨습니다. 그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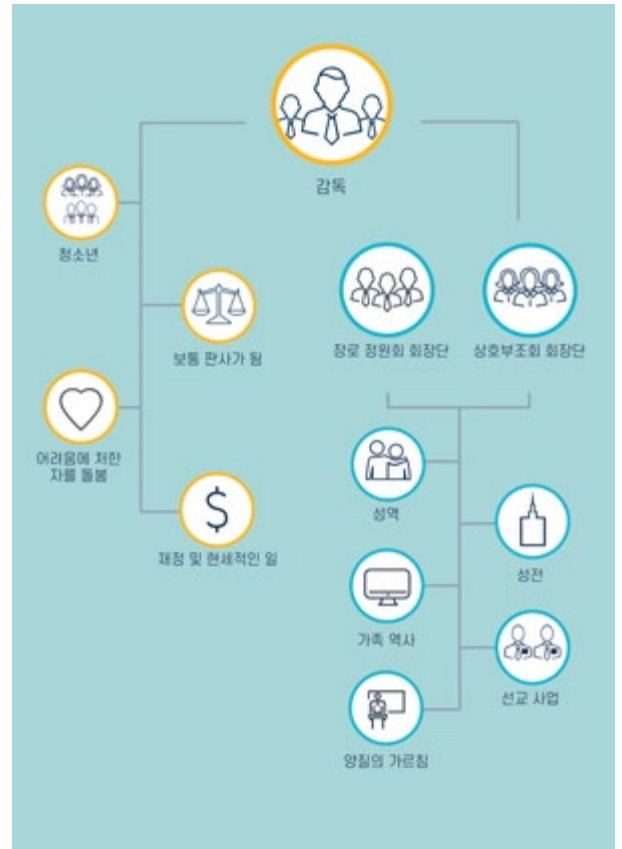
우리의 소망은 감독단이 청년들의 신권 책임을 더욱 중시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 청년들이 정원회의 의무를 다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아론 신권 정원회 회장단과 감독단이 그들의 의무를 다하도록 돕기 위해 훌륭한 역량을 갖춘 성인들에게 청년 고문의 부름을 줄 것입니다.⁷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쏟아붓는 이러한 집중된 노력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청년 청년들이 어려움을 이겨 내고 계속해서 성약의 길을 따라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님의 영감 어린 패턴에 따라, 감독은 모든 와드 회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감독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들도 축복합니다. 한 감독은 외설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 청년의 부모님이 사랑과 이해심으로 대처하도록 도운 후에야 그 청년을 회개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치유는 가족 전체의 치유였으며, 그것은 감독이 그 가족 전체를 돕고자 노력함으로써 가능했습니다. 그 청년은 이제 합당한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이자 전임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변화는

- 감독과 그 보좌들이 청소년과 초등회라는 그들의 가장 중요한 책임에 집중하게 할 것입니다.
- 아론 신권의 권능과 의무가 모든 청년 개개인의 삶과 목표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 아론 신권 정원회 회장단의 책임을 부각시키고 감독단으로 직속되는 그들의 보고 체계를 강조하며,
- 아론 신권 정원회 회장단이 그들이 지닌 직분의 권능과 권세를 영화롭게 하고자 노력할 때, 멘토로서 그들을 지원하도록 성인 지도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변화로 인해 청년에 대한 감독단의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벨슨 회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감독의] 첫째 되고 가장 중요한 책임은 그 와드의 청년과 청년을 돌보는 것입니다.”⁸

늘 힘써 일하시는 우리의 사랑하는 감독님들은 어떻게 이 책임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기억하시다시피, 2018년에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는 상호부조회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개편되었고, 그로 인해 장로 정원회와



상호부조회는 감독의 지시 아래, 이전에 감독의 업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중요한 책임을 함께 나누어 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책임에는 와드의 선교 사업과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⁹, 그리고 와드 회원에 대한 성역의 많은 부분이 포함됩니다.

감독은 청소년을 강화하는 책임이나 보통 판사로서의 책임, 궁핍한 자들을 보살피는 일, 그리고 재정 및 현세적 업무를 관장하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책임은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것보다 그 수가 줄었습니다. 작년에 멜기세택 신권 정원회에 대한 변경 사항이 발표되었을 때,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감독은 와드 감리 대제사로서의 직분을 유지합니다. 이 [장로 정원회와 상호부조회] 새로운 편성을 통해 감독은 멜기세택 신권이나 상호부조회 조직의 일들을 직접 하지 않고도 이 두 조직의 일을 감리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¹⁰

예를 들어, 상호부조회 회장과 장로 정원회 회장은, 임무를 받은 경우, 성인 회원들과 상담하는 일에서 더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청녀 회장이 청녀들을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감독만이 보통 판사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지도자들도 보통 판사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나 학대와 관련되지 않은 모든 문제에 대해 하늘의 계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¹¹

그렇다고 해서 청녀가 감독이나 부모에게 이야기할 수 없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청소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제 말은 청녀 지도자가 청녀 개개인의 필요 사항을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감독단은 청남과 마찬가지로 청녀에게도 관심을 두어야 하지만, 우리는 강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집중하는 청녀 지도자들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청녀들을 사랑하고, 멘토로서 그들을 이끌며, 반 회장단이 그 역할을 다하도록 존중하면서도 각 청소년이 자신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내도록 돕습니다.

코든 자매님이 오늘 저녁 청녀와 관련된 멋진 변화에 대해 더 말씀하시겠지만, 와드 청녀 회장이 이제 와드 감독에게 직접 보고하고 감독과 협의하게 된다는 점만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 임무는

감독단 보좌에게 위임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 청녀는 와드의 감리 열쇠를 지닌 사람이 직접 담당할 것입니다. 상호부조회 회장도 계속해서 감독에게 직접 보고할 것입니다.¹²

교회 본부와 스테이크에서는 청남 회장단 조직을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스테이크에서는 한 명의 고등평의원이 스테이크 청남 회장이 될 것이며¹³, 그는 청녀와 초등학교 담당으로 지명받은 고등평의원들과 함께 스테이크 아론 신권-청녀 위원회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이 형제들은 이 위원회에서 스테이크 청녀 회장단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스테이크 회장의 보좌 한 명이 이 위원회를 이끌 것이며, 이 위원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새로운 어린이와 청소년 프로그램의 활동 중 많은 부분이 스테이크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등평의원들이 와드 장로 정원회에 도움을 제공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 고등평의원들은 스테이크 회장단의 지시 아래, 감독과 아론 신권 정원회를 돕는 자원으로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고등평의원이 스테이크 주일학교 회장으로 봉사할

것이며, 그는 필요에 따라 따라 스테이크 아론 신권-청녀 위원회에서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¹⁴

이에 더욱 추가될 조직 개편안은 지도자들에게 보낼 공문에서 자세히 다루어질 것입니다. 변경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독단 청소년 위원회 모임은 와드 청소년 위원회 모임으로 대체됩니다.
- “상호향상회”라는 말은 더는 사용되지 않고 “청녀 활동”, “아론 신권 정원회 활동”, 또는 “청소년 활동”으로 대체되며, 가능하다면 매주 모임을 진행합니다.
- 청소년 활동을 위한 와드 예산은 청남 및 청녀 각 조직에 속한 청소년 수에 따라 두 조직에 공평하게 배분될 것입니다. 또한 초등회 활동을 위해서도 충분한 예산이 배분될 것입니다.
- 와드, 스테이크, 본부 전체에서 “보조 조직”이라는 명칭 대신 “조직”이란 명칭을 사용할 것입니다. 본부 상호부조회, 청녀, 청남, 초등회와 주일학교 조직을 이끄는 분들은 “본부 역원”으로 불릴 것입니다. 와드와 스테이크에서 각 조직을 이끄는 분들은 “와드 역원” 및 “스테이크 역원”이라고 불릴 것입니다.¹⁵

오늘 발표된 변경 사항은 각 지부, 와드, 지방부 및 스테이크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시행하되, 2020년 1월 1일 전에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변경 사항은 이전의 변화와 합쳐지고 통합되어, 우리의 교리에 부합하는 영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을 보여 줍니다. 그 교리는 우리가 성약의 길로 나아갈 때, 모든 남성, 여성, 청소년 및 어린이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도록 도움으로써, 그들을 축복하고 강화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영감받은 회장이자 선지자이신 러셀 엠 넬슨 회장의 지시 아래 이루어질 이 포괄적인



변화가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힘과 능력을 부여하고 그들을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간증합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구주를 믿는 더 큰 신앙을 발전시킬 것이고, 대적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며, 인생의 어려움에 맞설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See Russell M. Nelson, in “Latter-day Saint Prophet, Wife and Apostle Share Insights of Global Ministry,” Newsroom, Oct. 30, 2018, newsroom.ChurchofJesusChrist.org
2.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러셀 엠 넬슨 회장의 권고대로 교회의 올바른 명칭을 사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랑과 경건함을 담아 우리 구주를 기억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3.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은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주의 포도원에서 일하도록’(교리와 성약 138:56) 보내졌다. 이 구원 사업에는 회원 선교 사업과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 저활동 회원의 활동 촉진,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 복음 교육이 포함된다. 감독단은 와드 평의회와 다른 구성원들의 도움을 받아 와드에서 이 일을 지휘한다.”(“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 5.0, ChurchofJesusChrist.org)
4. 지도자로서 우리는 여러분의 선함과 제자로서의 삶에 헌신하는 모습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헌신적인 태도와 기쁜 마음으로 성약의 길을 걷는 모든 개인, 어머니, 아버지, 청소년 및 어린이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5. 2019년부터, 만 11세가 되는 집사들은 성찬 전달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만 11세인 청녀와 청남들은 제한 사용 성전 추천서를 받았다. 작년에 벨슨 회장은 모든 청남 청녀에게 회장 양편에서 흠어진 이스라엘을 모으는 청소년 대대의 일원이 되라고 권고했다.(“이스라엘 시온 군대”[청소년을 위한 전 세계 영적 모임, 2018년 6월 3일, HopeofIsrael.ChurchofJesusChrist.org] 그에 대한 응답은 놀라웠다. 이제 전임 선교사들은 더 어린 나이에 훌륭하게 봉사하고 있다. 2012년 10월 6일부터 청남들은 만 18세, 청녀들은 만 19세부터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다.
6. “또한 아론 신권을 관장하는 회장의 의무는 ...

- 제사를 감리하며 그들과 함께 평의회에 있으며, ... 그들의 직분의 의무를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이 회장은 감독이 되어야 하니, 이는 이것이 이 신권의 의무 중 하나가 됨이니라.”(교리와 성약 107:87~88)
7. 성인 지도자들은 또한 아론 신권 정원회 전문가로 부름을 받아 프로그램과 활동을 지원하고 정원회 모임에 참석하게 된다. 이로써 감독단은 정기적으로 청녀 반과 활동에, 이따금 초등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야영과 같은 특정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부름받을 수도 있고, 정원회 교문을 돕기 위해 더 장기적으로 부름을 받을 수도 있다. 모든 정원회 모임,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는 적어도 두 명의 성인 남성이 항상 참석할 것이다. 역할과 직책은 바뀌겠지만, 아론 신권 정원회에서 봉사하고 도움을 주는 성인 남성의 수가 줄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8. 러셀 엠 넬슨, 「증인, 아론 신권 정원회, 청녀 반, 「리아호나」, 2019년 11월호, 39쪽, 강조제 추가: 또한 에즈라 테프트 벤슨, 「교회의 청녀들에게」, 「성도의 빛」, 1987년 1월호, 106쪽 참조.
 9. 또한 우리는 감독들에게 청녀 독신 성인과 그들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도록 권고하고 있다.
 10. 제프리 알 홀런드, 연차 대회 지도자 모임, 2018년 4월; 또한 “효과적인 성역”, ministering.ChurchofJesusChrist.org 참조. 홀런드 장로는 아론 신권 정원회와 청녀에 대한 감리, 보통 판사로서의 역할, 교회의 재정 및 현재적 업무 관장 및 궁핍한 자들을 돌보는 일은 감독이 위임할 수 없는 책임이라고 가르쳤다. 장로 정원회와 상호부조회 회장단 및 다른 회원들은 선교 사업,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 와드에서 가르침의 질 향상, 교회 회원들을 돌보는 일과 성역에 대한 주된 책임을 담당할 수 있다.
 11. 보통 판사의 열쇠를 요구하는 상황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학대 문제는 교회 정책에 따라 감독이 다루어야 한다.
 12.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은 계속해서 스테이크 회장에게 직접 보고할 것이다.
 13. 스테이크 청남 회장의 보좌에는 스테이크 회원이나, 또는 필요한 경우 청녀 담당 고등평의회 및 초등회 담당 고등평의회를 부를 수 있다.
 14. 주일학교 회장은 매달 두 차례 일요일에 있는 청소년 교과 과정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있다.
 15. 본부와 스테이크의 상호부조회, 청녀, 청남, 주일 학교 및 초등회 회장단은 본부 역원 또는 스테이크 역원이다. 와드에서는 감독단이 청남을 이끌기 때문에 아론 신권 반 정원회 교문은 와드 역원이 아니다.



마크 엘 페이스
본부 주일학교 회장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의 대응 전략 및 사전 대책

주님께서서는 대적의 공격에 대비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대응 전략이자 사전 대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훌륭한 연차 대회에서 함께 만날 수 있어 기쁩니다. 주님의 선지자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그분의 생각과 뜻을 받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리셀 엠 넬슨 회장은 주님의 살아 계신 선지자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그분의 영감 어린 권고와 지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간증에 제 간증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살아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보살피 주십니다.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은 우리가 필멸의 삶을 사는 축복을 누리고, 다시 그분의 면전으로 돌아가게 해 줍니다.

저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주님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가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회개할 때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치르신 주님의

무한한 속죄 희생은 불멸과 영생의 축복을 가져다줍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비길 데 없는 선물로서 거룩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앞표지 안쪽)

전 세계의 후기 성도들은 주님의

성전에서 그분을 예배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교회는 그런 성전 중 하나를 캐나다 위니펙에 짓고 있습니다. 저는 올 8월에 아내와 함께 그 성전의 현장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성전은 아름답게 설계되었으며, 완공되면 분명히 웅장한 건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굳고 단단한 기초가 없다면 위니펙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곳에서도 웅장한 성전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위니펙의 토양은 얼고 녹기를 반복하며, 팽창하는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성전의 기초를 닦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콘크리트로 채운 강철 말뚝 70개를 박아서 성전의 기초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말뚝은 길이가 18m, 직경이 30~50cm 정도입니다. 이 말뚝들을 지표에서 약 15m 아래에 있는 기반암에 도달할 때까지 땅속으로 박아 넣었습니다. 이렇게 박은 70개의 말뚝은 아름다운 위니펙 성전의 견고한 기초가 되어 줄 것입니다.

후기 성도인 우리는 삶에서 단단하고 확실한 기초, 즉 필멸의 생을 통해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필요한 영적인 기초를 놓고자 합니다. 그 기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개심을 기반암으로 하여 세워집니다.

물문경에 나오는 힐라맨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의 아들들아,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신 우리 구속주의 반석 위에 너희가 너희의 기초를



세워야 함을 기억하고 기억하라. 그리하면 악마가 그의 강한 바람을, 참으로 회리바람 가운데 그의 화살들을 내보낼 때, ... 그것이 너희를 이겨 비참과 끝없는 재난의 심연으로 너희를 끌어내리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세워진 반석으로 인함이라, 이는 확실한 기초이니 만일 사람들이 그 위에 세우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기초니라.”(히라맨서 5:12)

감사하게도 우리는 선지자와 사도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권고를 따르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한 기초를 세우도록 도와줍니다.

리셀 엠 벨슨 회장님은 1년 전인 2018년 10월 연차 대회의 개회 말씀에서 다음과 같은 발표와 경고를 주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추구해 온 교회의 목적은 모든 회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믿는 신앙을 증진하도록 돕고,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지키도록 도우며, 그들의 가족을 강화하고 인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복잡한 세상에서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탄은 신앙과 우리와 가족을 향한 공격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남으려면 대응 전략과 사전 대책이 필요합니다.”(『개회 말씀』,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7쪽, 강조체 추가)

벨슨 회장님이 말씀하신 후, 십이사도 정원회의 쿠엔틴 엘 쿡 장로님께서 개인 및 가족용 자료인 『와서 나를 따르라』를 소개하셨습니다. 쿡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새로운 가정 학습 자료인 『와서 나를 따르라』(는) ... 회원들이 가정에서 복음 학습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이 자료는 교회의 모든 개인과 가족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와서 나를 따르라』—개인 및 가족(2019), vi쪽)
- “우리의 목적은 신앙과 영성을 크게 강화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더욱 깊이 개심할 수 있도록 교회와 가정에서 하는 경험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지속적인 개심』,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9~10쪽 참조)

올 1월부터 전 세계의 후기 성도들은 『와서 나를 따르라』를 참고하여 신약전서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의 주간 계획은 우리가 경전과 복음 교리, 선지자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공부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놀랍도록 훌륭한 자료입니다.

지난 아홉 달 동안 세계적으로 시행된 경전 학습의 결과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어디를 가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후기 성도들의 신앙과 헌신이 커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개인과 가족이 한 주 동안 구주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따로 정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가정에서는 경전을 공부하고, 교회에서는 우리의 통찰을 나누면서, 일요일 공과 시간의 복음 교육이 향상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단순히 경전을 읽는 것을 넘어서서 심오한 방법으로 경전을 공부하면서 가족의 기쁨이 더해지고 가족이 더 단합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와서 나를 따르라』와 관련된 많은 후기 성도들의 경험담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신앙에 찬 그들의 말은 제 가슴을 기쁨으로 채워 줍니다. 세계

각지의 여러 교회 회원들에게서 들은 이야기 중 몇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 어떤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들에게 구주에 대해 간증할 기회가 있어서 『와서 나를 따르라』를 좋아합니다.”
- 다음은 다른 가정의 한 어린이가 한 말입니다. “그 시간에는 부모님의 간증을 들을 수 있어요.”
- 어떤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방법에 관해 영감을 받습니다. 저희는 시간이 ‘없다고’ [여겼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희망과 기쁨, 평화와 성공으로 가득 찬 시간이 생겼어요.”
- 한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 읽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경전을 읽고 있어요. 전에 배웠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고 있지요. 주님은 우리가 사물을 다른 방식으로 보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같은 것을 배우는 것이 너무 좋아요. 전에는 경전을 ‘읽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경전을 ‘배우는’ 중이죠.”
- 어떤 자매님은 훌륭한 관점을 나눠 주셨습니다. “전에는 공과를 하고 경전이 보충해 주었는데, 지금은 경전이 먼저이고 공과가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죠.”

- 이렇게 말한 자매님도 있습니다. “공부를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믿음에 관해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가 더 쉬워진 것 같아요.”
-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요일에 자녀들이나 손주들과 전화 통화를 하는데, 『와서 나를 따르라』에서 배운 것을 함께 나눕니다.”
- 어떤 자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는 구주께서 세계 직접 성역을 베푸시는 것과 같아요. 이것은 하늘에서 온 영감으로 만들어졌어요.”
- 한 아버지의 의견입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를 사용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문기둥에 표시를 남겨 파괴자의 영향에서 가족을 보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만나 『와서

나를 따르라』와 관련된 여러분의 노력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고 있는지 듣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를 참고하여 경전을 공부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더욱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요일 교회 모임 시간을 한 시간 줄이고, 가정에서 한 시간 더 경전을 공부하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배우는 것은 일주일 내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자매님은 통찰력 있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목표는 교회를 한 시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6일 더 늘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지자 벨슨 회장님이 2018년 10월 연차 대회의 개회 말씀에서 주신 경고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 신앙과 우리와 가족을 향한 공격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남으려면 대응 전략과 사전 대책이 필요합니다.”(『개회 말씀』, 7쪽)

그런 다음 (대략 29시간 뒤인) 일요일 오후에 대회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복음 학습의 중심으로 만들고자 부지런히 노력하신다면 ...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미치는 대적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입니다.”(『모범적인 후기 성도가 되십시오』,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113쪽)

대적의 공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어떻게 이와 동시에 대적의 영향력이 실제로 줄어들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대적의 공격에 대비해 당신의 백성을 준비시키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며, 실제로 교회 전반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대응 전략이자 사전 대책입니다. 벨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 새로운 통합 교과 과정은 ... 가족들의 힘을 촉발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 가정을 신앙의 안식처로 변화시키기 위해 정성을 기울여 그것을 세심하게 따’라야 합니다.”(『모범적인 후기 성도가 되십시오』, 113쪽)

결론적으로 벨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영적 성장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개회 말씀』, 8쪽)

와서 나를 따르라 학습 자료를 통해, 주님은 “우리가 처한 위험한 시기에 대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쿠엔틴 엘 쿡, 『깊고 지속적인 개심』, 10쪽) 주님은 “확실한 기초[,] ... 만일 사람들이 그 위에 세우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기초”를 (히라만서 5:12) 우리가 세우도록 돕고 계십니다. 그 기초는 간증이며, 이 간증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개심이라는 기반암에 단단히 박힌 것입니다.

경전을 공부하려는 매일의 노력을 통해 우리가 강화되고 약속된 이 축복들을 받기에 합당함을 입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엘 토드 버지 장로
칠십인 정원회

변함없고 꺾이지 않는 신뢰

주님을 신뢰하려면 그분이 정하신 때를 신뢰해야 하며,
인생의 폭풍을 견뎌 내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제 아들 댄이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업을 하던 중에 매우 아프게 되어 시설이 열악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댄이 병이 난 후에 보낸 첫 편지를 읽으면서, 그가 낙담하고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응급실에 누워 있었지만, 평안을 느꼈어요. 제 인생에서 그토록 변함없고 꺾이지 않는 행복을 느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아내와 함께 그 편지를 읽으면서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변함없고 꺾이지**

않는 행복. 행복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은 없었지만 아들의 말은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우리는 아들이 설명한 행복이 단순히 즐거움이나 들뜬 기분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그분을 신뢰할 때 오는 평안과 기쁨임을 알았습니다.¹ 저희 부부에게도 삶이 힘들고 불확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평안을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셨던 인생의 시기가 있었습니다.²

리하이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만약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무지한 상태에 머물렀으리니, 비참을 알지 못하며 기쁨이 없[었으리라.] ...

그러나 보라, 만사는 모든 것을 아시는 이의 지혜 안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아담이 타락한 것은 사람이 존재하게 하려 함이요, 사람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니라.”³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위한 그분의 계획을 신뢰한다면, 고난과 슬픔은 우리가 기쁨을 누리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13세기의 어느 시인은 이 진리를 아름답게 읊었습니다. “슬픔은 기쁨을 위해 그대를 준비시킨다. 그것은 난폭하게 그대 집 안의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린다.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공간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것은 그대 가슴의 가지에서 빛바랜 잎들을 떨어낸다. 연둛빛 새잎이 그 자리에 돌아날 수 있도록. 그것은 썩은 뿌리를 뽑아낸다. 그 아래 숨겨진 새 뿌리들이 자라날 공간을 갖도록. 슬픔이 그대의 가슴에서 떨어내는 것마다, 훨씬 좋은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리라.”⁴

러셀 엠 넬슨 회장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구주께서 주시는 기쁨[은] ... ‘고난[이] 잠시뿐’이며[교리와 성약 121:7]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성별되는 것이라고 우리를 안심시키[는,] 변함없는 기쁨[입니다.]”⁵ 우리의 시련과 고난은 더 큰 기쁨을 누리도록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⁶

복음이 주는 좋은 소식은 슬픔과 시련이 없는 삶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적과 의미가 가득한 삶, 즉 우리의 슬픔과 고난이 “그리스도의 기쁨 안에 삼키우게” 될 수 있는 삶을 말합니다.⁷ 구주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⁸ 구주의 복음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은 소망과 결합한 슬픔은 영원한 기쁨을



약속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야렛인들의 여정은 필멸의 삶을 헤쳐 나가는 우리의 여정에 대한 비유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야렛의 형제와 그의 백성에게 “[너희] 앞에 행하여 세상의 모든 땅 위에 뛰어난 땅으로 들어가겠노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⁹ 주님은 그들에게 배를 만들라고 명하셨으며,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여 그분의 지시대로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이 진행됨에 따라, 야렛의 형제는 배에 관한 주님의 계획에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라고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게 명하신 일을 내가 실행하여 주께서 나를 지도하신 대로 거룻배들을 만들었나이다.

그러나 주여, 보소서, 그 안에 빛이 없나이다.”¹⁰

“주여 … 주께서 우리로 이 큰 물을 암흑 중에 건너도록 버려두시려 하나이까?”¹¹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렇게 자신의 영혼을 쏟아부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명에 따라 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도 의로운 기대치에 못 미칠 때, 왜 어둠 가운데서 이 삶을 살아야만 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은 적이 있습니까?¹²

야렛의 형제는 과연 자신들이 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 더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또한 우리가 죽게 되오리니, 이는 그 안에 있는 공기 외에는 그 안에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없[나이다].”¹³ 여러분은 인생의 시련 때문에 숨쉬기조차 힘들고,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는커녕 어떻게 하루를 견뎌 낼 수 있을지 염려한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야렛의 형제의 염려를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 그와 함께 일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다의 파도와 나아간 바람과 밀려올 넘치는 물에 대비하여 내가 너희를 예비시키지 아니하고는, 너희가 이 큰 깊음을 건널 수 없음이니라.”¹⁴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야렛 백성이

당신 없이는 약속의 땅에 도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방도가 없었으며, 주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망망대해를 건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경험과 가르침을 통해 야렛의 형제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주님에 대한 그의 신뢰가 더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의 기도가 질문과 염려에서 신앙과 신뢰의 표현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권능을 가지셨사옵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일이면 다 하실 수 있는 줄 내가 아오니, …

주여 보시옵소서, 주는 이를 행하실 수 있나이다. 주께서는 사람들의 이해력에는 작아 보이는 큰 권능을 능히 보이실 수 있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¹⁵

야렛 백성이 그때 “그들의 … 배에 올라, 스스로를 주 그들의 하나님께 맡기고, 바다로 출항하여 나아갔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¹⁶ 맡기다라는 말은 위임하다 또는 내어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야렛인들은 그들의 여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에 오를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의 권능과 선하심과 자비를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쳤기에 배에 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기꺼이 자신들과 더불어, 그들이 품었음지도 모를 어떤 의심이나 두려움도

함께 맡겼습니다.

최근에 제 손자 에이브가 오르락내리락 움직이는 회전목마 타기를 두려워한 일이 있었습니다. 에이브는 움직이지 않는 것을 타고 싶어 했습니다. 마침내 제 아내가 안전할 것이라고 에이브를 설득한 끝에 그 아이는 할머니의 말을 믿고 탔습니다. 에이브는 환하게 웃으며 “안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안전하네요.”라고 말했습니다. 야렛 백성도 아마 이와 같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처음에는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기쁨이 따릅니다.

야렛인들의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 위에 부서지는 산 같은 파도[로 인하여]” 여러 번 바다 깊이 문혔습니다.¹⁷ 그러나 경전에는 “바람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불기를 결코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¹⁸ 이해하기는 힘들겠지만, 특히 역풍이 강하고 바다가 격동하는 우리 인생의 이 시기에, 우리가 본향을 향해 나아가도록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바람을 불어 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록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들이 밀려 나아가매, 바다의 아무 괴물도 그들을 깨뜨릴 수 없었고, 그들을 상하게 할 고래도 없었으며, 물 위에서나 물 속에서나 그들에게는 끊임없이 빛이



있었더라.”¹⁹ 우리는 죽음, 육체적 정신적 질병, 그리고 온갖 종류의 시련과 고통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우리를 덮쳐 오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니고 그분을 신뢰하는 편을 선택함으로써, 우리 역시 물 위에서도 물 속에서나 지속적으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바람을 계속 불어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야렛 백성은 배가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찬송을 부르며, 온종일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였고, 밤이 되어도 그들은 주 찬양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²⁰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아직 약속의 땅에 도착하지 않았으나 약속된 축복을 믿으며 기뻐했습니다. **변함없이, 무엇에도 꺾이지 않고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²¹

야렛인들은 물 위에서 344일을 밀려 나아갔습니다.²² 그런 일이 상상이나 되십니까? 주님을 신뢰하려면 그분이 정하신 때를 신뢰해야 하며, 인생의 폭풍을 견뎌 내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²³

마침내 야렛 백성은 “약속된 땅의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약속된 땅의 해안에 그들 발을 디뎠을 때, 그들은 땅 위에 엎드려 주 앞에 스스로 겸손하게 되어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많은 친절하신 자비로 인하여 주 앞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²⁴

우리가 자신이 맺은 성약을 충실하게 지킨다면, 우리 역시 언젠가는 안전하게 본향에 도착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더 많은 기쁨을 위한 여지를 만들어 준 슬픔을 비롯해서 우리 삶에 수도 없이 베푸신 그분의 친절하신 자비로 인해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²⁵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성한 목적에 대해 변함없고 무엇에도 꺾이지 않는



신뢰를 보일 때, 그분은 우리를 돌아보시며 확신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평강을 말씀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바라게 하[실 것입니다].”²⁶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모든 기쁨의 근원이십니다.²⁷ 그분의 은혜는 충분하며, 그분은 구원하시기에 능하십니다.²⁸ 그분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요, 소망이십니다.²⁹ 그분은 우리가 멸망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³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엘마서 36:3; 57:27 참조.
2. 엘마서 58:11 참조.
3. 니파이후서 2:23~25.; 강조체 추가.
4. See *The Mathnawi of Jalalu'ddin Rumi* (1925 - 40), trans. Reynold A. Nicholson, vol. 5, 132.
5. 러셀 엠 넬슨, 「기쁨과 영적 생존」,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82쪽.
6. 닐 에이 맥스웰, 「희망의 쟁기질」,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73쪽 참조: “인류를 구속하시는 예수께서는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셨습니다. ...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간구에 자신의 영혼을 ‘버려’ 그 영혼을 비워 버린다면, 더 큰 기쁨을 느낄 공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7. 엘마서 31:38; see also Neal A. Maxwell, “Brim with Joy” (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address, Jan. 23, 1996), speeches.byu.edu: “우리가 헌납의 경지에 이르면, 우리의 시련은 그리스도의 기쁨 안에 삼키우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고통을 겪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련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범위 내에 놓일 것입니다. 꾸준히 기쁨을 추구하며 의로움의 척도를 높일 때마다, 우리는 기쁨을 한 방울씩 더하는 경험을 선지자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찰 때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엘마서 26:11) 그리고 마침내, 영혼의 잔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8. 요한복음 16:33.
9. 이더서 1:42.
10. 이더서 2:18~19.
11. 이더서 2:22.
12. 요한복음 8:12 참조.
13. 이더서 2:19; 마가복음 4:38 비교; 또한 마가복음 4:35 - 41 참조.
14. 이더서 2:25; 강조체 추가.
15. 이더서 3:4~5.
16. 이더서 6:4; 강조체 추가.
17. 이더서 6:6.
18. 이더서 6:8; 강조체 추가; 또한 니파이전서 18:8 참조.
19. 이더서 6:10.
20. 이더서 6:9; 또한 니파이전서 18:16 참조.
21. 니파이전서 5:5 비교, 리하이는 아직 광야에 있었지만, 약속된 축복에 기뻐했다.
22. 이더서 6:11 참조.
23. 히브리서 10:36; 엘마서 34:41; 교리와 성약 24:8; 64:32 참조.
24. 이더서 6:12.
25. 니파이전서 1:20; 8:8; 엘마서 33:16 참조.
26. 엘마서 58:11.
27. 러셀 엠 넬슨, 「기쁨과 영적 생존」, 82쪽 참조.
28. 니파이후서 31:19; 엘마서 34:18; 모로나이서 10:32 참조.
29.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앞표지 안쪽 참조.
30. 니파이전서 1:14 참조.



호르헤 엠 알바라도 장로
칠십인 정원회

신앙의 시련을 겪은 후에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의 성약의 길을 따를 때,
그분은 시련 속에서 우리를 강화하실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프랭크 텔리라는 교회 회원께서 우리 가족이 성전에서 인봉될 수 있도록 푸에르토리코에서 솔트레이크시티까지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하셨는데,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이 마리비드가 병이 난 것입니다. 불안해진 제 부모님은 어찌해야 할지 몰라 기도를 드렸고 그래도 가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주님의 속삭임을 충실히 따른다면, 그분께서 우리 가족을 돌봐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셨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삶에서 우리가 어떤 장애물에 직면하더라도 신앙으로 길을 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마련해 주실 것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맺은 성약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당신이 정한 시간에 당신이 약속한 모든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축복은 곧 오며, 어떤 축복은 나중에, 그리고 어떤 축복은 하늘에 이를 때까지 오지 않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축복은 반드시 옵니다.”¹

모로나이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신앙이란 비록 보이지 아니하나 바라는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보이지 않는다 하여 이를 논박하지 말지니, 너희의 신앙이 시련을 겪기까지는 너희가 증거를 받지 못함이니라.”²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을 잘 이겨 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교회 회장으로서 하신 첫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새로운 회장단으로서 우리는 목적을 염두에 두고 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도 모두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란 주님의 집에서 권능을 부여받고, 가족으로 인봉되며, 하나님의 가장 큰 은사인 영생을 받을 자격을 갖추도록 성전에서 맺은 성약에 충실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성전 의식과 여러분이 그곳에서 맺은 성약은 여러분의 삶과 결혼, 가족, 그리고 대적의 공격에 저항할 능력을 굳건히 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조상을 위한 봉사를 통해 더욱 많은 개인적인 계시를 받고 더 많은 화평을 누릴 것이며, 성약의 길에 남아 있으려는 여러분의 결심도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³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의 성약의 길을 따를 때, 그분은 시련 속에서 우리를 강화하실 것입니다.

당시, 가족이 함께 성전에 간 것은 힘든 일이었지만, 우리가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성전에 다다랐을 때 어머니는 기쁨과 신앙으로 충만하여 “괜찮을 거야,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족으로 인봉되었고, 제 누이는 병이 나았습니다. 이 일은 부모님께서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가운데 신앙의 시련을 겪은 후에야 일어났습니다.

부모님의 이 모범은 지금까지도 우리 삶에 영향을 줍니다. 부모님의 모범은 복음 교리의 이유를 가르쳐 주었고, 우리가 복음의 의미와 목적,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축복을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유를 이해하면 신앙으로 시련을 받아들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도록 권유하고 명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과, 충실한 자들에게 예비된 축복을 주시려는 당신의 소망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혼자 알아서 복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자녀들이 선택의지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줄 때, 우리의 모범은 그들이 의로운 선택을 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충실한 삶은 그들의 자녀들이 스스로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알도록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청남 청년 여러분, 오늘날 선지자께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신성한 진리를 구하고 스스로 복음을 이해하려고 애쓰십시오. 넬슨 회장님은 최근에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습니다. “어떤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 선지자 조셉의 모범을 따르십시오. 조용한 장소를 찾으십시오. ...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쏟으십시오.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십시오.”⁴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권고를 듣고 의로운 부모의 모범을 지켜봄으로써 사랑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여러분도 가족 안에서 강한 신앙의 연결 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성약의 길에서 벗어난 자녀를 둔 부모 여러분, 친절하게 되돌아가서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시작하십시오. 너무 늦은 때란 결코

없습니다.

의로운 삶을 사는 우리의 모범은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후기 성도들은 ‘교회’란 집회소에서 하는 무언가이며, 가정에서 하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여겨 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생각의 방식에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이제는 가정이 중심이 된 교회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의 지부, 와드, 스테이크 건물에서 하는 모든 일은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⁵

경전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⁶

또한 이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또 이제 말씀의 전파가 백성을 인도하여 의로운 일을 하게 하는 큰 경향이 있으므로—참으로 그것은 칼이나 그들에게 일어났던 다른 어떠한 것보다, 백성들의 생각에 더 강력한 효과가 있었더라—그리하여 엘마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였더라.”⁷

사탕을 너무 많이 먹는 아들 때문에 속상해하던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만 먹으라고 해도 아들은 만족할 때까지



계속 사탕을 먹었습니다. 완전히 낙담한 그녀는 아들이 존경하는 현자에게 아이를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사탕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그만 먹으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는 그 말을 듣고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2주 후에 다시 오렴.”

그녀는 왜 그가 아들에게 사탕을 그만 먹으라고 말하지 않았는지 의아해하며 아들과 함께 집에 갔습니다.





2주 후 그들은 다시 왔습니다. 그 현자는 소년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애야, 사랑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몸에 좋지 않아.”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2주 전에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냐고 물었습니다.

현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2주 전에는 저도 사랑을 너무 많이 먹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진실하게 살았기에 본인이 먼저 실천해야만 자신의 권고에 힘이 실릴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충실하게 성약의 길을 걷는 모습을 자녀들이 볼 때, 우리가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물론경의 선지자 야곱은 그러한 의로움의 모범입니다. 그의 아들 이노스는 부친의 가르침이 준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 이노스는 나의 부친을 알거니와 그는 의인이었나니—이는 그가 그의 언어로, 또한 주의 교양과 훈계로 나를 가르치셨음이라—이로 인해 내 하나님의 이름에 복이 있을지이다. …

… 내가 종종 들었던 바 나의 부친이 영생과 성도들의 기쁨에 관하여 하시던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느니라.”⁸

한편, 이천 용사의 어머니들은 복음에 따라 생활했고, 그 자녀들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장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는 가르침을 그들의 어머니에게서 받았던데라.

또 그들은 그들의 어머니의 말을 내게 들려주었나니, 우리의 어머니들이 이를 아셨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나이다 하였느니라.”⁹

이노스와 이천 용사들은 부모들의 신앙으로 강화되어 그들 자신의 신앙의 시련을 더 잘 이겨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으로 축복을 받았고 이 복음은 우리가 낙담하거나 근심할 때 우리를 들어올려 줍니다. 신앙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전진해 나간다면 주님이 보시기에 적절한 때에 우리의 노력이 열매를 맺을 것이기에 마음에 힘을 얻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지역 회장단과 더불어 최근에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과 함께 아이티 포르토프랭스 성전 헌납식에 참석했습니다. 함께 갔던 우리 아들 호르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해요, 아빠! 베드나 장로님이 헌납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저는 실내가 온기와 빛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그 기도를 통해 성전의 목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곳은 정말로 주님의 집이에요.”

물론경에서 니파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강화시켜 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 니파이는 몹시 어렸으나 …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자 심히 원하였던지라, 이리므로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보라, 그가 나를 찾아 오사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으므로 나는 나의 부친이 하신 말씀을 모두 믿었느니라. 그리하여 나는 나의 형들처럼 부친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느니라.”¹⁰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약의 길을 따라 가도록 도와주어, 영이 그들을 가르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평생 동안 그분을 따르려는 소망을 갖도록 도와줍시다.

저는 부모님의 모범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우리가 하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보여 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의 시련을 겪은 후에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희생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자 구원자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과 우리 하늘 아버지는 1820년 봄날 아침에 회복의 선지자인 어린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은 우리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제프리 알 홀랜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45쪽.
2. 이터서 12:6.
3. 러셀 엠 넬슨,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리아호나』, 2018년, 4월호, 6~7쪽.
4. 러셀 엠 넬슨, 「교회를 위한 계시와 우리 삶을 위한 계시」,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95쪽.
5. 러셀 엠 넬슨, 「개회 말씀」,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7쪽.
6. 잠언 22:6.
7. 엘마서 31:5.
8. 이노스서 1:1, 3.
9. 엘마서 56:47~48.
10. 니파이전서 2:16.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의 약속과 성약을 굳게 지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함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주님 및 다른 사람과 맺은 약속과 성약을 아주 진지하게
여기기를 권유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모임을 마치며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에 관해 오늘 들은 간증들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성스러운 시간을 함께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는, 우리가 그분께 한 약속을 더 굳게 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요즘 약속과 성약을 맺고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관해 많이 숙고해 보았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받고, 하겠다고 말한 것을 행하고, 자신이 맺은 성스러운 성약을 지키려 애쓰고, 고결함을 지니는 것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주님과 타인에게 한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성약의 길을 걷고,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과 성약을 맺고 지키는 것에 있어 가장 위대한 모범이 되십니다. 구주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겠다고 약속하시며 이 지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말과 행동으로 복음 원리를 가르치셨으며,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 각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속이거나, 유혹에 조금 굴복하거나, 우리의 결심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약에서 멀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범으로 인해 그리스도에게 나아오겠습니까? 여러분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까? 약속을 지키는 것은 습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가진 특성입니다.

필멸의 삶에서 우리의 나약함을 늘 아시는 주님께서는, “기뻐하며, 두려워 말라. 이는 나 주가 너희와 함께 하며, 너희 곁에 서 있을 것이니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¹ 저는 안심과 위안, 혹은 영적으로 더 큰 통찰이나 힘이 필요할 때 그분의 존재를 느꼈고, 크게 겸손해졌으며, 그분이 함께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죄를 버리고 내게로 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영혼은 나의 얼굴을 보며, 내가 존재함을 알게 될 것이요.”² 이것은 아마도 주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약속입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약속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차렷’ 자세로 서서 스카우트 선서를 외울 때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우리와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과의 교류는 지금 끝이 나더라도 스카우트 활동은 저와 이 교회에 항상 중요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스카우트 조직과 스카우트 지도자로 열심히 봉사했던 수많은 남성과 여성들에게, 그리고 사실 가장 감사드려야 할 어머니들과 또한 스카우트 활동에 참여했던 청년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이 모임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 엠 넬슨 회장님과 쿠엔틴 엘 쿡 장로님은 우리가 청소년에게 다시 집중하도록 하고 우리의 조직들을 계신된 진리에 부합하게 하는 변경 사항을 발표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일요일에는 넬슨 회장님과 엠 러셀 벨라드 회장님께서 교회 전체에서 시행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새로운 “어린이와 청소년” 프로그램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님이시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춘 전 세계적인 계획입니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하나가 되어 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저는 주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을 인도하셨음을 간증드립니다. 교회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복음 학습, 봉사 활동, 그리고 개인적인 발전을 통해 그들에게 초점을 둔 이런 통합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된다니 제 마음이 설렙니다.

내년인 2020년도의 청소년 주제는 “가서 행하라”는 니파이의 유명한 약속입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가 나의 부친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겠나이다. 이는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이 그가 명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길을 예비하실 것이 아니고는 아무 명령도 주지 아니하심을 내가 앎이니이다 하였더라.”³ 비록 오래전에 얘기된 약속이지만, 교회에 속한 우리는 오늘날에도 그 약속을 지킵니다.

“가서 행한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을 초월하고, 개인적인 계시를 받고 그대로 행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과 신앙을 갖고 의롭게 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성약을 맺고 지키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 곧 세상의 구주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키운다는 뜻입니다.

성약은 우리와 주님 쌍방간에 하는 약속입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그분처럼 생활하겠다고 성약합니다. 물론의 물에서 침례받았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 “서로의 짐을 져 가볍게 하고자 하며, ... 슬피하는 자들과 함께 ... 슬피하고, ...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이나, ...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다고 성약합니다.⁴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에게 성약을 행하는 것은 바로 이런 약속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취할 때, 그분의 이름을 받들겠다는 성약을 다시 새롭게 하고, 발전하겠다고 추가로 약속합니다. 크고 작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결심을 반영합니다. 그에 대한 보상으로 주님께서 “만일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하면 너희는 너희와 함께 할 나의 영을 갖게 되리라”는 성스러운 약속을 하십니다.⁵

제가 오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속과 성약을 굳게 지킵니까, 아니면 때로는 무심코 약속했다가 쉽게 어겨 버리는 무성의한 약속을 하십니까? 누군가에게 “너를 위해 기도할게”라고 말하고는 그렇게 하십니까? “도우러 갈게”라고 약속하고는 그렇게

하십니까? 빛을 갠을 의무가 있을 때, 빛을 갠으십니까? 새로운 부름을 받은 동료 회원을 돕겠다는 의미로 손을 들어 지지하고는 그렇게 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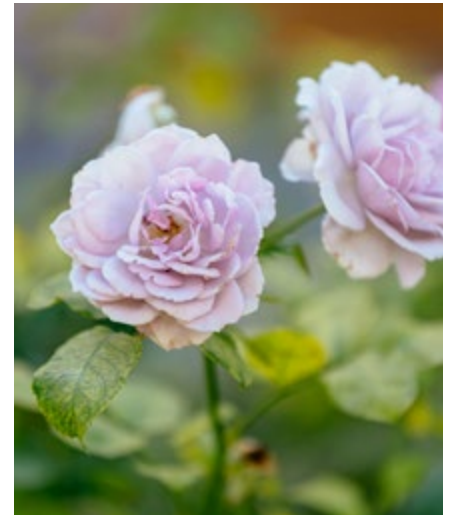
제 청소년 시절의 어느 날 저녁, 어머니께서는 당신 침대의 끄트머리에 저와 함께 앉으시고는 지혜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영성과 민감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알았다.” 어머니는 제 눈을 바라보셨고, 저는 그 말씀이 제 마음을 꿰뚫는 것을 느꼈습니다. “로니[어머니는 저를 로니라고 부르셨습니다], 항상 지혜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겠다고 지금 내게 약속해다오.” 저는 어머니께 진지하게 그렇게 약속했고, 인생 내내 잘 지켜 왔습니다.

이 결심은 제가 청소년 시절에, 또 성인이 되어 음주가 자연스러운 사업계의 분위기 속에 있을 때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겠다는 결정을 미리 했기에, 재고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는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내 말을 지킬 수밖에 없으나,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아무 약속도 받지 못하느니라.”⁶ 주님은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건강과 힘, 지혜와 지식, 그리고 천사의 보호에 관한 약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⁷

몇 년 전에, 저희 부부는 딸의 인봉을 위해 솔트레이크 성전에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린 인봉 의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다른 어린 딸과 성전 밖에 서서, 저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인봉받는 것의 중요성에 관해 얘기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오래전에 제게 가르치셨듯이, 저희도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성전에서 무사히 인봉을 받으면 좋겠고, 또 너의 영원한 동반자를 찾으면 성전에서 인봉을 받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면 좋겠구나.” 딸은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딸은 그 후로 우리의 권고와 자신의 약속이 자신을 보호해 주고 “정말 중요한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훗날 딸은 성전에서 남편에게 인봉되며 성스러운



성약을 맺었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성약을 맺고 정확하게 지킬 때 우리 삶에 구주의 권능이 더 강하게 임합니다. 성약을 통해 우리는 그분께 결속되며 하나님의 권능을 얻게 됩니다.”⁸

우리가 서로에게 한 약속을 지킬 때, 주님께 한 약속을 지킬 가능성도 커집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⁹

경전에 나오는 여러 약속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봅시다. 물몬경에서 암몬과 모사이야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¹⁰ 암몬은 레이맨인들에게 결박당한 뒤 레이맨인 왕 라모나이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왕에게 “내가 왕의 종이 되리이다”라고 약속했습니다.¹¹ 침입자들이 왕의 양 떼를 훔치려고 왔을 때, 암몬은 그들의 팔을 잘라 버렸습니다. 이에 매우 놀란 왕은 암몬이 전하는 복음 메시지를 귀담아듣고 개종했습니다.

구약에서 롯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고 시어머니에게 약속했습니다.¹² 그녀는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주막 주인에게 다친 사람을 보살피 준다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내가 돌아올 때에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¹³ 물몬경에서 조렘은

니파이 및 그 형제들과 광야로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조렘이 우리에게 맹세하매, 그에 관한 우리의 두려움은 그쳤느니라.”¹⁴

경전에서 “자녀들의 마음은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리라”고 설명된, “아버지들에게 한” 고대의 약속은 어떻습니까?¹⁵ 우리는 전세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했을 때 휘장 양편에서 이스라엘의 집합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래전에, 존 에이 윌소 장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성취하는 것은 아버지와 구주의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도 되었습니다.”¹⁶

넬슨 회장님은 세계를 여행하시는 동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합은

오늘날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집합을 말할 때, 우리는 단순히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는 휘장 양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 메시지를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¹⁷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유와 약속을 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권유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및 다른 사람과 맺은 약속과 성약을 아주 진지하게 여기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다음으로, 약속하건대, 만일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말을 확립하실 것이며, 여러분이 자신의 생활과 가족,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강화시키려고 지치지 않고 부지런히 노력할 때 여러분의 행동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실 것이며, 여러분은 “하늘에 영접되[어], 그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결코 끝이 없는 행복한 상태에 거하게” 될 것을 분명히 고대할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¹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하고 약속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68:6.
2. 교리와 성약 93:1.
3. 니파이전서 3:7.
4. 모사이야서 18:8~9.
5. 제3니파이 18:7.
6. 교리와 성약 82:10.
7. 교리와 성약 89:18~21 참조.
8. 러셀 엠 넬슨,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 삶에 끌어오십시오」,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41쪽.
9. 마태복음 25:40.
10. 엘마서 17:14.
11. 엘마서 17:25.
12. 롯기 1:16.
13. 누가복음 10:35.
14. 니파이전서 4:37.
15. 교리와 성약 2:2; 또한 교리와 성약 27:9; 128:17; 조셉 스미스—역사 1:39 참조.
16. John A. Widtsoe, “The Worth of Souls,” *Utah Genealogical and Historical Magazine*, Oct. 1934, 189.
17. 러셀 엠 넬슨, “이스라엘 시온 군대”(전 세계 청소년 영적 모임, 2018년 6월 3일), HopeofIsrael.ChurchofJesusChrist.org, 8.
18. 모사이야서 2:41.



여성 총회 | 2019년 10월 5일

레이나 아이 아부르토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개나 흐리나 함께하소서!

저는 “개나 흐리나” 주님께서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고난[이] 다 그리스도의 기쁨 안에 삼키”어질 수 있음을 간증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한 찬송가에는 “개나 흐리나 함께하소서!”라는 간청이 담겨 있습니다.¹ 저는 언젠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큰 폭풍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창문 밖을 내다보니 아래쪽으로 두꺼운 구름층이 깔려 있었고, 그 구름에 반사된 노을빛이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내 비행기는 두꺼운 구름층으로 하강했고, 우리는 갑자기 짙은 어둠에 둘러싸였습니다. 그 어둠은 방금까지 우리가 목격했던 강렬한 빛을 완전히 가려 버렸습니다.²

먹구름은 우리의 삶에서도 생길 수 있으며,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서 가리고, 심지어는 그 빛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지조차 의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먹구름에는 우울증, 불안증, 그리고 다른 형태의 정신적, 정서적인 고난 등이 있습니다. 그 구름은 우리가 자신과 다른 이들, 심지어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왜곡시킬 수 있으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세계의 곳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을 둔감하게 하는 의심이라는 구름도 마찬가지로 해로우며, 이 구름은 그런 어려움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른 여느 신체 부위와 같이 뇌 역시 질병, 정신적 외상, 그리고 화학적 불균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통받을 때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의학 및 정신 건강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모든 인간, 즉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모두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며, ... 각각 신성한 품성과 운명을 지니고

있[습니다].”³ 우리의 하늘 부모와 구주처럼, 우리는 육체를 지녔으며⁴ 감정을 느낍니다.⁵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종종 슬픔과 근심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슬픔과 불안은 인간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⁶ 그렇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슬픔에 잠겨 있고,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의 사랑 그리고 성신의 영향력을 느낄 수 없다면, 우울증과 불안증 또는 다른 정서적인 문제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한번은 제 딸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때 ... 늘 극심한 슬픔에 잠겨 있었던 때가 있었다. 나는 슬픔을 느끼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며 나약함의 표시라고 항상 생각해 왔다. 그래서 내 슬픔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 나 자신이 아무 쓸모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⁷

한 친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나는 절망감, 어둠, 외로움, 두려움, 그리고 내가 결함이 있거나 망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에 맞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어떻게든 나의 고통을 감추고, 내가 뛰어나고 강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려 했습니다.”⁸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 중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행복의 계획을 믿는 자들인 우리가 지금 당장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불필요한 짐을 짊어질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은 우리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완벽해지는 것은 현세에서의 삶 뿐만 아니라 그 이후까지도 이어지는 과정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⁹

반대로, 우리가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며 우리의 정서적인 어려움에 관해 솔직해진다면, 다른 이들도 우리와 함께 자신의 어려움을 나누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같이 함께할 때 희망이 있으며, 홀로 고통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¹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기꺼이 서로의 짐을 [지]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기꺼이 슬퍼하”기로 하나님과 성약을 맺었습니다.¹¹ 그것은 때때로 정서적 질환에 관해 알게 되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원을 찾으며,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대한 치유자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¹² 다른 이들이 겪고 있는 것에 공감하는 방법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들의 고통이 진짜임을 인정하는 것이 이해와

치유로 향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¹³

경우에 따라서는 우울증이나 불안증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지만, 그것을 알아내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¹⁴ 우리의 뇌는 스트레스나¹⁵ 과한 피로 때문에 약화될 수 있는데,¹⁶ 이런 경우에는 식단, 수면 및 운동의 조절로 상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숙련된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치료를 받거나 약물을 처방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 정서적 질환을 치료하지 않으면 고립이 심화되고, 오해가 생기거나, 관계가 어그러질 수 있으며, 자해, 심지어는 자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 아버지께서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셨기에 저는 그 일을 직접 겪어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저와 제 가족은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 슬픔에서 헤어 나오기까지는 여러 해가 걸렸으며, 저는 최근 들어서야 자살에 관해 적절한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자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¹⁷ 이제 저는 제 아버지의 죽음에 관해 자녀들과 터놓고 이야기하게

되었고, 구주께서는 휘장 양편에서 치유를 제공하실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¹⁸

슬프게도 극심한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어떤 가상의 틀에 자신이 들어맞지 않는다고 여겨 교회 회원들과 거리를 둡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속해 있음을 알고 느끼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낙담의 결과도, 죄의 결과도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¹⁹ 우울증은 “비밀로 가려져 있으면 흥하지만 공감을 얻으면 쇠합니다.”²⁰ 우리는 함께 힘을 합쳐 고립과 오명의 구름을 뚫고 나아가 수치라는 짐을 들어 올리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병든 자와 고난 당하는 자를 고치셨지만, 그분의 치유를 받기 위해 개개인인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이는 먼 길을 걸어 왔고, 어떤 이는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치유받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들려와야 했습니다.²¹ 우리는 모두 그분의 치유가 절실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구걸하는 자가 아”닙니까?²²

구주의 길을 따르며 연민을 키우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려는 경향을 줄이며, 다른 이들의 영성을 점검하려 하지 맙시다. 사랑으로 귀 기울여 듣는 것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과 친구들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 다시 한번 성신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빛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들의 숨통을 옥죄고 있는 두꺼운 구름을 견디거나 들어 올리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²³

만일 여러분이 계속해서 “어둠의 안개”에 둘러싸여 있다면,²⁴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경험을 했든, 그 일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영원한 진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²⁵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들은 이해하십니다. 그분들이 바로 옆에서 여러분에게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을 지지해 주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²⁶ “[그분들은 여러분의] 고난의 때에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²⁷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주님의 속죄가 주는 은혜를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겪는 고난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여러분을 정련할 수 있습니다.²⁸ “육체의 가시”로 인해,²⁹ 여러분은 다른 이들을 향해 더 큰 연민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신의 인도에 따라, “약한 자를 [돕고] … 처진 손을 일으켜 세우며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³⁰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지금 힘든 상황을 겪고 있거나 그런 상황을 겪는 누군가를 돕고 있다면, 기꺼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항상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도록 합시다.³¹ “작고 단순한 일”을³² 행하여 영적인 힘을 얻도록 합시다. 러셀 엠 넬슨 회장의 말씀대로 “더욱



정결하게 생활하고, 정확히 순종하며, 간절히 구하고, 매일 물몬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취하고,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어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하는 것보다 하늘의 문을 더 활짝 열 방법은 없습니다.”³³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육체를 따라 그의 심정을 자비로 충만하게 하사 … [우리의] 연약함을 좇아 어떻게 [우리를] 도울지 아”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³⁴ 그분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기 위해 오셨습니다.³⁵

저는 여러분께 “개나 흐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고난이] 다 그리스도의 기쁨 안에 삼키”어질 수 있으며,³⁶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후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은혜에 의한 것임”을³⁷ 간증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지상에 오실 때 “그 날개에 치료함을 가지고” 오시리라는 것을³⁸ 간증합니다. 결국 그분께서 “모든 눈물을 [우리의] 눈에서 닦아 주시[고] … 애통하는 …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³⁹ “그리스도에게 나아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된]” 모든 이들에게 “다시는 … 해가 지지 아니하며 … 여호와가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고 [우리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⁴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저녁 닥쳐와”, 『찬송가』 102장.
2. 우리가 구름 위쪽에 있을 때는 불과 몇 미터 아래에 있는 어둠을 상상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래의 어둠에 둘러싸여 있을 때는 단지 몇 미터 위에서 빛나는 햇빛을 상상하기가 어려웠다.
3.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145쪽.
4. “영과 몸이 곧 사람의 영혼이니라.”(교리와 성약 88:15) “우리 몸은 우리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을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 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러셀 엠 넬슨, 「영원을 위한 결정」,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107쪽)

5. 예를 들어, 이사야 65:19; 누가복음 7:13; 제3니파이 17:6~7; 모세서 7:28 참조. 우리의 감정을 깨닫고 소중히 여기는 방법을 배우면, 우리가 그 감정을 건설적으로 사용하여 더욱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6. See “Sadness and Depression,” kidshealth.org/en/kids/depression.html.
7. Hermana Elena Aburto blog, hermanaelenaaburto.blogspot.com/2015/08/. 그녀는 또한 이렇게 적었다. “그 시련은 내가 구원의 계획에 대해 진정으로 신앙을 행사할 기회를 주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겪고 있는 일을 정확히 이해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에서 서툰더라도 우리를 수치스럽게 여기시지 않는다. 그분은 우리가 더욱 나아지고 회개하도록 기꺼이 도우신다. 그분은 우리가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신다. 어느 누구도 혼자서 하지 않아도 된다.”(i willhealthee.blogspot.com/2018/09)
8. 개인 서한. 그녀는 또한 이렇게 적었다. “나의 여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주는 치유의 능력은 나에게 가장 지속적인 평화와 피난처의 근원이 되어 주었습니다. 힘들어하는 동안 혼자라고 느낄 때면, 그리스도께서 내가 겪고 있는 바로 이것을 나를 대신해 이미 겪으셨다는 사실을 상기하곤 했습니다. … 미래에 온전하게 부활한 나의 몸이 이런 필멸의 [고난]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나에게 많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9. 러셀 엠 넬슨, “언젠가는 실현될 온전함”,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86~88쪽; 제프리 알 홀런드, “그러므로 너희도 중국에는 온전하라”, 『리아호나』, 2017년 11월호, 40~42쪽; 제이 테브 코니쉬,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인가?”, 『내가 해외 왕국에 갈 수 있을까?』,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32~34쪽; Cecil O. Samuelson, “What Does It Mean to Be Perfect?” New Era, Jan. 2006, 10–13 참조.
10. 가정에서, 와드에서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자녀들,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과 이러한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11. 모사야서 18:8~9.
12. 러셀 엠 넬슨, “예수 그리스도—위대하신 치유자”,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85~88쪽; 캐롤 엠 스티븐스, “위대한 치유자”,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9~12쪽 참조.
13.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징후와 증상을 인식하는 방법을 알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유해하거나 잘못된 사고방식을 감지하고 그것을 더 바르고 유익한 사고방식으로 바꾸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14. 우울증은 자녀의 출생이나 새로운 직장도 같이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겪을 때도 생길 수 있으며, 개인의 삶이 순조로울 때도 일어날 수 있다.
15. 「스트레스를 이해한다」, 『선교사 생활에 적용함』(2013), 5~10쪽 참조.
16. 제프리 알 홀런드, “개진 그릇과 같으니”,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40쪽 참조.
17. 데일 지 랜던, “자살에 관한 이해” (동영상), ChurchofJesusChrist.org; “자살에 관한 대화” (동영상), ChurchofJesusChrist.org; 켈리치 시모카와, “자살에 관한 이해: 자살을 암시하는 징후와 그 예방책”, 『리아호나』, 2016년 10월호, 18~23쪽 참조.
18. “치유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치유의 방법을 주셨다는 변치 않는



리사 엘 하크니스 자매
본부 초등회 회장단 제1보좌

그분의 이름을 명예롭게 함

성약을 통해 정체성을 알고 소속감을 얻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사실을 믿는 어린이와 같은 신앙을 요구합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치유를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치유에 있어서 마법과 같은 해결책이나 간단한 약은 없으며, 완전한 치유로 향하는 쉬운 길도 없습니다.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무한한 치유의 능력을 믿는 깊은 신앙을 요구합니다.”(리처드 지 스킵트, 『학대의 파괴적인 결과를 치유함』,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42쪽)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고치려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자신이나 다른 이의 문제를 혼자서 해결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모든 것을 혼자서 하지 않아도 된다. 살아오면서 힘든 시간을 겪었을 때, 나는 몇 번이나 치료 전문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19. 요한복음 9:1~7 참조.
20. Jane Clayson Johnson *Silent Souls Weeping* (2018), 197.
21. 마태복음 9:2~7, 20~22; 14:35~36; 마가복음 1:40~42; 2:3~5; 제3니파이 17:6~7 참조.
22. 모사이야서 4:19; 또한 제프리 알 홀런드, 『우리는 모두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40~42쪽 참조.
23. 로마서 2:19 참조; 13:12; see also Jeffrey R. Holland. “Come unto Me” (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Mar. 2, 1997), speeches.byu.edu.
24. 니파이전서 8:23; 또한 니파이전서 12:4, 17; 제3니파이 8:22 참조.
25. 시편 82:6; 로마서 8:16~18; 교리와 성약 24:1; 76:24; 모세서 1:1~39 참조.
26. 『선교사 생활에 적응함』(소책자, 2013), 20쪽 참조; 또한 미가 7:8; 마태복음 4:16; 누가복음 1:78~79; 요한복음 8:12 참조.
27. 야곱서 3:1; 또한 에베소서 5:8; 골로새서 1:10~14; 모사이야서 24:13~14; 엘마서 38:5 참조. 축복사의 축복문을 읽거나 신권 축복을 요청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시고자 하는지를 듣고 기억할 수 있다.
28. 고린도후서 4:16~18; 교리와 성약 121:7~8, 33; 122:5~9 참조.
29. 고린도후서 12:7.
30. 교리와 성약 81:5; 또한 이사야 35:3 참조.
31. 모로나이서 4:3; 교리와 성약 20:77 참조.
32. 엘마서 37:6.
33. 러셀 엠 넬슨, 『교회를 위한 계시와 우리 삶을 위한 계시』,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95쪽.
34. 엘마서 7:12; 또한 이사야 53:4; 니파이후서 9:21; 모사이야서 14:4 참조.
35. 이사야 61:1~3; 또한 누가복음 4:18 참조.
36. 엘마서 31:38; 또한 엘마서 32:43; 33:23 참조.
37. 니파이후서 25:23.
38. 말라기 4:2; 제3니파이 25:2.
39. 요한계시록 21:4.
40. 모로나이서 10:32.
41. 이사야 60:20.

설레는 마음으로 아이의 탄생을 기다리는 부모는 새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지을 책임을 지니게 됩니다.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의 이름은 수 세대 동안 내려오는 조상의 이름을 따라 지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태어난 해나 지역에서 인기가 있었던 이름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 힐라맨과 그의 아내는 두 갓난 아들의 이름을 의미 있는 가족 이름인 니파이와 리하이라고 지었습니다. 힐라맨은 후에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 우리 시조의 이름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너희의

이름을 기억할 때 그들을 기억하고], … 어떻게 그 행한 바가 선하였다 일컬음이 되고 또 기록되었는가를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아들들아, 나는 너희가 선한 것을 행하기를 원하노라.”¹

니파이와 리하이는 자신들의 이름을 통해 조상의 선행을 기억할 수 있었고, 그들 역시 선을 행하도록 격려받았습니다.

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지, 8살이든지 108살이든지 간에, 우리는 모두 이러한 같은 목적들을 지닌 특별한 이름을 공유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²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겠다는 우리의 기꺼운 마음을 ... 제일 먼저 침례 의식을 통해 확인[했습니다].”³ 우리는 이 성약을 통해 항상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성약을 기꺼이 지키려는 마음은 우리가 안식일마다 성찬을 취하고 다시 한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축복의 기쁨을 느낄 때 새로워집니다.⁴

우리가 태어날 때 받은 이름은 우리의 개별적인 정체성을 나타내며, 우리가 지상의 가족에게 속하도록 해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침례를 받아 “거듭”났을 때,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이해력이 확장되었습니다. “이에 이제 너희가 맺은 성약으로 인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자녀라 ...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는 보라, ... 그가 영적으로 너희를 낳으셨음이라. 이는 너희 말에 너희 마음이 주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통하여 변화되었다 함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에게서 났[느니라].”⁵

따라서, 성약을 통해 정체성을 알고 소속감을 얻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사람의 자녀들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는 다른 아무 이름이나 다른 어떠한 길이나 방법도 주어지지 아니하[며], 다만 전능하신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만 구원이 올 수 있[습니다].”⁶

예수님의 이름은 그분이 탄생하시기 오래전에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한 천사는 베냐민 왕에게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의 모친은 마리아라 칭하여지리라.”⁷ 그분의 “구속하시는 사랑”의 사업은⁸ 아담과 이브의 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지상에 복음이 있었던 어느 때에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를 알게 해주었습니다.⁹

지난해에,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자매들에게 “흠어진 이스라엘을 모으는 일을 도움으로써 다가올 미래를 설계”하라고 “선지자로서 간청”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물문경을 읽으면서 “구주를 이야기하거나 그분에 대해 언급하는 모든 구절에 표시”하도록 권유하셨고, 또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 보”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여러분과 그들 모두가 구주께 더 가까워[지고] ... 변화가, 심지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라는 그의 약속의 열매를 인식하기 시작하셨을 것입니다.¹⁰

항상 구주를 기억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은 진리와 의를 위해 나아가갈 힘을 줍니다. 우리가 많은 군중 속에 있던 우리의 행동을 아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혼자만의 공간에 있던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우리가 받드는 그분의 이름을 기억할 때, 자기 비하성

비교와 오만한 판단은 우리 안에 자리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이 구주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성약을 기억하여 행할 때, 우리는 세상적인 걱정을 잠재우고, 자기 회의를 용기로 바꾸며, 시련의 시기에 희망을 얻습니다.

그리고 성약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중에 실족하거나 넘어진다면, 우리는 오직 그분의 이름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친절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는 그에게 모든 권능, 모든 지혜와 모든 명철이 있음이요, 그는 모든 것을 깨달으심이며, 그는 회개하고 그의 이름을 믿을 자들에게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다.”¹¹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지니고 “더 잘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 노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보다 더 달콤한 말은 분명 없습니다.¹²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조용하고 편안하게 지내는 시기는 이제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저 일요일에 교회에



얼굴을 비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일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제 제자란 없습니다.”¹³

우리가 기꺼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든다는 것은 형식적인 선언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수동적인 약속이나 문화적 장치가 아닙니다. 통과의례도 아니며, 차고 다니는 이름표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선반 위에 올려두거나 벽에 거는 글귀가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은 우리가 “웃[으로] 입”고,**¹⁴ 마음에 기록하며, **“[우리의] 얼굴에 새기”는 것입니다.**¹⁵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때 구주의 속죄 희생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항상 기억하십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고 그 태에서 낳 아들을 가없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참으로 그들은 잊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집이여,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보라,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느니라].”¹⁶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언젠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 여러분이 [그러한] 이름을 갖고 ... 행한 일을 보고할 특권과

의무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¹⁷

신중하게 지은 니파이와 리하이의 이름처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는 사실이 이야기되고 기록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꺼이 받들기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예롭게 합니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친절과 구속하시는 권능에 대한 “종[이자] 증인”입니까?**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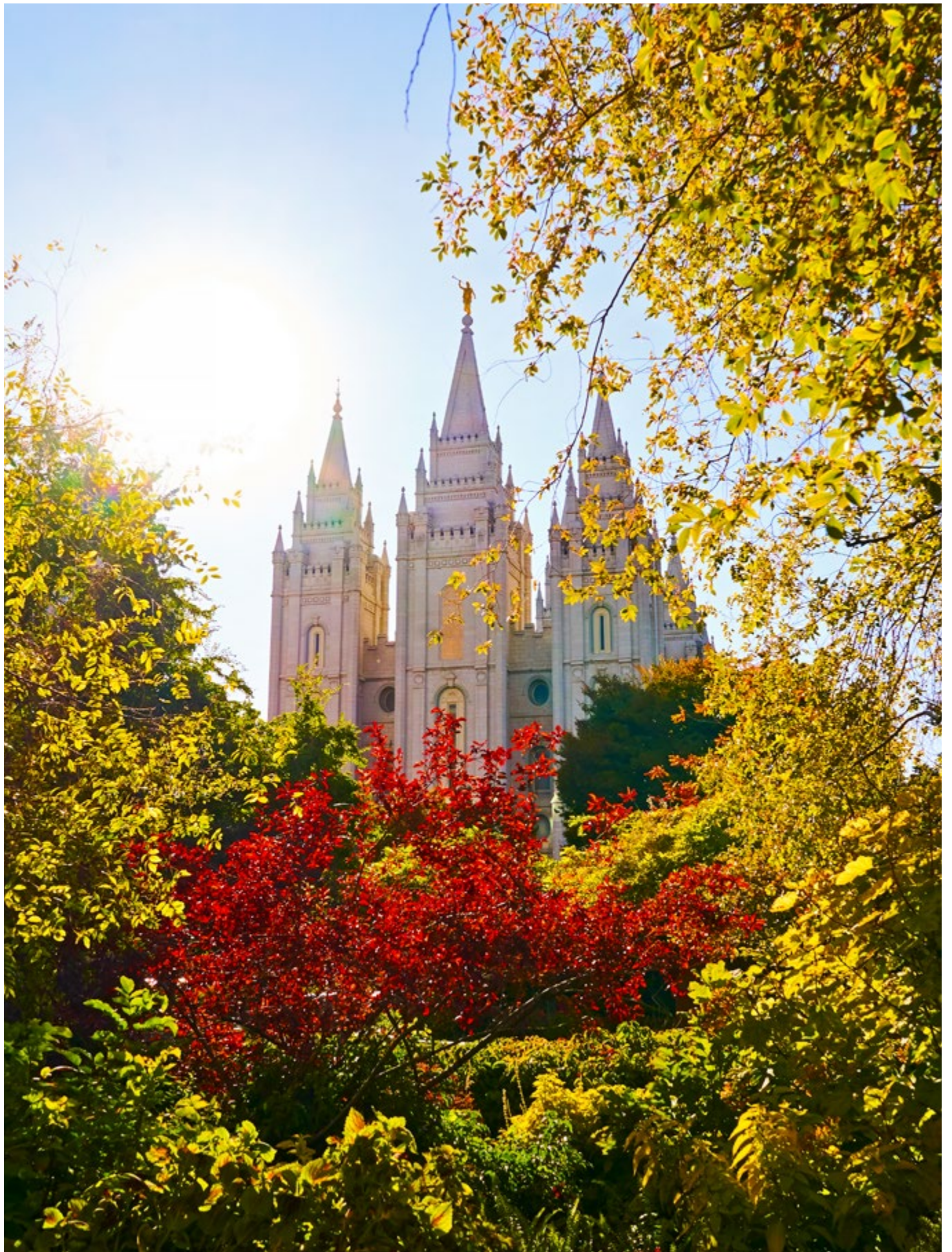
얼마 전에, 저는 물론경 오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니파이후서의 마지막 장에서, 저는 니파이가 하는 어떤 말을 그동안 읽어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록 전반에 걸쳐서, 니파이는 “구속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양”, 그리고 “메시아”에 관해 가르치고 간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록을 마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명백함을 자랑하며, 나는 진리를 자랑하며, 나는 **나의 예수를** 자랑하노니, 이는 그가 나의 영혼을 지옥에서 구속하셨음이라.”¹⁹ 이 구절을 듣자 저는 기쁜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그 구절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저는 마치 제 이름을 듣고 반응하듯, 그 구절을 알아보고 그것에 반응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기꺼이 내 이름을 받들고자 하는 이 백성에게 복이 있도다. 이는 내 이름으로 그들이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니, 그들은 나의 것이니라.”²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가 사랑과 헌신과 선행으로 그분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며 “기쁘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 받들”기를 바랍니다.²¹ 저는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참으로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이심을 간증합니다.²² 그분의 거룩한 자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힐라맨서 5:6~7.
2. 갈라디아서 3:27~28.
3.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성약의 권능,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20쪽.
4. 로마서 6:4.
5. 모사이아서 5:7.
6. 모사이아서 3:17.
7. 모사이아서 3:8.
8. 엘마서 26:13.
9. 니파이후서 25:26.
10. 러셀 엠 넬슨, 「이스라엘의 집합에는 자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69~70쪽.
11. 엘마서 26:35.
12. 러셀 엠 넬슨, 「우리는 더 잘할 수 있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리아호나, 2019년 5월호, 68쪽.
13. Russell M. Nelson, “Disciples of Jesus Christ—Defenders of Marriage” (Brigham Young University commencement, Aug. 14, 2014), 3, speeches.byu.edu.
14. 갈라디아서 3:27.
15. 엘마서 5:19.
16. 니파이전서 21:15~16.
17. George Albert Smith, “Your Good Name,” *Improvement Era*, Mar. 1947, 139.
18. 사도행전 26:16.
19. 니파이후서 33:6; 강조체 추가.
20. 모사이아서 26:18.
21. 엘마서 46:15.
22. 니파이전서 11:21.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총관리 직원 및 교회 본부 직원

제일회장단



달린 에이치 옥스
제1보좌



러셀 엠 넬슨
회장



헨리 비 아이어링
제2보좌

십이사도 정원회



엠 엠 테넬 발라드



제프리 알 홀랜드



디터 에프 우흐토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앤더슨



로널드 에이 래스밴드



게리 이 스티븐슨



데이비드 지 렌랜드



게리트 더블유 공



올리세스 소아레스

철심인 회장단



엠 엠 테넬 클레이튼



패트릭 키아론



칼 비 쿡



로버트 시 게이



토머스 엠 벤슨









브루스 에이 테이트



카를로스 에이 고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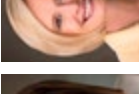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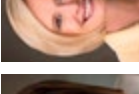


최신인 총관리 직원(알파벳 순)

 마르쿠스 에이 아우어타러	 루돌프 바이 알타우더	 호세 영 알콘소	 조르헤 영 랑퍼드	 이안 에스 아딘	 스티븐 영 팡가터	 더러언 마크 배렛	 데이비드 에스 베스	 랜들 케이 베네트	 한스 티 보뭉	 세인 영 보웬	 마크 에이 브래그	 웬들 러드 버치	 매튜 영 카네티어	 크라이그 시 크리스웰슨	 로버트 디 밀러
 로버트 나이 코르든	 제이 데븐 코너쉬	 호지 영 알콘소	 리처드 영 알콘소	 마시모 데 파오	 벤자민 데 호오스	 에드윈드 듀브	 데이비드 에스 브레넌	 티모지 제이 디닌	 데이비드 에스 브레넌	 데이비드 에스 브레넌	 렌다 디 핑크	 앤드류 조지 가버렛	 케빈 제프리 고먼	 리처드 제이 하인즈	 크리스토퍼 롤 크롤
 로버트 에프 고프	 브룩 피 헤일즈	 케빈 에스 해럴턴	 앨런 디 헤이니	 미치아스 헬트	 데이비드 피 호퍼	 폴 브이 존슨	 레이 에스 캐저	 로버트 플라멩가튼	 제임스 비 켄터노	 레이먼드 제이 메인즈	 로버트 엠 케일리	 마크 에이 파르네스	 제임스 비 미첼	 찰스 엘 레스밴드 라이언	 케빈 엠 케일리
 피터 에프 하크	 휴고 도노후아	 마크 에스 나쉬	 케이 브렛 나트레스	 미치아스 헬트	 브랜트 에이치 존스	 마이클 존 우데	 에스 마크 파머	 아담슨 드 비볼라	 케빈 데이브유 라이언	 조지 핑크리 이세	 로버트 엠 케일리	 제임스 비 미첼	 제임스 비 미첼	 찰스 엘 레스밴드 라이언	 제임스 비 미첼
 케이 비 사빈	 에벤 에이 슈만스키	 조셉 더블유 시타	 벤 피 스티팜	 미치아스 헬트	 브라이언 제이 켄터	 마이클 존 우데	 에스 마크 파머	 아담슨 드 비볼라	 케빈 데이브유 라이언	 조지 핑크리 이세	 로버트 엠 케일리	 제임스 비 미첼	 제임스 비 미첼	 찰스 엘 레스밴드 라이언	 제임스 비 미첼
 로버트 에프 고프	 휴고 도노후아	 마크 에스 나쉬	 케이 브렛 나트레스	 미치아스 헬트	 브랜트 에이치 존스	 마이클 존 우데	 에스 마크 파머	 아담슨 드 비볼라	 케빈 데이브유 라이언	 조지 핑크리 이세	 로버트 엠 케일리	 제임스 비 미첼	 제임스 비 미첼	 찰스 엘 레스밴드 라이언	 제임스 비 미첼

감리 감독단

 단 엠 데이머스 세모프	 제임스 듀세 칼리 감독	 더러언 윌 크라이스웰 세모프
--	---	---

교회 본부 직원

 로버트 에프 고프	 마크 에스 나쉬	 제이 데븐 코너쉬	 조셉 더블유 시타	 벤 피 스티팜	 미치아스 헬트	 브랜트 에이치 존스	 마이클 존 우데	 에스 마크 파머	 아담슨 드 비볼라	 케빈 데이브유 라이언	 조지 핑크리 이세	 로버트 엠 케일리	 제임스 비 미첼	 찰스 엘 레스밴드 라이언	 제임스 비 미첼
 에벤 에이 슈만스키	 조셉 더블유 시타	 벤 피 스티팜	 미치아스 헬트	 브랜트 에이치 존스	 마이클 존 우데	 에스 마크 파머	 아담슨 드 비볼라	 케빈 데이브유 라이언	 조지 핑크리 이세	 로버트 엠 케일리	 제임스 비 미첼	 제임스 비 미첼	 찰스 엘 레스밴드 라이언	 제임스 비 미첼	 로버트 에프 고프





보니 에이치 코든 자매
본부 청년 회장

사랑하는 딸들

우리가 청년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얻도록 도와려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우리는 쏟아져 나오는 계시를 목격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시는 영혼을 넓혀 주고 활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재능과 전통, 그리고 개인과 가족의 상황이 서로 다른 청년 몇 명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각각의 청년은 여러분 모두와 마찬가지로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먼저 소개할 청년은 벨라입니다. 아이슬란드에 있는 자신의 지부에서 유일한 청년로서, 벨라는 굳건합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헌신적인 청년 조지핀입니다. 조지핀은 매일 물몬경을 공부하겠다고 새로이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이 단순하고 충실한 행동을 통해 오는 권능과 축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랑하는 친구를 소개합니다. 애슈턴은 6년간 암과의 사투 끝에 세상을 떠난 특별한 청년입니다. 그녀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강한 간증은 여전히 제 마음에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은 모두 훌륭한 청년입니다. 여러분은 각자 자신만의 은사와 경험을 가진 독특한 존재이지만, 한 가지 매우 중요하고 영원한 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자 그대로 하늘 부모님의 영의 딸들입니다. 그 무엇도 여러분을 하늘 부모님과 구주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¹ 여러분이 어린아이 걸음마만큼이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면, 그분의 충실한 제자인 여러분의 영혼에 지속적인 평안함이 깃드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이신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저에게 “[여러분의] 신성한 개인적인 잠재력을 발전”시키고² 의로운 영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영감 어린 변경 사항을 발표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는 네 가지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주제

먼저, 우리가 청년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얻고³ 하나님의 딸이라는 신성한 정체성을 확실히 알도록 도와려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저는 개정된 청년 주제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제가 다음의 새로운 주제를 말씀드리는 동안 이 내용이 참되다는 성신의 증거를 느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딸이며,⁴ 신성한 성품과 영원한 운명을 지니고 있다.⁵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⁶ 그분과 같이 되고자 힘써 노력한다.⁷ 나는 개인적인 계시를 구하고 그에 따라 행하며,⁸ 그분의 거룩한 이름으로 다른 이들에게 성역을 베푼다.⁹

나는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이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¹⁰

나는 승영에 이르기 위해 합당한 사람이 되고자 힘쓰면서,¹¹ 회개의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¹² 매일 발전하려 노력한다.¹³ 신앙으로,¹⁴ 나는 나의 가정과 가족을 강화하고,¹⁵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키며,¹⁶ 거룩한 성전의 의식과¹⁷ 축복을 받을 것이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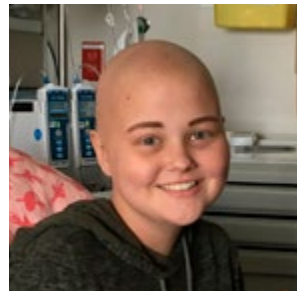
“우리”라는 단어가 “나”로 바뀌었음에 주목하십시오. 이 진리들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적용됩니다. 여러분은 하늘 부모님의 사랑하는 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약의 제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공부하고 숙고하도록 권유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참되다는 간증을 얻게 될



아이슬란드 출신의 벨라



아프리카 출신의 조지핀



암과 싸웠던 애슈턴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이해한다면 여러분이 어려움에 맞서는 방법도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과 목적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의 뜻을 구주의 뜻에 맞추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여러분은 평안과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청녀 반

두 번째 변경 사항은 청녀 반에 관한 것입니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풍파가 몰아칠 때 사람들은 종종 그들이 소속된 안식처에서 보호받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¹⁹ 청녀 반은 삶의 풍파를 피할 수 있는 안식처이자 사랑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안전한 곳이어야 합니다. 청녀 내에서 단합을 강화하고 우정을 돈독히 하고 소속감을 키우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청녀 반 구성을 조정하려 합니다.

100년이 넘도록 청녀는 세 개의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현 시간부로, 저희는 청녀 지도자와 감독님이 각 청녀의 필요 사항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려하여 와드의 특정한 상황에 따라 청녀들을 조직하시도록 권고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조직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 와드에 청녀들이 별로 없으면, 청녀 반을 하나로 만들어 모든 청녀가 함께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 어쩌면 12세의 청녀들은 많고 그 위의 연령대의 청녀들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청녀들을 두 개의 반, 즉 12세 반과 13~18세 반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 혹은 60명의 청녀가 참석하는 큰 규모의 와드인 경우, 태어난 연도별로 나이에 따라 반을 하나씩 만들어, 모두 여섯 개의 반을 둘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반이 어떻게 구성되든 간에,

청녀 여러분은 단합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에게 빛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고 싶은 사랑과 관심을 도리어 베푸는 사람이 되십시오.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끊임없이 손을 내밀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친절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더 좋은 감정을 갖게 될 것이며, 그들이 지닌 선량함을 알아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청녀 반 이름

세 번째로, 반이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모든 반의 명칭은 하나로 통합되어 “청녀”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²⁰ “꿀벌반”, “장미반”, “월계반”이라는 명칭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 회장단을 강화함

마지막 변경 사항으로, 반 회장단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녀 반이 어떤 식으로 조직되든지에 관계없이, 각 반에는 반 회장단이 있어야 합니다.²¹ 그것은 신성한 계획에 따른 것으로, 청녀들은 청소년기에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부름을 받아야 합니다.

반 회장단의 역할과 목적은 강화되었고 더욱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구원 사업은 그 중대한 책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성역, 선교 사업, 활동 촉진,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 분야에서 그렇습니다.²² 이것이 바로 주님의 청소년 대대의 일원으로서 모든 청녀가 행할 영광스러운 사업인 이스라엘을 모으는 방식입니다.²³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님은 교회의 모든 조직에서 그분의 백성을 이끌도록 회장단을 부르십니다. 청녀 여러분, 반 회장단의 일원이 됨으로써 여러분은 처음으로 이 영감받은 지도력 패erton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게 될 수도



클로이

있습니다. 성인 지도자 여러분, 반 회장단 부름을 주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그런 후 그들이 그 부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인도하면서 그들과 함께 청년 반을 이끌어 나가십시오.²⁴ 반 회장단이 어떤 지도력 경험이 있든지에 상관없이 그들의 현재 위치를 출발선으로 삼으시고, 지도자로서 그들에게 축복이 될 기술을 연마하고 자신감을 키우도록 그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긴밀히 협력하되, 주도권을 갖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들을 인도할 때 영이 여러분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부모와 지도자가 조언자로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클로이라는 청년이 반 회장으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현명한 신권 지도자는 클로이가 회장단을 구성할 청년들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클로이는 기도를 드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구를 보좌로 추천할지 영감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회장단 서기에 관해 숙고하고 기도하는 동안, 영은 놀랍게도 교회 모임이나 활동에 거의 참석하지 않는 한 청년을 클로이의 마음에 반복해서 떠올려 주었습니다.

그 속삭임에 대해 확신이 다소 부족했던 클로이는 어머니와 이야기를 했고, 어머니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것도 우리가 계시를 받는 방법의 하나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신감을 되찾은 클로이는 그 청년을 추천할 수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감독님은 그 청년에게 부름을 주었고, 그녀는 그 부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청년은 서기로 성별을 받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어딘가에 속해 있다고 느끼거나 제가 필요한 존재라고 여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어느 곳에도 끼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런데 이 부름을 받고 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속할 곳과 저를 위한 목적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머니와 함께 그 자리를 떠나던 클로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시가 진짜 있네요! 계시는



정말로 효과가 있어요!”

반 회장단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들을 이끌도록 그분으로부터 부름과 신임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아시며, ... 그분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²⁵ 여러분은 신권 권세를 가진 이로부터 성별되었으며, 이는 바로 여러분이 부름과 관련된 의무를 수행할 때 신권 권세를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성신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따라 행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홀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신 있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반 회장 여러분, 쿠엔틴 엘 쿡 장로님이 오늘 발표하신 새로운 와드 청소년 위원회에서 우리는 여러분의 지혜와 의견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할 해결책을 찾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²⁶

반 조직과 역원에 관한 이런 변경 사항은 와드 및 지부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1일까지는 시행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변경 사항이 주님께 영감받은 지시임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변경 사항을 부지런히 이행할 때, 우리의 목적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다른 사람들이 그분에게 나아오도록 돕겠다는 결심을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분의 교회임을 간증합니다. 바로 그분께서 우리가 그분의 성스러운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에 큰 감사를 느낍니다.

여러분이 성약의 길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이 변경 사항을 인도해 준 그 영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로마서 8:35~39 참조.
2. 러셀 엠 넬슨, 「증인, 아론 신권 정의회, 청년 반, 「리아호나」, 2019년 11월호, 39쪽.
3. 잠언 3:5~7; 야곱서 7:5 참조.
4. 로마서 8:16~17; 교리와 성약 76:24;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145쪽 참조.
5. 베드로후서 1:3~4; 엘마서 37:44; 교리와 성약 78:18;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참조.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6. 요한복음 13:14~15, 35 참조.
7. 마태복음 22:37~39; 25:40; 제3니파이 12:48 참조.
8. 요한복음 16:13; 제3니파이 14:7~8; 모로나이서 7:13; 10:5; 교리와 성약 8:2; 9:8; 11:13 참조.
9. 마태복음 20:26~28; 22:37~39; 25:34~40; 제3니파이 26:19 참조.
10. 이사야 43:10; 모사이아서 18:9; 교리와 성약 14:8 참조.
11. 로마서 8:17; 니파이후서 9:18; 31:20; 교리와 성약 84:38; 132:49; 모세서 1:39 참조.
12. 힐라맨서 12:23; 모로나이서 10:33; 교리와 성약 58:42 참조.
13. 엘마서 34:33; 교리와 성약 82:18 참조.
14. 히브리서 11장; 니파이후서 31:19~20; 엘마서 32:21 참조.
15. 여호수아 24:15; 교리와 성약 109:8; 132:19 참조.
16. 출애굽기 19:5; 니파이전서 14:14; 니파이후서 11:5; 교리와 성약 54:6; 66:2; 90:24 참조.
17. 모사이아서 13:30; 엘마서 30:3; 교리와 성약 84:20~22; 신앙개조 제3조 참조.
18. 시편 24:3; 이사야 2:3; 에스겔 37:26 참조.
19. Neal A. Maxwell, *All These Things Shall Give Thee Experience* (1979), 55.
20. 모든 반은 “청녀”라는 통합된 명칭으로 불려야 한다. 특정 반을 지칭하려면 연령을 넣는다. 예를 들어, “청녀 12~14반”, “청녀 15~18반”.(『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 10.1.5, ChurchofJesusChrist.org 참조)
21. 각 청녀 반에는 반 회장단이 부름을 받아야 한다. 가능한 곳이라면, 회장과 두 명의 보좌 및 서기를 모두 갖춘 회장단이 부름을 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회장단의 구성원 중 일부만 부름을 받을 수도 있다.(『지침서 제2권』, 10.3.5 참조)
22.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 10.3.5 참조.
23. 리셀 엠 벨슨, “이스라엘 시온 군대”(전 세계 청소년 영적 모임, 2018년 6월 3일), HopeofIsrael, ChurchofJesusChrist.org 참조.
24. 성인 청녀 지도자들을 위한 추가적인 지침은 『지침서 제2권』, 10장에 나와 있다.
25. 헨리 비 아이어링, 『자신의 부름을 수행하십시오』,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76쪽.
26. 청녀 반이 하나만 있어 반 회장단이 하나만 조직된 경우, 청녀와 청남 수에 균형이 맞도록 회장단 전체가 아론 신권 정원회 회장들과 함께 와드 청소년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지침서 제2권』, 18.2.9 참조)

하나님과 협력하는 성약의 여성

하나님과 협력하는 성약의 여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홍분하고 선한 딸들이 항상 그래왔듯이 어머니로서
보살피고, 이끌며, 성역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약의 딸인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저는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위대한 봉사를 하도록 여러분을 격려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하나님의 모든 딸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니다.

여러분을 완벽하게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딸인 여러분을 위해 특정한 장소와 시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의 부름은 여러분이 지상으로 왔을 때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그분은 여러분을 아셨고 가르치셨으며, 세계 역사에서는 흔치 않은 기회인, 침례의

물가로 인도될 기회를 얻을 장소에 여러분을 두셨습니다. 침례반에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은 종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위임을 받아,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침례를 주노라. 아멘.”

침례의 물에서 나왔을 때, 여러분은 봉사하라는 또 다른 부름을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성약의 딸로서 여러분은 약속을 맺었으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임무를 받았고,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그분을 섬기기로 하나님과 성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성약을 맺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봉사의 부름은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약을 맺은 하나님의 딸과 아들 모두에게는 중요하고 기쁨 넘치는 한 가지 공통적인 부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을 대신해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리셀 엠 벨슨 회장님은 자매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의 사업에 동참하라는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부름을 훌륭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벨슨 회장님은 여러분의 부름을 이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것이 곧 나의 일이고, 나의 영광입니다.’(모세서 1:39) 따라서 그분의 충실한 딸이자 제자인 여성은 진실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그 하늘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곧 나의 일이고, 나의 영광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의 왕국에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성취하도록 돕는 것은 여성이 지닌 신성한 사명의 일부입니다. 어머니이자 교사로서, 또한 성도로서 다른 이를 양육하면서 여성은 살아 있는 점토를 자신이 소망하는 형태로 빚습니다. 하나님과 협력하여 영이 살고 영혼이 고양되도록 돕는 것이 여성이 성취해야 하는 신성한 사명이며, 여성이 창조된 목적입니다. 고귀하게 하고, 고양하며, 승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²

언제인지, 혹은 얼마 동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여러분이 받은 개인적인 사명은 어머니, 지도자, 또는 자매 성역자와 같은 부름에서 봉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그 임무를 맡을 시기, 기간, 혹은 그 순서를 선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경전과 살아 계신 선지자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모든 하나님의 딸들은 이생 아니면 다음 생에서 이런 임무들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든 임무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인³,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영생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 목적을 염두에 두고 바로 지금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 일을 좀 더 수월히 해낼 수 있는 것은 다음의 임무가 모두 거의 비슷한 준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매 성역자가 되는 임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부름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가정의 10살 된 딸이든, 최근에 화마에 휩싸였던 도시의 상호부조회 회장이든, 수술 후 병원에서 회복 중이든, 여러분에게는 성역을 행하는 딸이 되라는 주님의 부름을 수행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상황에서 맡게 되는 성역 임무는 매우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임무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굳건하고 사랑이 넘치는 마음과 주님께서 길을

예비하실 것이 아니고는 아무 명령도 주지 아니하심을 믿는 두려움 없는 신앙과 그분을 위해 가서 행하겠다는 소망을 통해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⁴

좀 전에 언급한 가정의 10살된 딸은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홀로된 어머니를 두 팔로 감싸 안았고 가족을 도울 방법을 알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상호부조회 회장은 자신의 지역에서 불의의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성역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주님을 위해 작은 봉사를 하면서, 그분께 드린, 도움을 구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웠습니다. 오랜 준비 덕분에 그녀는 열의를 가지고, 곤경에



치한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성역을 행할 자매들을 조직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술 후 병원에서 회복 중이던 한 자매는 같이 입원해 있던 환자들에게 성역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모든 낯선 이들에게 마치 그 사람의 이웃과 친구인 듯이 주님을 대신해 성역을 행했습니다. 병원에서 성역을 행해야 한다는 부름을 마음속으로 인지했을 때, 그녀는 다른 이들에게 큰 사랑으로 아주 용감하게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너무 빨리 회복하여 퇴원하지 않기를 바라는 환자들도 생겼습니다.

성역을 행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은 주님을 대신하여 지도자가 되라는 부름이 왔을 때를 위해 준비할 수 있고, 준비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이끌고, 두려움 없이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경전에 대한 깊은 사랑에 근간을 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신을 항상 동반할 준비가 될 것입니다. 청년 회장단의 보좌가 당황한 목소리로 “오늘 알바레스 자매님이 아프시대요. 누가 그 반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기꺼이 “제가 가르치겠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머니라는 임무를 주시는 멋진 날을 위해서도 비슷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필요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마음속에

지녔던 것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가능하리라 여겼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성신의 영향력과 인도와 위안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능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머니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어떻게 남성이 알 수 있는냐는 합리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할 만합니다. 남성들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계시로 많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켜본 바를 이해하도록 영의 도움을 구할 때, 관찰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5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내인 캐슬린 존슨 아이어링 자매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4남 2녀의

어머니입니다. 현재까지, 그녀는 다른 이를 보살피는 부름을 받아들여 100명 이상의 직계 가족들과,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인 수백 명이 넘는 이들에게 어머니로서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벨스 회장님께서 훌륭하게 설명하신, 어머니로서 보살피는 사명을 포함한 여성의 신성한 사명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머니이자 교사로서, 또한 성도로서 다른 이를 양육하면서 여성은 살아 있는 점토를 자신이 소망하는 형태로 빚습니다. 하나님과 협력하여 영이 살고 영혼이 고양되도록 돕는 것이 여성이 성취해야 하는 신성한 사명이며 여성이 창조된 목적입니다.”⁵

제가 알기로는, 제 아내 캐슬린은 하나님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아버지의 딸들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따랐습니다. 핵심은 다음 말에 담겨 있는 듯합니다. “여성은 [하나님과 협력하여] 살아 있는 점토를 자신이 소망하는 형태대로 빚습니다.” 아내는 짓이기지 않았습다. 빚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소망하는 바를 본보기로 삼아, 자신이 사랑하며 어머니로서 보살피는 사람들을 빚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수년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그녀의 본보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협력하는 성약의 여성이 되는 것은 주님께서 어떤 길과 장소를 예비하셨는지와는 상관없이 봉사하여, 하나님의 훌륭하고 선한 딸들이 항상 그대왔듯이, 어머니로서 보살피고, 이끌며, 성역을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딸로서 하늘의 집을 향해 그분에게 돌아가는 여정에서 기쁨을 얻게 되리라고 약속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살아 계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이끄십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은 그분의 살아 있는 선지자입니다. 조셉 스미스는 뉴욕주 팔마이라의 성스러운 숲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으며 그분들과 대화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됨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이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의 속죄를 통해 여러분은 정결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에게 다가올 고귀하고 성스러운 부름에 맞게 드높여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20:73.
2. 러셀 엠 넬슨, 「여성—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 『성도의 빛』, 1990년 1월호, 28쪽.
3. 교리와 성약 14:7.
4. 니파이전서 3:7 참조.
5. 러셀 엠 넬슨, 「여성—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 28쪽.

두 가지 큰 계명

우리는 두 가지 큰 계명을 모두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율법과 사랑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힘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영원한 가족의 보호자로 성스럽게 지명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교회가 회복된 것은 가족이 형성되고, 인봉되고, 영원히 승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¹ 그 가르침은 자신을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즉 흔히 말하는 성 소수자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내포합니다.² 넬슨 회장은 또한 우리가 “의견이 [늘] 일치해야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³ 가족 토론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질문에 답하는 데 있어 선지자의 이런 가르침들은 중요합니다. 교회의 모든 가족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런 질문에 여러분이 특히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저는 여러분께 말씀하기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감을 구했습니다.

I.

먼저, 예수께서 가르치신 두 가지 큰 계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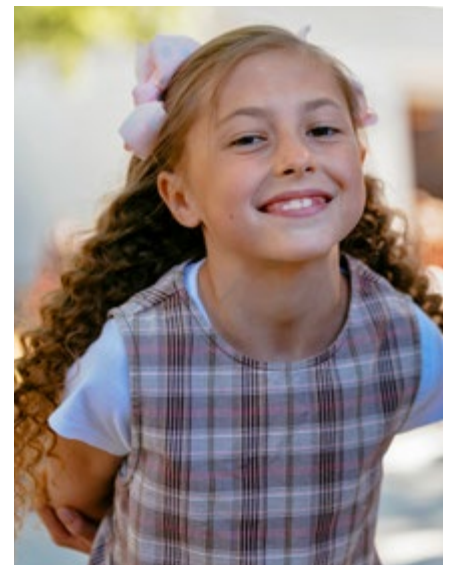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⁴

이 말씀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았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예수께서 드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임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⁵ 하지만 이 둘째 계명을 지키려는 열의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 사랑을 나타내 보입니다.⁶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계명에 순종하도록 요구하시며, 그 이유는 회개를 포함하는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분의 면전으로 돌아가 살 수 있고 그분처럼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셀 엠 넬슨 회장은 최근에 청년 성인들에게 전하신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율법 간의 긴밀한 연관성”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⁷ 자신을 성 소수자로 여기는 사람들에 관한 사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는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인 결혼과 그에 동반하는 율법인 순결의 법입니다. 이 두 율법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구원의 계획에서 필수적입니다. 넬슨 회장이 가르치셨듯이, “하나님의 율법은 오로지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우리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는 그분의 열망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⁸

넬슨 회장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이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는 민법상의 결혼을 포함하여 ... 국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태초에 결혼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분은 결혼을 남성과 여성 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에 대한 당신의 규정을 변경하지 않으셨습니다.”

넬슨 회장은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또한 그분의 순결의 법을 변경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 요건은 바뀌지 않았습니다.”⁹

넬슨 회장은 우리 모두에게 다음과 같이 상기시키셨습니다. “사도로서 우리의 임무는 오직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성한 율법을 변경할 권한은 그 [사도의] 임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¹⁰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남성과 여성 간의 결혼과 그와 관련된 순결의 법의 독특한 중요성을 항상 가르쳐야 합니다.

II.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의 왕국에 들어가도록, 특히 가장 높은 영광인 승영, 즉 영생에 이르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 가장 높은 영광은 영원한 결혼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¹¹ 영생에는 남성과 여성의 결합에 내재하는 창조 능력이 포함되는데,¹² 현대의 계시에서는 이를 “영원무궁하도록 자손이 ... 계속되는 것”으로¹³ 묘사합니다.

넬슨 회장은 청년 성인들에게 전한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이 궁극적인 승영을 향해 진보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다면 여러분은 안전할 것입니다.”¹⁴ 그것은 하나님처럼 되어 승영의 삶을 살고 우리 하늘 부모의 신성한 잠재력을 지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바라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주리라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과 계획과 사업을 그 사랑으로 대체해 버릴 수는 없습니다.

회복된 복음을 알고 있는 일부 사람을 포함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이들 중에 결혼과 순결의 법에 관한 하나님의 계명을 믿지 않거나 따르지 않기로 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교리를 통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¹⁵ 우리는 현대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상 생활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셨으며, 모든 사람이 그분의 가장 큰 축복을 얻기 위해 순종을 선택하거나 또는 낮은 단계의 영광의 왕국 중 하나에 이르는 선택을 할 수 있음을 배웁니다.¹⁶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자녀에 대해 지니신 큰 사랑 때문에, 그 낮은 단계의 왕국들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훌륭한 곳입니다.¹⁷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덕분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며, 이는 그분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고, … 자기 손으로 지은 모든 것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¹⁸

III.

지금까지 첫째 계명에 관해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둘째 계명은 어떨까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는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의 가르침과 행위를 따르는 이들을 사랑으로, 즉 구주께서 모든 이웃에게 보이라고 명하신 그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점을 회원들에게 설득하려 합니다. 그렇기에, 미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이라고 공표되었을 때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라고 가르치며, 그것은 서로 의견이 다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 결혼을 승인하는 법률 또는 법원 판결을 따르는 사람들을 예의 바르게 대해야 한다는 점을 또한 말씀드립니다.”¹⁹

더 나아가, 우리와 믿음과 헌신이 다른 사람들을 결코 박해해서는 안 됩니다.²⁰ 유감스럽게도 이런 문제에 직면하는 일부 사람들이 우리 가족과 와드와 스테이크에 속한 일부 회원과 지도자들에 의해 소외되고 거부당한다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더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IV.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들로 인해 우리는 지상 생활을 하며 각각 다른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그분은 우리 각자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가르침 받은 율법들을 어긴 것에 대해 고통을 겪고 회개한 후에 모두 영광의 왕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은 주님께서 하실 것이며, 그분만이 우리 각자를 심판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지혜와 은혜를 갖고 계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두 가지 큰 계명을 모두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율법과 사랑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힘씁니다. 다시 말해, 계명을 지키고 성약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는 그 과정에서 무엇을 지지하고, 무엇을 반대하며, 어떻게 사랑하고 정중히 경청하고 가르칠 것인지에 관하여 신성한 영감을 구해야 합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계명에 관해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 온전한 이해와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성적 성향에 관한 확신이 없는 자녀들에게 배려심을 보여야 하지만, 대부분 자녀의 경우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한 불확실성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선불리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²¹ 성약의 길을 걸으며 우리를 그 길에서 떠나게 하려는 시도에 반대하며, 사람들을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어떤 것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소망과 궁극적 기쁨과 축복을 약속하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V.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 두 가지 큰 계명을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은 교회의 여성들이 지닌 의무를 다음과 같은 위대한 예언으로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교회의 주요한 성장의 많은 부분은 세상의 훌륭한 여성들 중 많은 사람들이 … 교회로 이끌리게 되기 때문에 성취될 것입니다. 이런 일은 교회의 여성들이 그들의 삶에서 의로움과 명료함을 나타내는 정도에 따라, 그리고 교회의 여성들이 좋은 면에서 세상 여성들 사이에서 두드러지며 달라 보이는 정도에 따라 일어날 것입니다. …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교회의 수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장 모두에서 교회 여성들의 모범이 중대한 힘이 될 것입니다.”²²

러셀 엠 넬슨 회장은 그 예언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언명하셨습니다. “김볼 회장이 예언하신 그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

영적인 보화

그분이 미리 보신 그 여성들이란 바로 여러분이었습니다!”²³ 40년 전만 해도 그 예언을 들은 우리는 이 교회의 여성들이 구원할 수 있는 이들 중에 현재 세속적인 우선 사항과 사악한 속임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그들의 소중한 친구와 가족이 있을 것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예언을 가르치고 행동으로 옮겨 성취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러셀 엠 넬슨, 「해의 왕국의 결혼»,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92쪽.
2. 성 소수자 외에 다른 표현도 많지만, 이 말씀에서는 이 표현만으로도 충분하다.
3. 러셀 엠 넬슨, 2019년 7월 21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미국 흑인 지위 향상 협회(NAACP)의 연례 총회에서 하신 말씀.
4. 마태복음 22:37-39.
5. 누가복음 10:29-37 참조.
6. 요한복음 14:15.
7. Russell M. Nelson, “The Love and Laws of God” (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Sept. 17, 2019), speeches.byu.edu.
8. Russell M. Nelson, “The Love and Laws of God.”
9. Russell M. Nelson, “The Love and Laws of God.”
10. Russell M. Nelson, “The Love and Laws of God.”
11. 교리와 성약 132:7-13 참조.
12. 교린도전서 11:11; 교리와 성약 131:1-4 참조.
13. 교리와 성약 132:19.
14. Russell M. Nelson, “The Love and Laws of God.”
15. 니파이후서 2:25 참조.
16. 교리와 성약 76:71-113 참조.
17. 교리와 성약 76:89 참조.
18. 교리와 성약 76:43; 강제체 추가.
19. “Response to the Supreme Court Decision Legalizing Same-Sex Marriage in the United States,” enclosure to First Presidency letter, June 29, 2015.
20. 멜린 에이치 옥스, 「타인을 사랑하고, 차이를 존중하며 살아갑니다」,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25-28쪽; 「사랑과 율법」,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26-29쪽 참조.
21. See, for example, Michelle Forcier, “Adolescent Sexuality,” UpToDate, June 3, 2019, uptodate.com/contents/adolescent-sexuality.
2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더블유 김볼」(2006), 222-223쪽.
23. 러셀 엠 넬슨, 「자매님들께 드리는 간청」, 『리아호나』, 2015년 11월호, 97쪽.

여러분이 주님과 그분의 신권 권능을 믿는 신앙을 행사할 때,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영적 보화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증대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 서서 중간 찬송가 “우리 인도하실 선지자 주신”을 부르는 동안 두 가지 생각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하나는 이 경륜의 시대의 선지자인 조셉 스미스에 관한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이 커집니다. 두 번째 생각은 제 아내와 딸들, 손녀들, 증손녀들을 바라보는 순간에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 가족이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개월 전 어느 날, 성전 엔다우먼트 의식이 끝날 무렵에 저는 아내 웬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들이 성전에서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보화에 대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 대해 자주 생각합니다. 두 달 전에 웬디와 제가 펜실베이니아주 하모니를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곳을 두 번째로 방문했던 때였습니다. 우리는 그 성지를 거닐면서 두 차례 모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하모니 근처에서 침례 요한이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 아론 신권을 회복했습니다.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나타나 멜기세덱 신권을 회복한 곳도 그곳이었습니다.

그곳 하모니에서 에머 헤일 스미스는 남편인 선지자 조셉이 몰몬경을 번역할 때 그의 첫 번째 서기로 일했습니다.

주님께서 에머에 대한 뜻을 조셉에게 계시로 밝히신 곳도 하모니였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에머에게 경전을 해설하고 교회 회원을 권면하며 성신을 받고 “많은 것을 배우는 데” 시간을 쏟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또한 “세상의 것들을 제쳐 두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맺은 성약에 충실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이것은 모두에게 주는 나의 음성이라”라는 힘 있는 말씀으로 이 계시를 끝맺으셨습니다.¹

그 지역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에머에게 주신 권고와 신권의 회복은 여러분 모두의 삶을 인도하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권의 회복이 남성에게 갖는 의미만큼 여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멜기세덱 신권이 회복되었으므로, 성약을 지키는 여성과 남성은 모두 “교회의 모든 영적 축복”, 즉 주님께서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모든 영적 보화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지키며, 신권 의식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모든 여성과 남성은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접하게 됩니다. 주님의 집에서 엔다우먼트를 받은 자들은 그들이 맺은 성약 덕분에 하나님의 신권 권능이라는 은사뿐만 아니라 그 권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은사도 받았습니니다.

하늘은 신권을 지닌 남성뿐만 아니라, 신권 성약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받은 여성에게도 똑같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진리를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돕기 위해 구주의 권능을 마음껏 불러올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니다. “정말 멋진 일이지는 한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지? 구주의 권능을 어떻게 내 삶으로 불러올 수 있을까?”

어떤 교재에도 그 방법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 주시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바를 여러분이 이해하고자 힘을 때, 성신은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가르침을 주실 것입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쉽지도 않지만, 영성을 복돋아 주는 일입니다. 영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권능인 신권 권능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일보다 더 벽찬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삶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접하려면 주님께서 에머와 여러분 모두에게 명하신 바로 그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교리와 성약 25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성신이 여러분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지 찾아보도록 권고합니다. 여러분에게 부여된 권능을 얻고, 이해하고, 사용할 때 여러분 개개인이 기울이는 영적 노력은 기쁨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제쳐두는 일이 포함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세상의 분쟁, 만연한 유혹, 거짓 철학에서 멀어지는 것에 대해 별일 아니라는 듯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자신의 삶을 꼼꼼하게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신은 여러분에게 더는 필요 없는 것, 여러분의 시간과 힘을 들일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세상적인 것들에서 시선을 돌릴 때, 지금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것입니다. 때로는 해롭지 않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주님께 바치는, 평생에 걸친 이 과정을 시작하고 계속해 나갈 때, 여러분의 관점과 감정, 영적인 힘에 찾아올 변화는 놀라울 것입니다!

이제 주의 사랑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불러올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을 음해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의심하게 하고, 의로운 여성으로서 지내는 자신의 특별한 영적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분명 대적은 여러분이 침례식에서 맺었던 성약이나 주님의 집인 성전에서 받았거나 받게 될 지식과 권능의 위대한 부여에 관해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성전에서 합당하게 봉사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되고 그분의 천사들의 “돌[봄]”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³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여러분이 이미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은사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장애물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장애물들은 누군가의 나쁜 행동의 결과로 생겨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꼈거나, 신권 지도자가 여러분을 믿지 않았던 경험이 있거나, 남편이나 아버지나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학대나 배신을 당한 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비통합니다. 또한 무시나 경시를 당하거나, 오해를 받은 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그러한 죄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워드 평의회와 스테이크 평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여성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신권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자신의 신권 책임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아내를 보살피는 일임을 몸소 보여 주는 모든 남편에게서 큰 영감을 얻습니다.⁴ 저는 계시를 받는 아내의 능력을 진심으로 존중하며, 아내를 결혼 생활의 동등한 동반자로서 소중히 여기는 남성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엔다우먼트를 받고 늘 진리를 추구하는 의로운 후기 성도 여성의 위엄과 힘을 이해하는 남성이라면 그러한 여성이 방으로 들어올 때 존경과 사랑을 보내기 위해 기립하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여성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특별한 도덕적 나침반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성약을 맺고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 은사가 더욱 강화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계명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이 은사가 힘을 잃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남성에게도 요구하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책임이 남성에게서 면제된다고 말씀드리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고 사회에서 도덕성을 수호하는 여러분의 능력은 이 후기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이들에게도 그와 같이 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도덕적 청렴함이 결여된 세상은 절대로 발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후기 성도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약의 이스라엘에 속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여성과 신권에 관한 내용 몇 가지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감도이나 스테이크 회장처럼 신권 열쇠를 지니고 있는 사람의 지시 아래 어떤 부름에서 봉사하도록 성별되면, 여러분은 그 부름에서 일할 신권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거룩한 성전에서 신권 의식에 참여할 때마다 신권 의식을 수행하고 집행할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여러분은 성전에서 엔다우먼트를 받음으로써 그렇게 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엔다우먼트를 받았지만,



현재 신권을 지닌 남성과 결혼한 상태가 아닌 경우, 누군가로부터 “자매님 가정에 신권이 없어서 참 안됐습니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 말은 틀린 말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신권 소유자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스러운 성약을 받고 그분과 성약을 맺었습니다. 그러한 성약을 통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그분의 신권 권능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남편이 사망한다면, 여러분이 가정을 감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엔다우먼트를 받은 의로운 후기 성도 여성은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말하고 가르칩니다. 권면을 통해서든, 대화를 통해서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르칠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가정과 와드와 스테이크 평의회는 여러분의 고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필수적이며 결코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다른 이들에게 봉사할수록 여러분의 권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금식, 경전 연구, 성전 봉사 및 가족 역사 사업은 하늘의 문을 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권 권능에 관한 모든 진리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시기를 권고합니다. 교리와 성약 84편과 107편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부하다 보면 다른 성구들도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경전과 현대의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의 가르침은 이러한 진리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이 향상되고, 여러분이 주님과 그분의 신권 권능을 믿는 신앙을 행사할 때,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영적 보화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증대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단결되고, 주님의 성전에서 인봉되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영원한 가족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서로에게 성역을 베풀고, 복음을



전파하며,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죽은 자를 구속하려는 모든 노력은 성전에서 하나로 수렴됩니다. 이제 전 세계에 166개의 성전이 있으며,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솔트레이크 성전과 템플 스퀘어 및 교회 본부 건물 인근 광장을 새롭게 재정비하는 계획이 올해 말부터 시행될 것입니다. 이 성스러운 성전은 이 세대에 우리에게 영감을 주었던 것처럼, 미래 세대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도록 보존되고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더 많은 가족들이 영생이라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성전이 지어질 것입니다.⁵ 우리는 성전을 교회에서 가장 성스러운 건축물로 여깁니다. 새 성전 건립 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그것은 우리 역사의 중요한 일부분이 됩니다. 오늘 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매 여러분은 성전 사업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여러분이 가장 고귀한 영적 보화를 받게 될 장소는 성전입니다.

이제, 여덟 개의 새 성전 건립 계획을 발표할 것이므로 경건하고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는 지역에 대한 성전 건축을 발표하게

된다면, 그저 고개를 숙이고 마음속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다음 지역에 성전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시에라리온 프리타운, 유타 오렘,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 아칸소 벤턴빌, 필리핀 바콜로드, 텍사스 매켈런, 과테말라 코반, 유타 테일러즈빌.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계획을 받아들이고 경건하게 반응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이 부여받은 신권 권능을 이해하고 주님과 그분의 권능을 믿는 신앙을 행사함으로써 그 권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깊은 존경과 감사를 담아 여러분께 제 사랑을 전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간증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25:7~16 참조.
2. 교리와 성약 107:18; 강조체 추가.
3. 교리와 성약 109:22.
4. 교리와 성약 131:2~4 참조.
5. 교리와 성약 14:7참조.



게릿 더블유 공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성약에 속하는 것

하나님께 속하고 그분의 성약의 길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걷는 것은 성약에 속하는 축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기도하기를 배우는 한 초등학교 어린이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ㄱ을 주시고 ㄴ을 주시고 ㄷ을 주시고... 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ㅌ, ㅍ, ㅎ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을 주시고 2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교사는 조금 걱정이 되지만 현명하게 기다립니다. 어린이는 계속 말합니다. “5를 주시고, 6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초등학교 선생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은 제가

기도를 끝마치도록 기다려 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로 모든 어린이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끝없는 사랑을 지니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믿고 성약을 맺음으로써 그분의 교회에 속하기를 권유하십니다.

이 세상은 망상과 허상과 교묘한 속임수로 가득합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듯합니다. 우리가 가면과 허식을 벗고 대중들의 좋아와와 싫어요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걸치레, 일시적 친분, 그리고 세속적인 사리 추구보다는 훨씬 더 의미 있는 것들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큰 계명을 우리가 성약으로 행할 때, 우리는 나그네나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그분의 집에 속한 그분의 자녀로서 행합니다.¹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역설은 지금도 진리입니다. 성약에 속함으로써 세속적인 자아를 버리면 우리는 자유롭고, 살아 있고, 참된, 가장 훌륭하고도 영원한 자아²를 찾고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으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됩니다. 성약에 속한다는 것은 성스러운 의식을 통해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가 엄숙한 약속을 맺고 지키는 것이며 이를 통해 경건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³ 모든 것을 바쳐 성약을 맺을 때, 우리는 현재의 우리 자신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약에 속함으로써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장소와 메시지와 역량을 얻습니다. 또한 삶과 구원에 필요한 신앙을 얻습니다.⁴

신성한 성약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근원이므로 서로에 대한 사랑의 근원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개인적 변화(회개)를 통해 우리는 자비와 은혜, 용서를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상처, 외로움, 부당함을 달래 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기기에, 그분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사인 기쁨과 영생을 우리가 받기를 바라십니다.⁵

우리의 하나님은 성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본질적으로 “성약을 지키시고, 자비를 보이”시는 분입니다.⁶ “시간이 지속되거나, 땅이 존속하거나, 그 위에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자가 있는 한” 그분의 성약은 지속됩니다.⁷ 우리는 존재적 불확실성과 의심 속에 헤매이지 않고, “죽음의 끈보다 더 강한”, 소중한 성약 관계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⁸

하나님의 의식과 성약의 요구 조건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며, 그 성취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공정하심 안에서 모든 개인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구원 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택의지가 적용됩니다. 개개인은 그 의식을 받을지 말지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의식들은 그분의 성약의 길에서 이정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본향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구속의 계획, 구원의 계획, 행복의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구속, 구원, 해의 왕국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⁹

하나님께 속하고 그분의 성약의 길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걷는 것은 성약에 속하는 축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첫째, 성약에 속한다는 것은 “새 성약의 증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중심을 두는 것입니다.¹⁰ 우리가 “아버지의 성약 안에서” ...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하게 [될]” 때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함께 역사할 수 있습니다.¹¹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훌륭한 축복은 끝까지 충실하게 남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 행복한 상태”는 “현세적이거나 영적인 모든 일에 복”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결코 끝이 없는 행복한 상태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¹²

우리가 맺은 성약을 영화롭게 지킬 때, 우리는 종종 천사가 함께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천사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휘장의 이쪽 편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이들과, 휘장

저편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이들과 함께 말입니다.

최근 아내와 저는 한 병실에서 성약에 속하는 것에 관한 가장 다정하고도 훌륭한 예를 보았습니다. 한 젊은 아버지는 신장 이식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가 새로운 신장을 받게 해 달라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목숨을 구할 신장을 누군가로부터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그의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가족이 부디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성약에 속한다는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는 것입니다.¹³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분은 결코 우리에게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말하자면, 그분의 현관등은 항상 켜져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길로 인도하는 성약으로 오라고, 혹은 다시 돌아오라고 권유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직도 거리가 먼” 곳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맞을 준비를 하신 채 기다리고 계십니다.¹⁴ 신앙의 눈으로 우리가 하는 경험의 패턴과 과정과 연결점들을 찾아보면, 우리는 기쁨의 순간뿐만 아니라 특히나 시련과 슬픔과 역경 중에서 그분의 친절하신 자비와 격려가 있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주 넘어지거나 쓰러진다 해도, 계속 그분께로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를 한 번에 한 걸음씩 도와주실 것입니다.

둘째, 물몬경은 성약에 속하는 길에서 우리가 늘 손에 지닐 수 있는 증거입니다. 새 성약이라고 예언된 물몬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집합을 위해 쓰이도록 약속된 도구입니다.¹⁵ 혼자서 또는 누군가와 함께, 조용히 또는 소리내어 물몬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의도를 지니며,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하여 성신의 권능으로 물몬경이 참되다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¹⁶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조셉 스미스가 회복의 선지자이며, 주님의 교회는 그분의 이름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고 일컬어진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¹⁷

물몬경은 고대와 현대의 성약을 통해 리하이의 자손이며 “선지자들의 자손”인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¹⁸ 여러분의 조상은 그들의 후손인 여러분이 티끌에서부터 나는 듯한 한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는 성약의 약속을 물몬경에서 받았습니다.¹⁹ 물몬경을 읽을 때 느끼는 그 음성은 여러분이 “성약의 자손”이며, 예수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증거합니다.²⁰

엘마의 말에 따르면 물몬경은 “주께서 [우리]에게 그의 영을 더욱 풍성하게 부어 주시도록, [우리]가 그를 섬기며, 그의 계명을 지키기로 그와 성약을 맺”도록 우리 모두에게 권유합니다.²¹ 누군가 말했듯이 “비참하기를 그치고 행복하다는 사실에 행복해지기 위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려고 할 때, 우리는 마음을 열어 인도와 도움과 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약을 통해 하나님과 충실한

성도들의 무리에 속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서 약속된 축복들을 바로 지금 받을 수 있습니다.²²

성약에 속하는 것의 세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축복하는 회복된 신권 권세와 권능입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침례 요한과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하나님의 신권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 그분의 영광스러운 사자로 왔습니다.²³ 하나님의 신권과 의식들은 이 세상에서 맺은 관계를 더욱 소중하게 만들고, 하늘에서 성약으로 맺어진 관계를 인봉할 수 있습니다.²⁴

신권은 유아의 명명부터 무덤 헌납에 이르기까지, 문자 그대로 한 사람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축복합니다. 신권 축복은 치유와 위로와 권고를 제공합니다. 아들에게 화가 났던 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애정 어린 신권 축복을 베풀면서 너그러운 사랑을 느꼈습니다. 가족 중에서 교회의 유일한 회원이었던 한 청년은 영감 어린 신권 축복을 받은 후에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고결한 축복사들은 축복사의 축복을 주기 위해 영적으로 준비합니다. 축복사가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을 때, 그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집에서 어느 혈통에 속하는지 선언합니다. 그는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말합니다. 사려 깊은 한 축복사의 아내는 남편이 축복사의 축복을 주는 날마다 온 가족이 함께 가정에 영을 초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약에 속함으로써 오는 축복은 우리가 주님의 선지자를 따르고, 결혼을 포함하여 성전에서 맺은 성약에

헌신하는 생활에서 기쁨을 찾을 때 옵니다. 성약의 결혼은 우리가 매일 자신의 행복보다 배우자와 가족의 행복을 선택할 때 거룩하고 영원한 결혼이 됩니다. “내”가 “우리”가 될 때 우리는 함께 성장합니다. 우리는 함께 늙어 가고 함께 젊어집니다. 평생 동안 자신을 잊고 서로를 축복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현재와 영원에 걸쳐 성결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각자의 상황은 다르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계속 진심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찾는다면, 주님은 그분의 시간과 방법에 따라 성신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²⁵ 결혼 성약은 그 성약을 맺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선택함으로써 구속력을 갖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선택 의지를 존중한다는 사실과, 우리가 단합된 마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축복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여러 세대에 걸쳐 성약에 속함으로써 오는 축복을 우리의 가정과 마음에서 느낍니다. 개인적인 경험 몇 가지를 예로 들겠습니다.

공 자매와 제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저는 선택의지와 결정에 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우리는 서로 다른 두 대륙의 서로 다른 두 나라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국제 관계학 박사 학위를 따게 된 데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수전과 결혼하는 게 맞을까요?”라고 여쭙었을 때, 저는 평안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진정한

의도를 지니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수전을 사랑하며 그녀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제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겠다고 약속합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즉 제가 먼저 행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렸을 때, 비로소 가장 강한 영적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공 집안과 린지 집안의 FamilySearch[패밀리서치] 가계도와 이야기들과 사진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성약에 속하는 삶을 살았던 이들의 경험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서로 연결되도록 도와줍니다.²⁶ 우리가 존경하는 조상들에는 다음과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세 번의 청혼을 받으시기도 했던 엘리스 블라우어 뱅거터 증조할머니는 후에 남편에게 버티를 저으면서 동시에 뜨개질과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버티 젓는 기계에 페달을 달아 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로이 귀 차 증조할아버지는 등에 자녀들을 업고 나귀에 짐을 실은 채 하와이 빅 아일랜드의 용암층을 건너셨습니다. 수세대 동안 이어진 차씨 가문의 헌신과 희생은 오늘날 우리 가족에게도 축복이 되고 있습니다.

메리 엘리스 파월 린지 할머니는 남편과 큰아들이 며칠 차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어 어린 다섯 자녀와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47년 동안 과부로 지내시면서, 지역 지도자들과 회원들이 베푼 끊임없는 사랑에 힘입어 가족을 양육하셨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할머니는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절대 불평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할머니를 도와셨고, 할머니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선하고 영원한 모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의 실재성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성신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성약의 증보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물론경이 지닌 성약의 목적입니다.²⁷ 하나님의 회복된 신권 권세는 맹세와 성약을 통해 성약의 결혼,



엘리스 블라우어 뱅거터



로이 귀 차



메리 엘리스 파월 린지



크리스티나 비 프랑코
본부 초등회 회장단 제2보좌

대대로 내려오는 가족, 개별적인 축복 등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축복하고자 합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그리스도 주니라. 그러하도다. 참으로 나는 그니, 시작과 끝이요, 세상의 구속주니라.”²⁸

그분은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하시며, 마지막까지 우리가 속한 모든 성약에 함께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럽고 거룩한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

주

1. See Isaac Watts, “My Shepherd Will Supply My Need,” Ensign, Sept. 2015, 73.
2. 마태복음 10:39 참조.
3. 교리와 성약 84:20 참조.
4. See Lectures on Faith (1985), 69.
5. 교리와 성약 14:7 참조.
6. 교리와 성약 109:1.
7. 모로나이서 7:36; 또한 교리와 성약 7:32 참조.
8. 교리와 성약 121:44.
9. 교리와 성약 76:69.
10. 히브리서 12:24; 교리와 성약 76:69; 107:19; see also Joseph Smith Translation, Galatians 3:20 (in the Bible appendix).
11. 모로나이서 10:33; 또한 교리와 성약 90:24; 98:3 참조.
12. 모사이야서 2:41.
13. 로마서 1:12; 또한 모사이야서 18:8~9 참조.
14. 누가복음 15:20.
15. 물문경 표제지; 교리와 성약 84:57 참조.
16. 모로나이서 10:4.
17. 제3니파이 27:7~8; 교리와 성약 115:3 참조.
18. 제3니파이 20:25.
19. 니파이후서 26:16; 33:13 참조.
20. 제3니파이 20:26.
21. 모사이야서 18:10.
22. 니파이후서 31:2, 12~13 참조.
23. 교리와 성약 13편; 27:12; 또한 교리와 성약 소개 참조.
24. 교리와 성약 128:8; 또한 출애굽기 19:5~6; 교리와 성약 84:40 참조. 합당하게 성약을 지키는 자들은 귀한 보화, 제사들의 왕국,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성약은 성결하게 한다. 성약을 지키는 자들은 주님 앞에 성결하게 된다.
25. 교리와 성약 8:2 참조.
26. 각 세대가 그 세대 안에서 교훈을 얻듯이, 세대는 서로를 통해 배울 수 있다. 기독교 작가 쇠렌 키에르 케고르는 흥미롭게도 다음과 같이 시사했다. “한 세대가 다른 세대로부터 배울 게 있을지라도, 어떤 세대도 앞 세대로부터 진정한 인류애를 배울 수는 없다”(Søren Kierkegaard and Johannes De Silentio, *Fear and Trembling* [2018], 117)
27. 물문경 표제지 참조.
28. 교리와 성약 19:1.

복음을 나누는 일에서 기쁨을 찾음

우리에게는 하늘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 우리가 당신께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초등회 노래 중 하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
[내가 누군지 알고 있어]
하나님 계획 굳게 믿고
주 따라가리라
나는 구세주 믿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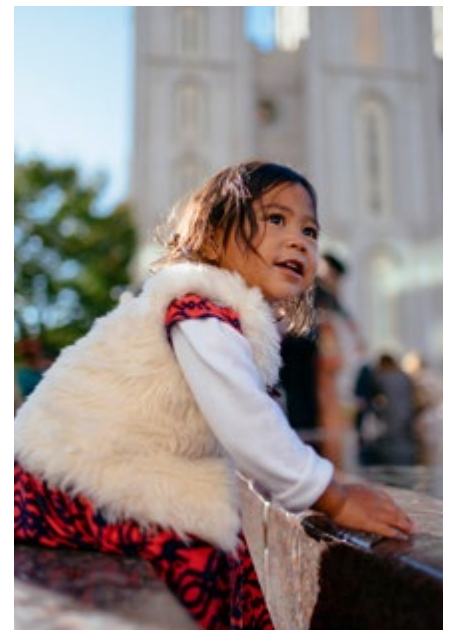
이는 우리가 믿는 진리에 대한 얼마나 간단하고 아름다운 설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압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 그분의 자녀이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하늘에서 함께] ... 살았[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 계획을 발표했을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안전한 목적, 즉 그분의 사업과 영광은 우리 각자가 그분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완전한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오기 전에 이 ... 행복의 계획, 구속의 계획,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핵심이 되십니다. 예수께서는 속죄를 통해 아버지의 목적을 성취하시고 우리 각자가 불멸과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탄, 즉 악마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적이[며]" 태초부터 그러했습니다.

“선택의지 또는 선택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 중 하나입니다.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사탄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²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단순한 진리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고 기회를 인식함으로써 그런 단순한 진리를 나눌 수 있었던 제 어머니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전에 어머니는 제 남동생과 함께 잠시 아르헨티나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비행기 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기에 제 아들 중 하나에게 위안과 보호의 축복을 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제 아들은 그 축복과 더불어, 복음을 배우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게 성신으로부터 특별한 인도와 지시를 받도록 할머니를 축복하라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솔트레이크 공항에서, 어머니와 남동생은 가족과 스키 여행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던 일곱 살 난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 소녀의 부모는 딸이 제 어머니와 남동생과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함께 대화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딸의 이름이 에두아르도, 마리아 수잔나, 지아다

폴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가족에게서 자연스럽게 따뜻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가족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함께 여행하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어머니는 그들이 여태까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교회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잔나가 처음에 했던 질문 중 하나는 “꼭대기에 금으로 된 동상이 있던 그 아름다운 박물관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름다운 건물은 박물관이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분과 성약을 맺는 주님의 성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수잔나는 사실 솔트레이크로 여행을 오기 전에 자신의 영을 고양시킬 수 있는 계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었다고 말했습니다.

비행기에서 어머니는 복음에 대한 단순하면서도 강한 간증을 나누셨고, 수잔나에게 그녀가 사는 지역에서 선교사들을 찾아보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수잔나는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들을 찾죠?”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꼭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흰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맨 두 명의 젊은 남자들이나 깔끔하게 차려입은 두 명의 젊은 여자들이

자신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고 쓰여 있는 명찰을 항상 달고 다니니까요.”

두 가족은 전화번호를 교환했고 부에노스아이레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 수잔나는 저와 좋은 친구가 되었는데, 그때 공항에서 제 어머니와 헤어지는 게 아주 슬펐다고 종종 말하곤 했습니다. 수잔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는 뭔가 빛이 났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머니에게서 느껴지는 그 빛이 좋아서 어머니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지.”

수잔나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딸 지아다와 함께 가까운 곳에 사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 경험에 관해 이야기하러 갔습니다. 차를 타고 가던 중에, 수잔나는 우연히 제 어머니가 묘사했던 대로 옷을 입은 두 명의 젊은 남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도중에 차를 멈추고, 차에서 내려 이 두 젊은 남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나오셨나요?”

그들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선교사들인가요?”라고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차에 타세요. 우리 집에 와서 저를 좀 가르쳐 주셔야겠어요.”

두 달 후에 마리아 수잔나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딸 지아다도 아홉 살이 되었을 때 침례를 받았습니다. 에두아르도는 아직 노력 중입니다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 이후로 수잔나는 제가 만났던 가장 훌륭한 선교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모사이야의 아들들처럼 수많은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데려오고 있습니다.

한번은 대화 중에 제가 물었습니다. “비결이 뭐야? 복음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주 간단해. 매일 집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삶에 복음이 필요한 누군가에게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때로는 사람들에게 나눠 주기 위해 물몬경이나 선교사들이 준 전도용 카드를 가지고 나가기도 해. 그리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게 되면, 그냥 우리 교회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는지 물어봐.”

수잔나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때는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냥 미소를 지어. 하루는 어떤 남자가 나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 ‘뭐 때문에 그렇게 미소짓고 있으세요?’ 그 사람이 갑자기 질문을 해서 좀 놀랐어.

그렇지만 이렇게 대답했어. ‘행복하니까요!’

그러자 그가 말했어. ‘뭐가 그렇게 행복하죠?’

내가 대답했지. ‘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인데, 그 사실이 참 행복해요. 그 교회에 대해서 들어 본 적이 있으세요?’”

그가 들어 본 적이 없다고 말하자 그녀는 그에게 전도용 카드를 주었고 다가오는 일요일 예배에 참석하도록 권유했습니다.

다음 일요일에 그녀는 문 앞에서 그를 맞았습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회원들이 복음을 나누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

첫째, 구원 사업의 필수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겠다는 소망을 갖기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

둘째, 우리 자신부터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충실한 회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나누는 이 위대한 사업에 동참하려 할 때, 구주의 영이 항상 그들 곁에서 인도해 주[십니다.]

셋째,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려고 할 때 …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영감을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으며,] … [받은] 영감에 따라 행하겠다는 결심을 품고 … 기도[할 수 있습니다.]”³

형제, 자매,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제 친구 수잔나처럼 다른 사람과 복음을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 종교에 속하지 않은 친구에게 일요일에 우리와

함께 교회에 참석해 보자고 권유할 수 있을까요? 또는 친척이나 친구에게 물몬경을 전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FamilySearch[패밀리서치]에서 자신의 조상을 찾으려 하거나, 주중에 와서 나를 따르라를 공부하면서 배운 교훈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을까요? 더욱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되고 우리의 삶에 기쁨을 가져다주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요? 이 모두에 대한 대답은 “예”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경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은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주의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보내졌다.(교리와 성약 138:56) 이 구원 사업에는 회원 선교 사업과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 저활동 회원의 활동 촉진,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 복음 교육이 포함된다”⁴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주님은 이스라엘을 집합시키기 위해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주님은 교리와 성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말할까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쌓아 두라. 그리하면 바로 그 시각에 모든 사람에게 할당되는 분량이 너희에게 주어지리라.”⁵

그와 더불어 그분은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너희 온 생애 동안 수고하여 단 한 영혼이라도 내게로 데려오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그와 함께 누리게 될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리고 이제, 너희가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 내게로 데려온 한 영혼과 함께 우리는 너희의 기쁨이 클진대, 너희가 많은 영혼을 내게로 데려오면,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⁶

제가 시작할 때 언급했던 초등학교 노래는 다음과 같은 심오한 가사로 끝을 맺습니다.

나는 구세주 믿고
주 이름 찬양하리라
의를 행하고
주 빛 따르며
진리 전하리라.⁷

저는 이 말이 참되다는 것과, 우리에게는 하늘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 우리가 당신께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오겠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예수 그리스도 교회”, 『어린이 노래책』, 48쪽.
2.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2004), 48쪽.
3. 델린 에이치 옥스, 『회복된 복음을 나눔』,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58쪽.
4.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 5.0, ChurchofJesusChrist.org; 또한 엘 휘트니 클레이튼 『구원 사업: 그때도 지금도』, 『리아호나』, 2014년 9월호, 23쪽 참조
5. 교리와 성약 84:85.
6. 교리와 성약 18:15~16.
7. “예수 그리스도 교회”, 48쪽.

여러분의 위대한 모험

구주께서는 여러분에게 안락함과 무사안일의 태도를 내려놓고 그분과 함께 제자의 길을 걷자고 매일 권하고 계십니다.

호빗에 관하여

오래전에 창작되어 지금까지도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어느 판타지 소설은 이런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땅속 어느 굴에 한 호빗이 살고 있었다.”¹

빌보 배긴스의 이야기는 가장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호빗이 모험과 신비, 그리고 커다란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놀라운 기회를 마주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대부분의 호빗이 그 특성상 모험을 아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호빗에게는 평안한 삶이 최우선입니다. 호빗들은 웬만하면 하루 여섯 끼를 먹습니다. 또 하루 종일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삶의 단순한 기쁨을 마음껏 누립니다.

그러나 빌보가 위대한 모험의 기회를 엿보았을 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치솟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그 여정이 어려울 것임을 알았습니다. 위험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험으로의 부름은 그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이 보잘것없는 호빗은 안락함을 뒤로 하고, “다시 시작되는 전설”² 까지 이어질 장대한 모험의 길에 발을 내딛습니다.

여러분의 모험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 때문에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익숙한 울림을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날 옛적,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시간이 흘러 희미해지고 기억에서 흐려진 일이지만, 우리도 모험을 떠나라는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그 초대장은 하나님,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모험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분 곁에 있을 때 오는 평안과 안전을 뒤로 하고 떠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곧 미지의 위험과





시련이 가득한 여정을 떠나기 위해 지상에 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험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험을 통해 육신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필멸의 삶 속에서 큰 기쁨과 슬픔을 경험하는 것을 포함하여 귀중한 보상을 얻게 되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는 애쓰고, 구하고, 고군분투하기를 배울 것이며,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진리를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과정에서 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약속을 믿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법으로부터 깨끗해지고, 우리의 영이 정제되고 정화되며, 언젠가 부활하여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만날 것이라는 약속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구주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네가 스스로 택할 수 있나니, 이는 그 일이 네게 주어졌음이라.”³

우리 영의 형제 자매 중 많은 수가 필멸의 모험에 나서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보면, 이 모험의 어떤 부분은 우려스럽거나 무서운 것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⁴

우리에게는 배움을 통해 영원히 위대한 존재가 될 잠재력이 있었으며, 이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덕적 선택의지라는 은사와 권능으로 그렇게 선택했습니다.⁵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약속과 권능을 신뢰하며 그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안전한 첫째 지체를 떠나, 우리 나름의 “다시 시작되는 전설”로 이어질 모험을 떠나는 데 동의했습니다.

모험으로의 부름

그러나 필멸의 삶은 쉽게 우리의 초점을 흐트러뜨리곤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목표를 잊고선, 성장과 발전 대신 평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더 높고 더 고귀한 목적을 애타게 그리는 열망이 남아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열망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교회로 이끌리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회복된 복음은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응했던 바로 그 모험으로의 부름을 새로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주께서는 여러분에게 안락함과 무사안일의 태도를 내려놓고 그분과 함께 제자의 길을 걷자고 매일 권하고 계십니다.

이 길에는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언덕, 골짜기, 돌아서 가는 길도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거미나 전설 속 괴물인 트롤, 어찌면 용 한두 마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길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은 마침내 영광스러운 목적지로, 그리고 하늘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십시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겠다고 선택해야 합니다. 매일 그분을 찾자 애쓰십시오. 그분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이해하고, 따르려는 여러분의 소망을 그 사랑이 이끌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지키기를 배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은 명백하고 단순한 형태로 주어졌기 때문에 어린 아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삶의 가장 난해한 질문에도 답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심오하고 미묘해서 평생에 걸쳐 연구하고 고찰해도 아주 작은 부분조차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자신의 능력이 못 미쳐 이 모험을 망설이고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제자로서의 삶은 무언가를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누구인지는 여러분이 지닌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들을 통해 더 잘 드러납니다.⁶

여러분이 실패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기를 선택하고 용기를 되찾아 앞으로 전진하며 힘차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여정의 큰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때로는 실패하리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힘겨워할 때나 성공적일 때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사랑이 가득한 부모와 같이, 그분은 단지 여러분이 계속해서 목적을 가지고 도전하기를 바라십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피아노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젓가락 행진곡”을 서툴게 뚱뚱거리는 게 전부일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연습한다면 그 단순한 멜로디가 언젠가는 경이로운 소나타, 랩소디, 콘체르토로 변모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이 생애 동안에는 오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의식적으로 계속하여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십시오

여러분이 선택한 이 길에는 흥미로운

점이, 어쩌면 모순 같아 보이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모험의 여정에서 전진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전진하도록 돕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곧 제자의 길입니다. 신앙, 소망, 사랑, 연민, 봉사는 우리를 정제하여 제자로 만들어 줍니다.

가난한 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면, 여러분은 성품이 정화되고 형성되며, 영이 커지고, 더 큰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상을 기대한다면 이러한 사랑을 지닐 수 없습니다. 인정, 찬사, 총애받기를 염두에 둔다면 그것은 올바른 봉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심지어 우리를 비웃거나 학대하거나 해하려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으로 채운다면, 거기에는 양심을 품거나, 판단하거나, 남을 부끄럽게 만들려는 마음이 들어올 자리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은 점차 그리스도를

닮아 가게 됩니다.⁷ 이보다 더 위대한 모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우리가 이 여정에서 속달하고자 하는 세 번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을 감추지 않습니다. 숨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는 여정에 대해 일상적이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친구란 그런 것입니다. 친구들은 자신에게 소중한 것들, 자기 마음에 와닿는 것들, 자신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으로서 갖게 되는 사건들과 경험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의 이야기에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릴 것입니다.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의 이야기 덕분에 사람들은 조금 더 인내하고, 견디며, 한동안 더 용기를 내게 되고,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개인적으로, 소셜 미디어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어디서든 나누십시오.

예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 중에는 그들이 세상 곳곳에 나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나누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⁸ 오늘날 우리도 그 위대한 임무를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메시지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남자, 여자, 아이들이 하늘 본향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으며, 그곳에서 영광과 의 가운데에 거하게 되리라는 메시지 말입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좋은 소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살아 계신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회복된 복음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영업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가 복음을 말 아래에 숨겨 두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이 교회가 자기에게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 판단은 그들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들을 친절하게 대하면 됩니다. 사실 이들을 다시 초대할 기회가 또 있을 것입니다.

용감하고 연민 어린 제자의 길이 일상적인 만남이나 어울림과 다른 점은 바로 ‘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그들이 삶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 인종이나 종교가 어떻든, 그리고 그들이 삶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에 상관없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와서 보세요!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보람차고 고양되게 하는 일인지 직접 알아보세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초대합니다.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해요. 와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함께해요. 우리는 당신의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려 노력하지요.

우리와 함께합시다. 당신으로 인해 우리는 더 발전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도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예요. 이 모험을 함께 떠납시다.”

언제 시작해야 합니까?

모험으로의 부름이 빌보 배긴스의 마음을 뒤흔들었을 때, 그는 그날 밤 푹 쉬고, 든든한 아침 식사 후에 바로 출발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빌보가 일어났을 때, 그는 자신의 집이 엉망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바람에 그는 자신의 고귀한 계획을 접어 둘 뻔했습니다.

그때 그의 친구 간달프가 와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올 생각인가?” 동료들을 따라잡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빌보 스스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결국 이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호빗은 현관을 박차고 모험의 길로 뛰어드는데, 너무 급하게 온 나머지 모자도, 지팡이도, 손수건도 놓고 가게 됩니다. 심지어 두 번째 아침 식사도 다 먹지 못하고 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 우리를 위한 교훈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 마음에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로부터 준비하신 것들에 따라 살고, 이를 나누는 위대한 모험에 합류하겠다는 소망을 느꼈다면, 여러분께 말씀드리건대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의 구주께서 마련하신 봉사의 길, 제자의 길을 향해

그분을 따라야 할 날입니다.

모든 일이 완벽히 정리되고 준비될 순간을 원한다면 평생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풀며, 우리의 경험을 사람들과 나누기로 온전히 결심할 때입니다.

모자, 지팡이, 손수건은 놓고 오십시오. 집이 엉망이어도 괜찮습니다.¹⁰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는 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용기, 연민, 확신을 지니고 계속 나아가십시오!

그 길에서 벗어난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부디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여행하며, 우리가 강해지게 도와주십시오.

아직 모험을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위대한 영적 여정의 놀라운 경험들을 원한다면, 여러분의 위대한 모험에 발을 내딛으십시오! 선교사들과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의 후기 성도 친구와 이야기하십시오. 이 기이하고 경이로운 일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¹¹

출발할 시간입니다!

와서 우리와 함께합시다!

우리과 함께함으로써 여러분은 삶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더 높은 목적과 더 굳건한 가족 관계를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부디 와서 우리와 함께하십시오.

될 수 있는 최고의 자신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다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면,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면, 와서 우리와 함께하십시오!

이 기이하고 경이로우며 모험이 가득한 여정이 대체 어떤 것인지, 와서 보십시오.

이 길에서 여러분은 자신을 찾게 될 것입니다.

목적은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큰 모험이 가득하면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삶의 여정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구속주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중드립니다. 아멘. ■

주

1. J. R. R. Tolkien, *The Hobbit or There and Back Again* (Boston: Houghton Mifflin, 2001), 3.
2. *The Hobbit*의 부제
3. 모세서 3:17.
4. 욥기 38:4~7(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사야 14:12~13 (“하나님의 못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요한계시록 12:7~11(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참조.
5.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선택의지를 ‘하늘이 가장 값진 은사의 하나로 인류에게 부여한,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권리’로 표현했다.[‘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345쪽] 선택의지, 즉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권리’는 개개인이 ‘스스로 선택의지를 행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는 권능이다.(교리와 성약 58:28) 여기에는 선과 악 사이에서, 또는 선한 것과 더 선한 것을, 악한 것과 더 악한 것들 사이에서 선택의지를 행사하는 것과, 그 선택으로부터 오는 결과를 경험하는 기회가 모두 포함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닌 잠재력의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여 그분과 같이 되기를 바라신다. 개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선택을 내릴 선천적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만 한다. 선택의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그분의 계획에 너무나 핵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않으시고는 그들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실 수 없으시다.’ [David O. McKay, “Whither Shall We Go? Or Life’s Supreme Decision,” *Deseret News*, June 8, 1935, 1]” (Byron R. Merrill, “Agency and Freedom in the Divine Plan,” in *Window of Faith: Latter-day Saint Perspectives on World History*, ed. Roy A. Prete [2005], 162).
6. 『해리 포터와 비밀의 방』(작가: 제이 케이 롤링)에서 호그와트의 교장인 덤블도어는 어린 해리 포터에게 이와 매우 유사한 말을 한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훌륭한 조언이다. 예전에 나왔던 메시지에서도 이것을 인용한 적이 있으나, 다시 언급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7.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요한1서 3:2: 강조체 추가)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이해의 능력 밖의 일이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로마서 8:16~18: 강조체 추가)
8. 마태복음 28:16~20 참조.
9. Tolkien, *The Hobbit*, 33.
10. 누가복음 9:59~62 참조.
11. See LeGrand Richards, *A Marvelous Work and a Wonder*, rev. ed. (1966).



월터 에프 곤잘레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구주의 손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시든,
어떤 상황에도 맞서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든, 우리를
구하러 오실 것입니다.

약 2,000년 전, 구주께서는 팔복과 여러 복음 원리를 가르치신 뒤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구주께서 걸어가실 때 한 나병 환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 공경과 경의를 표하며,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에 구주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하셨습니다.¹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구주께서는 항상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배웁니다. 즉시 주어지는 축복도 있고, 시간이 걸리는 축복도 있고, 심지어 다음 생에 오는 축복도

있지만, 축복은 결국 오게 마련입니다.

그 나병 환자와 마찬가지로, 구주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인생에서 힘과 위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맞서고, 유혹을 극복하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견딜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구주의 생애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에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셨을 때, 견딜 힘이 커지셨다는 것입니다.²

그 나병 환자는 오만하거나 요구하는 듯한 태도로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에는 큰 기대와 함께, 구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진심 어린 소망이 묻어나는 겸손한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현재는 물론 언제나 우리의 지상 생활과 영생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영원한 관점을 지니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는 진지한 소망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³ 그것은 영생을 얻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줄 것입니다.

구주께 왔던 나병 환자가 어떤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지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나병은 신경과 피부에 영향을 미쳐 외모 변형과 장애를 일으킵니다. 또한, 이로써 엄청난 사회적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곁을 떠나서 사회에서 격리된 채 살아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신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부정하다고 간주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모세의 율법에 따라 나병 환자는 찢어진 옷을 입고, 걸을 때는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했습니다.⁴ 나병 환자는 병 들고 멸시당한 채 결국 폐가나 무덤에서 살아야 했습니다.⁵ 구주께 다가왔던 그 나병 환자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상처로 얼룩졌을지를 상상하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자신의 행동에서 비롯되었든 타인의 행동에서 비롯되었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 때문이든 그렇지 않은 상황 때문이든, 어떤 식으로든 종종 상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뜻을 구주의 손에 맡길 수 있습니다.

몇 해 전, 이들의 결혼식을 단 2주 앞둔 어느 날, 저보다 더 훌륭한 저의 반쪽이자 소중한 제 아내 줄마는 받아들이기 힘든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귀밑샘에서 낭종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이 빠르게 자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붓기 시작했고, 당장 까다로운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머릿속에 든 많은 생각이 아내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악성 종양은 아닐까? 수술 후 몸이 어떻게 회복될까? 안면 마비가 오지는 않을까?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 평생 얼굴에 흉터가 남지는 않을까? 종양이 재발하지는 않을까?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을까? 수술실에 누운 아내는 상심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그 순간에, 영은 아내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때 아내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내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분의 뜻이 자신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될 것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아내는 서서히 마취에 빠졌습니다.

나중에 아내는 일기에 다음과 같은 시적인 글을 적었습니다. “수술대에서 당신 앞에 굴복하여, 당신의 뜻에 저를 내맡긴 채 잠이 들었으니. 당신께서 제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심을 알기에 당신을 믿고 의지할 수 있음을 알았나이다.”

아내는 자신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름으로써 힘과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날 하나님은 아내를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는 신앙을 행사하여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 자녀 가브리엘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선지자에 의하면 하나님의 얼굴은 해보다도 밝고
그분의 머리털은 눈보다 더 희고
그분의 음성은 힘차게 흐르는 강물과 같다.
그분에 비하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음에 압도되는
듯하다.*

*비로소 나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더듬어 찾는다.*

*비로소 나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발견한다.⁶*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희망에 확신을 주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희망이라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세상은 그에게 아무런 해결책도, 심지어 위안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구주의 손길은 마치 그의 온 영혼을 어루만지는 듯 느껴졌을 것입니다. 구주께서 손을 대셨을 때, 특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리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병 환자가 얼마나 깊은 감사를 느꼈을지는 상상만 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이 일화에 따르면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습니다.⁷

우리 역시 사랑으로 치유하시는 구주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깨끗해지도록 돕고자 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참으로 큰 기쁨과 희망, 감사함이 우리 영혼을 적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시든, 아니면, 어떤 상황이라도 맞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든, 우리를 구하려 오실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뜻이 아닌 구주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아마도 구주께서 우리의 짐을 당장 없애 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엘마와 그의 백성에게 하셨듯이, 이따금 그런 짐이 가볍게 느껴지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⁸ 성약 덕분에 궁극적으로 그런 짐은 이생에서 또는 거룩한 부활 때에 들어 올려질 것입니다.⁹

구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이와 더불어 구속주의 신성한 본질을 이해할 때, 우리는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기 위해 보였던 그런 신앙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깨끗해지도록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께서 이 지상에 오시기 전에, 즉 우리가 범법에 빠지면 우리를 구조하겠다고 자원하셨을 때 바라셨던 바입니다. 또한 그분이 겟세마네에서 죄의 대가를 치르시며 인간으로서서는 헤아릴 수 없는 고통에 직면했을 때 원하셨던 바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탄원하시는 지금 원하시는 바입니다.¹⁰ 그렇기 때문에 구주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¹¹

구주께서는 우리를 치유하고 고양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런 능력을 지니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비로 충만하여 모든 것에서 우리를 돕고, 또 우리를 치유하고 고양하기 위해 육체와 영의 모든 고통을 친히 짊어지셨습니다.¹² 아빈아다이가 인용했듯이 이사야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실로 그는 우리의 비애를 담당하였고, 우리의 슬픔을 져겨들 ...

...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범법으로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임하였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¹³

이 개념은 다음 시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 나사렛 목수여
돌이킬 수 없이 부서진 이 마음 고쳐 주소서.
산산조각난 이 인생, 죽음의 목전에 섰나이다.
오, 고쳐 주시겠나이까, 목수여.”

기꺼이 도우시는 친절함 그 손으로
부서진 우리 삶을 그분의 달콤한 삶으로
보듬어 안으사, 새로운 창조 일어나
“만물이 새롭게”될 때까지.

“산산이 부서진 마음의 [실체]를,
소망과 야망과 희망과 신앙을
완전하게 이루어 내시는
오 나사렛 목수여!”¹⁴

어떤 면에서든 깨끗하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상심하셨다면, 여러분은 깨끗해질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서 나쁜 것이 나올 수 없음을 믿으십시오.

구주께서 “만물 아래로 내”려 가셨기 때문에,¹⁵ 우리 삶에서 부서진 모든 것이 고쳐질 수 있으며,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습니다.¹⁶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하며 그리스도께 나아갑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말하는 태도를 지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는 애정 어린 음성과 함께 그분의 치유하는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의 거룩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마태복음 8:2~3.
2. 마태복음 26:42.
3. 모사이야서 15:7 참조.
4. 레위기 13:45 참조.
5. See Bruce R. McConkie, *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1973], 1:174.
6. 또한 잠언 3:5~6; 교리와 성약 110:2~3; 모세서 1:2~10 참조.
7. 마태복음 8:3.
8. 모사이야서 24:8~15 참조.
9. 모사이야서 24:13~16 참조.
10. 교리와 성약 45:3~5 참조.
11. 마태복음 11:28.
12. 엘마서 7:12 참조.
13. 모사이야서 14:4~5.
14. George Blair, “The Carpenter of Nazareth,” in Obert C. Tanner, *Christ's Ideals for Living* (Sunday School manual, 1955), 22; 제프리 알 홀런드, 「고쳐야 하는 부서진 것들」,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71쪽.
15. 교리와 성약 88:6.
16. 골로새서 1:20; 또한 고린도후서 5:18~20 참조.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나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항상 바른길로 인도되며 속임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모든 분들, 특히 자라나는 세대인 초등회 어린이와 청남 청년 여러분에게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주님의 선지자이신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은 전 세계 청소년 특별 영적 모임에서 “이스라엘 시온 군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대다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넬슨 회장님이 여러분을 정확히 “이스라엘의 희망”이자 자라나는 세대, 그리고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미래라고 부르시는 것을 종종 듣곤 합니다.

젊은 친구 여러분, 제 가족의 이야기를 두 가지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백두 번째 달마시안

여러 해 전,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땅바닥은 물론이고 차고 문, 붉은 벽돌집 등 사방에 흰색 페인트가 튀어 있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현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페인트가 아직 마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페인트의 흔적은 뒷마당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뒷마당을 가 보니 다섯 살 난 제 아들이 손에 페인트 붓을 들고 우리가 키우던 개를 뒤쫓고 있었고 멋진 검은색 래브라도 리트리버의 몸은 거의 반이나 하얗게 되어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니?” 저는 감정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아들은 멈춰서서 저와 개와 페인트가 똑똑 떨어지는 붓을 차례로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가 영화에 나오는 검정 점박이 개들처럼 보였으면 좋겠어요. 백한 마리 달마시안 영화에서처럼요.”

저는 그 개를 사랑했습니다. 제 눈에 그 개는 완벽해 보였지만, 그날 제 아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줄무늬 새끼 고양이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로버 큰할아버지입니다. 그분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시골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로버 할아버지는 점차 노쇠해지셨습니다. 저희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아들들을 보여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오후에 장거리 운전을 해서 소박한 그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둘러앉아 그분께 제 아들들을 소개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아마 그 당시 다섯 살과 여섯 살이었던 두 아들이 밖으로 나가 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그로버 할아버지는 몸을 숙여 아이들에게로 얼굴을 가까이 들이미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거칠고 낯설어서인지 아이들은 조금 무서워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근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하렴, 밖에는 스킨크가 많이 있단다.” 그 말을 들은 저와 아내는 깜짝 놀랐고, 아이들이 스킨크의 냄새를 뒤집어쓰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두 아들은 놀기 위해 곧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중에 집으로 가려고 차에 타고서, “애들아, 스킨크를 보았니?”라고 제가 묻자, 한 아이가 답했습니다. “아니요, 스킨크는 못 봤지만, 등 쪽에 흰 줄무늬가 있는 검정 새끼 고양이는 봤어요!”

희대의 사기꾼

이 순진한 어린아이들이 삶과 현실에 관해 뭔가를 발견한 이 이야기에 우리는 미소 짓게 됩니다만, 그 이야기는 더 중요한 개념도 보여 줍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제 어린 아들은 멋진 반려견을 페인트 한 통과 붓으로 자신만의 상상 속 반려견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 아이들은 천진난만한 나머지 그들이 직면했던 스킨크의 고약한 냄새의 위협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어떤 위협을 마주했는지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기에



불행한 결과로 고통받을 수 있는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결과는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이들이 더 큰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일에서 이와 똑같은 문제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거나 있는 그대로의 진실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오늘날에는 우리를 온전한 진리에서 의도적으로 멀어지게 하려는 강력한 영향력이 존재합니다. 이런 기만과 거짓말은 악의 없는 잘못된 정체성이라는 문제를 넘어서 종종 미미하지 않은 대단히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거짓의 아버지인 사탄은 우리가 현상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하고, 영원한 진리를 무시하거나, 진리 대신 우리의 입맛에 더 맞는 무언가로 대체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전쟁을 일으켰으며”² 수천 년에 걸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믿도록 계획하고, 그렇게 하도록 설득하는 능력을 갖고있어 왔습니다.

그는 스킵크가 그제 새끼 고양이일 뿐이라거나, 페인트칠로 래브라도 리트리버를 달마시안으로 바꿀 수 있다고 인간을 설득하는 것으로 자기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제 경전에서 바로 이 원리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선지자 모세는 이와 같은 문제를 몸소 겪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심히 높은 산에 이끌려 올라갔[으며] ... 그는 얼굴을 마주하여 하나님을 보았고 그와 대화하였[습니다.]”³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의 영원한 정체성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모세는 필멸의 상태이며 불완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나의 독생자를 닮았나니, 나의 독생자는 ... 구원자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⁴

이 영광스러운 시현을 요약하자면, 모세는 하나님을 보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시현이 끝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 사탄이 와서 그를 유혹하여 이르되, **사람의 아들** 모세야, 나를 경배하라!”⁵ 모세는 용감하게 반문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보라, 나는 **하나님의** ... 아들이요 그의 독생자를 닮았나니, 네 영광이 어디 있기에 내가 너를 경배해야 하리요?”⁶

다시 말해,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속일 수 없도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라.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내게는 그분의 빛과 영광이 없도다. 그런데 왜 내가 너를 경배하거나 네 속임수에 빠져야 하느냐?”

이제 모세가 더 나아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탄아, 이곳에서 물러가라. **나를 속이지 말라.**”⁷

모세가 보여 준, 대적의 유혹에 맞선 강력한 대응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혹을 받는다고 느낄 때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도록 권유드립니다. 영혼의 적에게 이렇게 명령하십시오. “물러가! 너에게는 영광이 **없어**. 나를 유혹하거나 내게 거짓말하지 마! 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있어. 그리고 나는 항상 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테야.”

그러나 대적은 우리를 속이고 낙담시키려는 그의 파괴적인 동기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모세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그 대신 모세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영원히 잊게 하고자 했습니다.

마치 한바탕 유치하게 성질을 부리는 것처럼, “사탄[은] 큰 소리를 지르며 땅에서 고향치며 명하여 이르기를, 내가 독생자니 나를 경배하라”라고 하였습니다.⁸

되짚어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는지 들으셨습니까? “내가 독생자니 나를 경배하라!”

그 희대의 사기꾼은 사실상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나는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난 스크크가 아니라 단지 악의 없는 흰 줄무늬 검정 새끼 고양이일 뿐이야.”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불러 그분의 신성한 힘을 얻었습니다. 사탄이 떨기 시작하고 땅이 흔들렸으나, 모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음성은 확고하고 분명했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는 이 한 하나님만을 내가 경배할 것임이니, 이는 영광의 하나님이시니라.”⁹

마침내 그가 “모세의 면전에서 떠났습니다.”¹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순종한 모세를 축복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너는 복이 있도다. 이는 ... [네가] 많은 물보다 더 강하게 될 것임이니 ...

그리고 바라보라, 나는 참으로 네 생애 끝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¹¹

모세가 사탄에 저항한 일은 우리 각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깨우침을 주는, 생생한 본보기가 됩니다. 그것은 그가 여러분을 속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모세처럼, 여러분도 하늘의 도움이라는 은사를 축복받았습니다.

계명과 축복

모세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어떻게 이 하늘의 도움을 얻고, 속임수나 유혹에 굴복하지 않겠습니까? 이 경륜의 시대에 주님께서 직접 신성한 도움을 얻는 확실한 출처를 재확인해 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땅의 주민들에게 임할 재앙을 알고 있는 나 주는 나의 종 조셉 스미스 이세를 불러 하늘에서 그에게 말하였고, 그에게 명하였[느니라].”¹²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시작부터 끝을” 아시기에¹³, 우리 시대가 겪는 특이한 어려움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어려움과 유혹에 저항하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어려움과 유혹의 대부분은 대적과 그의 공격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에서 초래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을 통해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제가 방금 인용했던 성구를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나 주는 나의 종 [러셀 엠 넬슨 회장을] 불러 하늘에서 그에게 말하였고, 그에게 명하였[노라.]” 정말 영광스러운 진리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첫번째 시현을 시작으로 조셉 스미스에게 실제로 말씀하셨음을 엄숙하게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 시대에 넬슨 회장님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선지자들과 교통하셨으며, 이생에서는 행복으로, 다음 생에서는 영광으로 그분의 자녀들을 이끌도록 마련된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음을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오늘날 우리의 살아 계신 선지자에게 명하십니다. 그러한 예는 차고 넘칩니다. 더욱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뒷받침하는 복음 학습, 가정 복음 및 방문 교육을 대체한 성역, 성전의 절차와 의식에 주어진 조정 사항, 새로운 어린이와 청소년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저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연민에 놀라곤 합니다. 그분들은 지상에 다시 구주의 교회를 회복하고 우리 시대에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회복은 때가 찬 시대의 고통하는 때가 낡는 악한 영향력을 없애 줍니다.

간악함은 결코 행복이 아님

우리 선지자가 받은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간교한 자의 영향력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되는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는 열쇠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주어진 단순한 방식입니다. 의로움과 계명에 대한 순종은 축복을 가져오고, 축복은 우리 삶에 행복과 기쁨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대적은 모세를 속이려고 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을 속이고자 합니다. 그는 항상 자신이 아닌 다른 무언가인 체하며, 늘 자신의 참모습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순종하면 삶이 비참하게 되고 행복을 빼앗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그가 속이고자 꾸민 그 밖의 어떤 술책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그는 불법 마약과 음주가 불러올 수 있는 파괴적인 결과를 숨기고, 음주가 기쁨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는 우리의 정서를 저하시키는 포장된 현실과 불필요한 비교를 포함하여 소셜 미디어에 존재하는 다양한 부정적 요소에 우리를 물들게 합니다. 그에 더하여, 그는 온라인에서 다른 해롭고 어두운 콘텐츠들을 감쪽같이 위장합니다. 여기에는 외설물, 다른 이들을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사이버 폭력, 우리 마음속에 의심과 두려움을 조장하기 위해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는 교활하게 속삭입니다. “그저 나를 따라오렴. 그러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수 세기 전에 몰몬경의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말은 특히 우리 시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간악함은 결코 행복이 아니었느니라.”¹⁴ 우리가 사탄의 속임수가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자 하고 우리에게서



러셀 엠 넬슨 회장

크고 둘째 되는 계명

현재의 기쁨과 미래의 영광을 훑쳐 내고자 하는 이의 거짓과 영향력을 알아차리고 이겨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충실하고 방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만이 진리를 분별하고 자신의 종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영은 진실을 말하며 거짓말하지 아니[합니다]. ... 이러한 것들이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명백히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 이는 하나님께서 옛 선지자들에게도 이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¹⁵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도이며, 이스라엘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흔들리겠습니까? “겁을 내어 피하겠습니까? [아닙니다!] ... [우리는] 정성 다해 수호하려 영원토록 굳게 [설 것입니다.]”¹⁶

저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전합니다. 그분의 무한하고 영원한 희생을 통해 우리가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과 진리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간증합니다. 그분의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항상 바른길로 인도되며 속임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러셀 엠 넬슨, “이스라엘 시온 군대”(전 세계 청소년 영적 모임, 2018년 6월 3일), HopeofIsrael. ChurchofJesusChrist.org 참조.
2. 교리와 성약 76:29.
3. 모세서 1:1~2.
4. 모세서 1:6.
5. 모세서 1:12; 강조체 추가.
6. 모세서 1:13; 강조체 추가.
7. 모세서 1:16; 강조체 추가.
8. 모세서 1:19.
9. 모세서 1:20.
10. 모세서 1:22.
11. 모세서 1:25~26.
12. 교리와 성약 1:17.
13. 아브라함서 2:8.
14. 엘마서 41:10; 강조체 추가.
15. 야곱서 4:13.
16. “의와 진리 지키기에”, 『찬송가』, 141장.

우리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돕는 일에서 가장 큰 기쁨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회장 양편에서 이스라엘의 집합을 돕고, 여러분의 가정을 강화하며,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 하고 계신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자로서 생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¹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가지 큰 계명을 잘 알고 계시고 또 기쁘게 이를 지키고 계십니다.²

지난 육 개월 동안, 넬슨 자매와 저는 중미와 남미 대륙, 태평양의 여러 섬, 그리고 미국의 여러 도시를 다니며 수천 명의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 여정에서

저희의 바램은 여러분의 신앙을 복돋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여행에서 돌아올 때면 저희가 만난 회원들과 친구들로 인해 오히려 저희의 신앙이 강화된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최근에 했던 경험 중에서 특별히 의미가 있었던 세 가지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5월에, 넬슨 자매와 저는 게릿 더블유 공 장로님 내외와 함께 남태평양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있었을 때, 저희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라는 도시에 있는 두 이슬람교 사원의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곳은 두 달 전에 끔찍한 폭력 사태로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머무는 동안 넬슨 회장 부부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 있는 두 이슬람 사원의 종교 지도자들과 만났다.

예배를 드리고 있던 무고한 사람들이 총에 맞아 숨진 곳이었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신앙을 가진 이 형제들에게 우리는 조의를 표했고 종교의 자유에 대한 상호 공동의 이해와 다짐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이슬람교 사원을 재건하기 위해 자원봉사 활동과 약간의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 이슬람교 지도자들과 함께한 모임은 따뜻한 형제애로 가득했습니다.

8월에 벨슨 자매와 저는 쿠엔틴 엘 쿡 장로 내외와 함께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우리 교회 회원이 아니었으며 우리 후기 성도 자선회에서 제공한 휠체어로 삶이 더 운택해진 분들이었습니다. 휠체어로 인해 이동이 더욱 용이해진 분들이 기쁨에 찬 감사를 표하는 모습은 참으로 고무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소중한 순간은 이곳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일은 열네 살의 한 청년이 제 생일에 보내 준 특별한 편지에서 시작됩니다. 편위상 그 청년을 메리라고 부르겠습니다.

메리는 자신과 제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에 대해 썼습니다. “회장님은 자녀가 열 명이시죠. 저희 집도 자녀가 열 명이예요. 회장님은 중국어를 하시죠. 우리 가족은 저를 포함해 일곱 명의 자녀들이 중국에서 입양되었어요. 그래서 중국어가 저희 모국어예요. 회장님은 심장 전문의시죠. 제 여동생은 심장 수술을 두 번 받았어요. 회장님은 두 시간짜리 교회 모임이 좋으시죠. 저희도 두 시간짜리 교회 모임이 좋아요. 회장님은 절대음감이시죠. 제 남동생도 절대음감이에요. 그 아이도 저처럼 눈이 보이지 않아요.”

메리의 편지를 읽으며 저는 그 아이가 지닌 훌륭한 영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부모가 보여 준 헌신 때문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후기 성도들은 언제나 다른 이들을 돕고, 북돋아 주고, 사랑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주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기 원하며 “기꺼이 서로의 짐을 [지며], ...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 슬퍼하고, ...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하고자 합니다.³

그들은 진정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에 따라 살고자 노력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 마음을 **다른 사람들의 복리로** 향하게 하시며, 이는 아름답고도 고결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반복됩니다.

매년, 그리고 매일 전 세계 도처에서 후기 성도들이 행하는 봉사의 양을 계산하기란 불가능하겠지만, 하나의 조직으로서 교회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남성과 여성, 소년과 소녀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 행하는 선한 행위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교회의 인도주의적 프로그램은 1984년에 발족되었습니다. 그런 뒤 동아프리카에 탁틴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기 위해 교회 전체 회원이 금식에 참여했습니다. 교회 회원들은 그날 행한 단 하루의 금식으로 약 70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그런 후 어떻게 하면 그 신성한 기금이 가장 잘 쓰일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엠 러셀 벨라드 장로님과 글렌 엘 페이스 형제님이 에티오피아로 파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후에 후기 성도 자선회로 알려진 조직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후기 성도 자선회는 전 세계에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기 위한 지원 기금으로 2조 원 이상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 지원은 종파, 국적, 인종, 성적 성향, 성별, 또는 정치적 신념과 관계없이 수혜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을 돕기 위해,



우리는 고대 금식의 법⁴을 사랑하며 그 법에 따라 생활합니다. 우리는 배고픈 이들을 돕기 위해 배고픔을 겪습니다. 우리는 궁핍한 이들을 돕기 위해 매달 하루 음식을 취하지 않고 그 음식에 해당하는 비용을 (그리고 그 이상을) 헌금합니다.

1986년에 제가 처음으로 서아프리카를 방문했던 때를 저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가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들은 물질적 부라는 관점에서는 가진 것이 없는 분들이었지만, 대부분이 깨끗한 흰옷을 입고 왔습니다.

저는 스테이크 회장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감독들이 자신이 돌보는 회원들을 잘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만일 회원들이 하루에 두 끼를 먹을 수 있다면 도움이 필요 없지만, 하루에 한 끼 이하를 먹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주변 가족의 도움으로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감독은 금식 헌금을 통해 식료품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보통 그들이 쓰는 금식 헌금 비용보다 그들이 기부하는 금식 헌금의 양이 더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은 금식

헌금은 금식 헌금이 모자란 다른 지역의 회원들에게 보내진다고 했습니다. 그 충실한 아프리카의 성도들은 세계 금식의 법과 그 영이 지닌 힘에 대하여 훌륭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연민과 이해심을 느낍니다.⁵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는 모두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서에 나오는 다음의 권고를 따릅니다.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⁶

또한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된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려 노력합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느니라] ...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⁷

구주의 이러한 가르침을 교회가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 보여 주는 예를 몇 가지만

들겠습니다.

굶주린 자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124개의 감독의 창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년 약 사십만 건의 식료품 주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들에게 전달됩니다. 이 창고가 운영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감독과 지부 회장이 교회의 금식 헌금을 사용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회원들에게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아는 비단 교회 회원들만이 겪는 어려움이 아니며,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엔의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영양 결핍 상태에 있는 인구수는 8억 2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전 세계 인구 아홉 명 중 한 명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⁸

참으로 심각한 통계 수치입니다! 여러분의 기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여러분의 관대함 덕분에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토록 필요로 하던 식량, 의복, 임시 거처, 휠체어, 의약품, 깨끗한 물 등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질병이 오염된 물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인도주의적 활동은 현재까지 76개국에서 수백 개의 지역사회에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콩고 민주 공화국에서 있었던 루푸타 프로젝트가 좋은 예입니다. 인구 십만 명 이상이 사는 이 도시에는 수돗물이 없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안전한 식수 수원을 찾아 먼 거리를 걸어야 했습니다. 30여 킬로미터 거리의 산속에서 샘물을 하나 발견하기는 했으나, 그 도시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물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인도주의 선교사들은 이 문제에 대해 알게 되자 루푸타의 지도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자재를 공급해 주고 파이프관을 통해 도시까지 물을 공급하는 법을 교육했습니다. 루푸타 지역 시민들은 삼 년에 걸쳐 바위와 정글로 뒤덮인 곳에 일 미터 깊이의 도랑을 팠습니다. 함께 노력한

끝에 신선하고 깨끗한 물이 도시 전체에 제공되는 기쁜 날이 마침내 도래했습니다.

교회는 또한 내전이나 종교적 탄압 또는 자연재해로 생겨난 난민들을 돕습니다. 현재 칠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집과 고향을 떠나 피신해 있습니다.⁹

2018년 한 해 동안에만 해도, 교회는 56개국에 있는 난민들에게 긴급 보급품을 제공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회원이 시간을 내어 난민들이 새로운 지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새로운 터전을 세우려 노력하는 이들을 돕기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미국 테저렛 인터스트리 매장에 후하게 기부해 주시는 덕분에 매년 수백만 킬로그램의 의복을 모아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지 감독들도 어려움에 처한 회원들을 돕기 위해 이 막대한 물자를 사용한 것만으로도, 이 물자의 대부분은 다른 자선 단체들에 기부되어 전 세계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교회의 도움으로 35개국에서 삼십만 명이 시력을 보호하고 되찾았으며, 39개국에서 수천 명의 산모와 영유아가 신생아 관리를, 그리고 수십 개국에서 오만 명이 이상이 휠체어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비극적인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대응하고 도움을 제공하는 단체들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허리케인이 불어닥치기 전에, 해당 지역 교회 지도자들과 직원들은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교회는 세계적으로 100여 개의 재난 구호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허리케인, 산불, 홍수, 지진 및 기타 재난 피해자들을 도왔습니다. 노란 헬핑핸즈 조끼를 입은 우리 교회 회원들은 여건만 된다면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이들을 돕기 위해 수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움직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보여 주신 이런 봉사가 바로 성역의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언급한 활동과 프로젝트들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복지 및 인도주의 원조 중 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¹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분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모범적인 삶, 여러분의 관대하고 후한 나눔의 정신, 그리고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로 인해, 여러 지역 사회 및 정부 지도자들이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해 마지않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¹¹

교회 회장이 된 이후로, 얼마나 많은 대통령, 수상, 대사들이 자국민이 받은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 진심으로 제게 감사를 표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충실한 우리 교회 회원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충직한 시민으로서 자국에 가져다준 힘과 역량에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는 또한 세계의 지도자들이 제일회장단을 방문하여 우리 교회가 그들 국가에 설립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표하는 것에 놀라곤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후기 성도들이 굳건한 가족과 지역 사회를 형성하는 일을 도와 그들이 사는 곳이 어디든 다른 이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살고 있든, 우리 교회 회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며 모든 인류가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서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열렬히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아름다운 세상 어디에 살고 있던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돕는 일에서 가장 큰 기쁨을 느낍니다.

다른 이들을 돕는 것, 즉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다른 이들을 돌보기 위해 마음을 다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입니다. 특히 남을 돕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그 일이 우리의 안락함을 깨고 불편을 감수하게 하는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크고 둘째 되는 계명에 따라 생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를 때 얻는 열매의 살아 있는 표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압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교회는 그 신성한 목적을 성취하려 이 후기에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 드립니다. 아멘. ■

- 주
1. 모로나에서 7:48 참조.
 2. 마태복음 22:37~39; 누가복음 10:27 참조.
 3. 모사야서 18:8~9.
 4. 이사야 58:3~12 참조.
 5. 교회 초기 역사에서 용감한 개척자들 또한 굶주리고, 거처가 일정하지 않았으며, 괴롭힘을 당했다.
 6. 신명기 15:11.
 7. 마태복음 25:35~36, 40.
 8. Se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and others, *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2019*, 6, fao.org/3/ca5162en/ca5162en.pdf.
 9. See "Worldwide Displacement Tops 70 Million, UN Refugee Chief Urges Greater Solidarity in Respons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serve.org website, June 19, 2019, unhcr.org/en-us.
 10. 교회의 자선 구호 노력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보려면 ChurchofJesusChrist.org/topics/welfare; LatterDaySaintCharities.org; facebook.com/LatterDaySaintCharities; JustServe.org 를 방문한다.
 11. "우리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도 팸플릿은 우리가 생활하며 보이는 선한 영향력과 모범입니다." (고든 비 헝클러, 「양을 찾고 먹이라」,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121쪽, 번역 수정)

거룩함과 행복의 계획

개인적인 거룩함을 키울 때 더 큰 행복이 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행복을 추구할 때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권능이 저와 함께하기를 간구해 왔습니다. 이미 충분히 행복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더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을 마다할 사람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그 제안이 지속되는 행복을 보장한다면 누구라도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신은 이 세상에 사는, 그리고 이제껏 살았고, 앞으로 살게 될 하나님의 모든 영의 자녀에게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 제안을 종종 행복의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선지자 엘마는 죄의 비참함에 빠진 아들을 가르치면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엘마는 자기 아들에게나, 혹은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자녀에게도 간악함은 결코 행복이 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¹

엘마는 아들에게 행복을 향한 유일한 길은 거룩함을 키우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거룩함을 더 키울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²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니고 지속적으로 회개하며, 성약을 지키므로써, 우리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유지하기를 갈망하는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이 개인적인 거룩함을 키울 때 더 큰 행복이 온다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도움으로써 여러분이 그 믿음에 따라 행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더 거룩하게 되는 은사를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관해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경전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할 때,³ 우리의 순종을 보일 때,⁴ 회개할 때,⁵ 주님을 위해 희생할 때,⁶ 성스러운 의식을 받고, 또 주님과 맺은 성약을 지킬 때,⁷ 경결하게 되고 더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거룩함의 은사를 받을 자격을 갖추려면 겸손,⁸ 온유함,⁹ 인내¹⁰가 필요합니다.

저는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했던





한 가지 경험을 통해 더 큰 거룩함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는 그 안에서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관해 거의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그 건물에 적힌 “주님께 거룩함”과 “주님의 집”이라는 글귀가 보였습니다. 저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뒤따라 성전에 걸어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합당함을 증명하는 성전 추천서를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추천서를 확인하는 형제님은 부모님이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저는 혼자 넓은 공간으로 들어갔는데, 모든 것이 희고 빛났습니다. 제 위로 한참 솟은 천정을 올려다보았는데, 마치 열린 하늘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전에 이곳에 온 적이 있다는 또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주 부드러운 음성을 들었는데, 제 음성은 아니었습니다. 그 부드러운 음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전에 이곳에 와 본 적은 없단다. 네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한 순간이 기억나는

것이지. 너는 이와 비슷한 성스러운 곳에 있었다. 너는 네가 서 있는 곳으로 구주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느꼈던 거야. 네가 그분을 무척 뵈고 싶어했기에 행복을 느꼈던 거란다.”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한 그 경험은 잠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평안과 기쁨, 잔잔한 행복을 가져다줍니다.

저는 그날 많은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중 하나는 성신이 고요하고 작은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에 영적인 평안함이 있을 때, 저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신을 통해 저는 제가 더 거룩해지고 있다는 확신과 함께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처음 갔을 때 느꼈던 행복을 항상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거룩함이 자라 좀 더 구주처럼 될 때 오는 행복의 기적을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저는 구주를 믿는 충만한 신앙을 통해 행복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몇몇 사람의 병상을 방문했습니다.

그중 한 형제는 가족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저와 제 아들이 방에 들어갔을 때 그 형제와 아내는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부부를 알고 지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삶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그들은 연명 치료를 하지 않기로 함께 결정했습니다. 그가 우리와 얘기할 때 차분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에 대해, 그리고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에게 미친 복음의 정결하게 하는 영향력에 감사를 표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수년간 성전에서 봉사했던 행복한 시절에 관해 얘기했습니다. 이 형제의 요청에 따라 제 아들이 성별된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제가 기름 부음을 인봉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그가 곧 구주를 대면하게 될 것이라고 그에게 말해 주라는 분명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가 행복과 사랑을, 그리고 구주께서 그의 삶을 받아들이심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그에게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떠날 때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케시에게 사랑한다고 전해 주세요.” 제 아내 캐슬린은 여러 해 동안 여러 세대에 걸쳐 그 형제의 가족들에게 구주께 나아오고,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키며, 거룩함이 자란 결과로 오는 행복을 누릴 자격을 갖추라는 구주의 권유를 받아들이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는 몇 시간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지 몇 주 뒤에 그의 아내가 우리 부부에게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이야기를 나누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기쁘게 말했습니다. “제가 슬픔과 외로움을 느끼리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너무 행복해요. 이래도 괜찮은 건가요?”

그녀가 남편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고, 두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봉사했는지 알았기에, 저는 그녀의 행복감은 약속된 은사이며, 이는 그녀가 충실한 봉사료 더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온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 행복의 밑바탕에는 그녀의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 중에는 이런 의문이 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충실한 이들에게 약속된 평안과 행복을 왜 나는 느끼지 못할까? 너무나 힘든 역경 속에서도 충실했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아.”

선지자 조셉 스미스도 이런 시험을 겪었습니다. 그는 미주리주 리버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상황이 나아지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는 주님께 충실했고 그의 거룩함도 자라고 있었으나 행복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두 필멸의 시험을 거치며 어느 시점에, 또 어쩌면 오랫동안 필요할 수도 있는 인내의 교훈을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주님의 충실한 선지자에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는 이러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덩이에나 살인자들의 손에 던져지고 사형이 내게 선고될지라도, 내가 깊은 물에 던져질지라도, 몰아치는 큰 파도가 너에 대하여 음모를 꾸밀지라도, 맹렬한 바람이 네 원수가 될지라도, 여러 하늘이 흑암을 몰아오고 모든 원소가 힘을 합쳐 길을 가로막을지라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옥의 바로 그 턱이 입을 크게 벌려 너를 삼키려 할지라도, 내 아들이, 이 모든 일이 네게 경험어 되고 네 유익이 될 줄 알라.

인자는 그 모든 것 아래로 내려갔었느니라. 네가 그보다 크냐?

그러므로, 너의 길을 계속 가라. 그리하면 신권은 너와 함께 머물러 있으리라. 무릇 그들의 한계는 정하여져 있어 지나갈 수 없느니라. 너의 날은 알려져 있고 너의 해는 더 짧게 헤아림을 받지 아니할 것인즉, 그러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영원무궁토록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¹¹

주님께서는 욥에게도 똑같은 교훈을 주셨는데, 욥은 속죄를 통해 더 거룩하게 되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경전에 나오는 욥에 관한 소개를 통해 우리는 그가 거룩한 사람이었음을 압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¹²

그 뒤에 욥은 재산과 가족, 심지어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욥이 더 큰 역경을 통해 더 큰 거룩함을 얻고, 이를 통해 더 큰 행복을 얻을 자격을 갖추게 되었음을 의심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욥에게는 거룩함이 비참함을 가져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욥을 꾸짖으시며, 조셉 스미스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다음 교훈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욥이 자신의 비통한 상황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잇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 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¹³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불공평하다고 말했던 일을 뒤우친 욥은 더 높고 더 거룩한 방법으로 자신의 시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회개했던 것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¹⁴

욥이 회개하고 이를 통해 더 거룩하게 된 후, 주님은 그가 잃었던 것 이상으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욥에게 가장 큰 축복은 역경과 회개를 통해 거룩함이 더 커졌다는 점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여성 동안 더 큰 행복을 누릴 자격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저 간구한다고 더 큰 거룩함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도록 필요한 일을 행할 때 옵니다.

넬슨 회장님은 더 큰 거룩함을 향해 성약의 길을 따라가는 방법에 관해서 제가 보기에 최고의 권고를 해 주셨습니다. 회장님은 그 길을 가리키며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매일 회개할 때 임하는 강화하는 권능을, 매일 여러분이 조금 더 잘하게 되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그 권능을 느껴 보십시오.

회개하기를 선택할 때, 우리는 변화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주께서 우리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존재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분을 통해 오는 구속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선택합니다. 회개하기를 선택할 때,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넬슨 회장님은 이어서 더 거룩하게 되려 노력하는 우리를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 지금 이 시기에 완전함에 이르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분명 우리가 점점 더 정결해지기를 기대하십니다. 매일 회개할 때 정결함에 이르게” 됩니다.¹⁵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님도 오래전 연차 대회 말씀을 통해, 거룩함을 키우는 방법뿐 아니라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제가 더 분명히 이해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성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항상 성신을 동반할 수 있을 정도로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의 일을 영원의 관점에서 보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¹⁶

옥스 회장님의 대답은 사랑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더 큰 신앙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켜 그분을 매일 기억하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더 큰 신앙은 우리가 매일 그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할 때 옵니다.

찬송가 “거룩함도 더욱”에는 더 거룩하게 되기 위해 도움을 간구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작사가는 우리가 구하는 거룩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후에 사랑의 하나님이 시간이 흐르면서 허락하시는 은사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순결함도 더욱
이길 힘도 더욱
세상 고통 잊고
천국 그리움
왕국에 적합한
성품도 더욱
주님 지닌 축복
더 주옵소서.¹⁷

개인적인 상황이 어떻든, 본향으로 가는 성약의 길에서 어디에 있든, 더 큰 거룩함을 바라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때, 우리의 행복이 커질 것입니다. 응답은 천천히 올 수도 있지만, 꼭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게 그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조셀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였으며,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오늘날 우리의 살아 계신 선지자임을 간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살아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족과 함께 당신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구주께서는 그곳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당신을 따르라고 권유하십니다. 그분들께서 그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엘마서 41:10 참조.
2. 엘마서 42:4~16 참조.
3. 사도행전 26:18; 이터서 4:7 참조.
4. 교리와 성약 88:34 참조.
5. 제3니파이 27:19~20 참조.
6. 교리와 성약 132:50 참조.
7. 교리와 성약 97:8 참조.
8. 힐라맨서 3:35 참조.
9. 교리와 성약 101:1~5 참조.
10. 요한1서 3:2~3; 교리와 성약 112:13 참조.
11. 교리와 성약 122:7~9.
12. 욥기 1:1.
13. 욥기 38:3~7.
14. 욥기 42:1~6.
15. 러셀 엠 넬슨, 「우리는 더 잘할 수 있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리아호나』, 2019년 5월호, 67, 68쪽.
16. 델린 에이치 옥스, 「영성」, 『성도의 빛』, 1986년 1월호, 66쪽.
17. 「거룩함도 더욱」, 『찬송가』, 60장.





한스 티 보음 장로
칠십인 정원회

알고, 사랑하고, 성장하기

우리 모두 이 훌륭한 성역 사업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을 이해하여 좀 더 그분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에 태버내클 합창단은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그 멋진 행사 준비에 참여하게 되어 합창단의 공연을 두 번이나 관람했습니다.

공연을 보면서, 이러한 규모의 합창단을 움직이려면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손쉽게 운반할 수 있는 바이올린이나 트럼펫, 혹은 다른 악기들에 비해 더 커다란 징은 운반하기가 어렵고 아마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징이 공연에 얼마나 사용되는지 보니, 몇 차례 울리는 것이 다였습니다. 반면 징보다 작은 다른 악기들은 음악회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없으면 연주가 달라질 테니 대양을 건너 커다란 징을 운반하는 노력은 꼭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것처럼, 공연에서 아주 작은 역할을 맡을 정도의 능력을 지녔을 뿐이라고 느낄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소리에 따라 음악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든 악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학교에서 쉽게 배우고 공부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술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계와 시공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돌보거나 보호하거나,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다양한 색채와 의미를 가져오는 데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기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분들, 누구에게도 중요하지 않다거나,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분들께, 혹은 세상의

꼭대기에 있다고 느끼는 분들께,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 있다고 느끼는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길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 중에는 과중한 짐에 짓눌려 자신이 그 길 위에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 어둠을 벗어 버리고 빛 가운데로 나오시길 권유합니다. 복음의 빛은 마스함과 치유를 제공해 줄 것이고, 여러분이 진정 누구인지, 그리고 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해 줄 것입니다.

우리 중 일부는 금지된 길에서 서성이며 그곳에서 행복을 찾자 해매 왔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제자의 길을 걷고 당신께로 돌아오라고 권유하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¹

그 길은 무엇입니까? 그 길은 서로에게 성역을 베풀으로써 우리가 누구인지 이해하도록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세계 성역이란 신성한 사랑을 행사하고 베푸는 것입니다.² 그렇게 하여 우리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회개하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환경을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방향을 바꾸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을 조금 더 닮아 갑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그들이 어떤 부분을 더 잘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삶에서 필요한 변화를 이루어 내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데 필요한 원동력은 사랑받는 환경이 조성될 때 생겨납니다.

그렇게 할 때 회개는 정련되어 가는 매일의 과정이 되며 여기에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판단을 너무 급히 하고 경청은 너무 더디게 했던 상황들을 기억하고 있으며 여전히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개인 기도를 드리는 동안 저는 회개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라는 애정 어린 하늘의 권고를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제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나중에는 제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친구들이 만들어 준, 사랑이 깃든 환경은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부분을 더 잘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로에게 알려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서로를 사랑하고 성역을 베풀어야 하며 그렇게 할 때 기꺼이 변하고자 하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구주의 재림이 오기 전 세계사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의 역할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여러분이 홀로 있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이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알려 달라고 간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응답은 아마도 단계적으로 주어질 것이며 그 후 우리가 성약과 성역의 길에 더욱 굳건히 서 있을 때 더욱 분명히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조셉 스미스가 “언쟁과 의견의 혼돈 속에” 있으면서 마주한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조셉의 기록에 나와 있듯이, 그는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든 교파 중에 누가 옳은가? 아니면 그들 모두가 다 그릇된 것인가? 만일 그들 중 어느 하나가 옳다면, 그것은 어느 것이며, 나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³



조셉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는⁴ 야고보서에 나오는 지식에 기대어, 마침내 “하나님께 구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⁵

더 읽어 보면 “[그]가 그러한 시도를 한 것은 [그]의 평생에 처음이었는데, 이는 [그]의 모든 염려 중에서도 [그]가 아직 소리 내어 기도하기를 시도한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⁶

그래서 우리도 처음으로 이전에는 결코 해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조셉의 그런 시도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 결과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또 우리가 정말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

더욱 분명한 이해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계속 읽어 보면, 조셉이 어린 십대 시절에 그에게 “친구가 되어 주고 친절히 [그]를 대해 주[었어야 했을] … 사람들에게서서 핍박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⁷ 이로써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반대를 마주하게 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오케스트라의 일부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회개의 길이 어려워 보인다면, 우리가 계속 노력해 나갈 때 우리의 어깨의 짐이 없어지고 다시 빛이 찾아올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당신께 손을 내밀 때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진 다음 일어설 수 있으며, 그분은 우리의 무릎에서 흠을 털어 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구급상자에는 우리의 상처를 모두 덮어 줄 만큼 큰 반창고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자애, 즉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고도 부르는 완전한 사랑이며⁸ 이 사랑은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성역을 베푸는 가정에 필요합니다. 그 사랑을 통해 마음이 변화될 것이며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망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 사랑은 서로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분의 교회의 회원으로





엠 러셀 벨라드 회장
십이사도 정의회 회장 대리

대하기 위해 필요하며, 이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 오케스트라에 모든 악기를 포함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우리는 구주께서 다시 오실 때 거룩한 하늘의 합창단과 함께 영광스러운 공연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을 환하게 비추고 빛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빛입니다. 사람들은 그 빛을 인식하고 이끌릴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 “와서 보고, 와서 도우며, 와서 떠나지 않고 남[도록]”⁹ 이끌어 줄 선교 사업과 같은 것입니다. 부디, 이 위대한 사업과 우리의 역할에 대한 증거를 받으면, “나는 시현을 보았기 때문이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었기에, 나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라고¹⁰ 선언했던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함께 기뻐합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며, 또한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간증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실패를 바라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명예롭게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 훌륭한 성역 사업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을 이해하여 구주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더욱 그분을 닮은 모습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주
1.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48쪽 참조.
2. 러셀 엠 벨슨, 「하나님의 사랑」, 『리아호나』, 2003년 2월호, 12~17쪽 참조.
3. 조셉 스미스—역사 1:10.
4. 야고보서 1:5; 또한 조셉 스미스—역사 1:11 참조.
5. 조셉 스미스—역사 1:13.
6. 조셉 스미스—역사 1:14.
7. 조셉 스미스—역사 1:28.
8. 모로나이서 7:47.
9. 디이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선교 사업: 마음속 소중한 것을 나누는 일」, 『리아호나』, 2019년 5월호, 17쪽.
10. 조셉 스미스—역사 1:25

영이 육신을 다스리게 함

영원한 영적인 본성을 강화하고 악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자제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이생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작년 10월 연차 대회가 다가올 무렵에, 저는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께서 1918년 10월 3일에 받으신 영의 세계에 관한 시현의 100주년을 기념하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번역을 위해 말씀을 제출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저의 사랑하는 영원한 동반자 바버라가 필멸의 시험을 마치고 영의 세계로 떠났습니다.

며칠이 몇 주가 되고 몇 개월이 되어 이제 아내가 세상을 떠난지 1년이 지나고 보니, 다음 경전 구절에 대해 더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너는 사랑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그리하여 너는 죽는 자들을 잃음을 슬퍼할지니.” 바버라와 저는 67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랑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잃음을 슬퍼”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체험을 통해 여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정말 사랑하며, 그녀가 무척이나 그립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기 전에는 그 사람의 손길에 대해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내가 항상 바쁘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계속해서 가족과 교회와 지역 사회에 할애해야 했는지는 미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천 번씩 반복된 매일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리 가정이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 가족 중 누구도 그녀가 목소리를 높이거나 불친절한 말을 하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많은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녀가 내린, 일곱 자녀의 어머니가 되는 육체적으로 고된 선택에 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정 주부가 되는 것이 그녀가 유일하게 원하는 일이었으며, 모든 면에서 그녀는 탁월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저와 자녀들의 일에 다 신경을 쓸 수 있었는지 종종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식사 준비 하나만 해도 벅찬 일이었습니다. 매주 우리 가족이 내놓은 산더미 같은 빨래를 하고 각 아이들에게 맞는 사이즈의 신발과 옷을 챙기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희 모두는 저마다 중요한 이런저런 문제에 관해 그녀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 문제들이 저희에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녀에게도 중요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녀는 위대했습니다.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친구로서, 이웃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딸로서 말입니다.

이제 그녀가 떠나고 나니, 그녀의 생의 마지막 몇 개월 동안 제가 사무실에서 집으로 돌아가면 그녀 옆에 앉아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선택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가 좋아하는 뮤지컬들의 마지막 장면을 몇 번이고 다시 보기를 반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알츠하이머 때문에 그걸 전날 오후에 이미 보았다는 사실을 그녀가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손을 잡고 있던 시간들의 기억이 제게 너무나 소중한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족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자녀와 부모 여러분, 서로에게 다가가고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저처럼 여러분도 어느 날 일어나 보면 그 중요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음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와 좋은 추억, 봉사, 그리고 넘치는 사랑으로 가득 찬 하루하루를 함께

살아가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관해 더욱 골똘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의 아들 코리엔톤을 가르치면서 그것을 “위대한 행복의 계획”이라고 불렀습니까.²

그 계획을 생각할 때 계속 떠오르는 단어는 “재회”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세대 위에 세대가



하나님의 권속 안에서 가족으로서 영원히 재결합한다는 위대하고도 영광스러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 생각은 세계 위안을 주고 제가 바버라와 다시 함께하리라는 확신을 줍니다. 비록 생애 막바지에 그녀는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었지만 그녀의 영은 강하고 고결하고 순수했습니다. 그녀는 그날이 오면 자신감과 평안한 확신에 가득 차 “하나님의 기쁜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자신을 준비했습니다.³ 하지만, 이틀 후에 아흔 하나가 되는 저는 ‘과연 내가 준비가 되었을까? 내가 다시 그녀의 손을 잡기 위해 해야 하는 모든 일에 충실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여전히 듭니다.

삶에서 가장 단순하고도 기본적인 확실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죽게 되리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든 젊어서든, 쉽게든 혹은 어렵게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사랑받든 외롭든,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수년 전 고든 비 헝클리 회장님은 이에 대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결혼하고 합당하게 생활하면, 죽음이라는 확실성과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계는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은 얼마나 달콤하며, 또 그로 인한 평안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⁴

저는 분명 합당하게 결혼했습니다. 그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헝클리 회장님에 따르면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또한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⁵

오늘날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꽤 혼란스러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그분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에 관하여 누구든지 참된 진리나 그릇된 개념을 표명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에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교회의 회원들은 영원히 참된 복음 원리를 가지고 있기에,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 더 잘 준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압니다.

제가 태어나기 불과 몇 개월 전, 당시 사도이셨던 저의 조부 멜빈 제이 벨라드 장로님은 일부 사람들이 합당한 생활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혼을 위한 투쟁」이라는 이 말씀에서 그분은 우리의 육신과 영원한 영 사이에 벌어지는 계속되는 전쟁에 관해 중점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의 적”인 사탄이 “육신의 욕망, 욕구, 그리고 야망”을 이용해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고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겪게 될 가장 큰 갈등은 ... 자기 자신과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⁶ 그러므로 주된 전쟁은 우리의 신성하고 영적인 본성과 세속적이고 육에 속한 사람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가르치”는 성신의 영향력을 통해 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⁷ 신권의 권능과 축복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전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자신의 노력과 뜻과 영혼을 육체적인 본성에 위안과 만족을 주는 것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영적인 성품들을 얻는 것에 집중하느냐 하는 것을 시험받기 위해서입니다.”⁸

육적인 본성과 영적인 본성 사이의 전쟁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베냐민 왕은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며,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 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지] ... 아니하는 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라, 아담의 타락 때로부터 그러하였고 영원무궁토록 그러할 것임이니라.”⁹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¹⁰

영원한 영적인 본성을 강화하고 악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자제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인생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보다 훨씬 오랫동안 존재해 온 우리의 영은 이미 전세에서 성공적으로 악함 대신 의로움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늘 부모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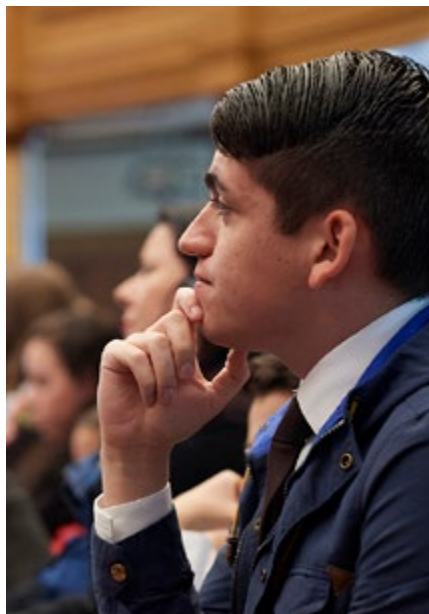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세에서 인생을 바꿀 만큼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살았거나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사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쪽을 선택하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훌륭한 영적 본성과 영원한 운명을 지녔다는 점을 입증한 기록을 가지고 지상에 온 것입니다.

이 사실에 관해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정체성은 영적인 뿌리를 영원에 두고 있으며, 무한한 가능성으로 넘쳐나는 미래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여러분은—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항상—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본성보다 육적인 본성을 우선순위로 삼는 것을 선택한다면, 진실되고 참되며 진정한 영적인 자아에 반대되는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과 세속적인 충동으로 인해 의사 결정 과정이

까다로워진다는 사실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세의 영의 세계와 이 필멸의 세상 사이에 드리워진 망각의 휘장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및 영적인 본성을 잊은 채, 육적인 본성에 따라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습니다. 현세에서의 경험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의 일부인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육신에 속한 것보다 영에 속한 것을 선택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또한 이 계획이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견고하고도 확실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 육신에 굴복할 때 저지르는 잘못을 포함한 우리 죄를 극복하고 영적인 면에 중점을 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교리를 준수하기 위해 우리 육신의 욕구를 통제할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의 날을 미루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¹¹

그러므로 회개는 자신과 벌이는 전쟁에서 없어서는 안 될 무기가 됩니다. 지난 연차 대회에서 러셀 엠 넬슨 회장님께서 이 전쟁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기를 선택할 때, 우리는 변화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주께서 우리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존재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분을 통해 오는 구속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선택합니다. 회개하기[를] 선택할 때,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¹²

저는 매일 밤 기도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제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매일 행하는 회개가 제 자신을 다스리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제 영이 제 육신에게 상기시켜 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매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로, 우리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지니신 완전한 사랑과 속죄를 기억하며 성찬을 취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조금 속도를 늦추고 과연 현재 여러분이 육적인 본성을 통제하고 신성한 영적인 본성을 강화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이 영의 세계에 가서 사랑하는 이들과 기쁘게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증거하고 겸손히 기도합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42:45.
2. 엘마서 42:8.
3. 야곱서 6:13.
4.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고든 비 헝클리』(2016), 148쪽.
5.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약속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약대로 생활해야 함을 알려 주셨다.(교리와 성약 82:10; 132:5~7, 19 참조)
6. Melvin J. Ballard, “Struggle for the Soul” (address given at the Salt Lake Tabernacle, May 5, 1928).
7. 요한복음 14:26.
8.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데이비드 오 맥케이』(2003), 14쪽.
9. 모사야서 3:19.
10. 로마서 8:5~6.
11. 엘마서 34:33 참조.
12. 러셀 엠 넬슨, 「우리는 더 잘할 수 있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리아호나』, 2019년 5월호, 68쪽.



피터 엠 존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대적을 이길 힘

어떻게 하면 평안을 찾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대적의 세 가지 공격을 이겨 낼 수 있을까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되도록 돕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한 거룩한 성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훌륭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는 과정에서 성신으로부터 오는 확신을 느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인간, 즉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사람은 모두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며, 따라서 각각 신성한 품성과 운명을 지니고 있다.”¹ 우리는 “후일의 위대한 사업의 기초를 놓는 일에 참여하기 위하여 때가 찬 시대에 나아오도록 간직[되었던] ... 훌륭한 영들”입니다.²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상에서 이 후기의 후반부에 그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준비될 수 있도록 영의 세계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교리와 성약 138:56 참조) 그 가르침은 여러분의 내면에 남아 있습니다!”³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대적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적은 여러분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신성한 유산을 알고 다음 세 가지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지상과 하늘에서 지닌 잠재력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 속임수
- 방해
- 좌절

속임수

대적은 모세 시대에도 속임수를 썼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밝히셨습니다.

“보라, 너는 내 아들이니라. ... 나는 네가 해야 할 일을 갖고 있다. 너는 나의 독생자를 닮았나니.”⁴

이런 영광스러운 시현이 있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탄은 모세를 속이려 했습니다. 그의 단어 선택이 흥미롭습니다. “사람의 아들 모세야, 나를 경배하라.”⁵ 속임수는 사탄을 경배하라는 권유뿐 아니라, 모세를 사람의 아들로 묘사한 데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방금 모세에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독생자를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셨던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적은 모세를 속이려고 계속해서

노력했지만 모세는 굴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는 이 한 하나님만을 내가 경배할 것임이니, 이는 영광의 하나님이시니라.”⁶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했습니다.

모세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분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갖고 계십니다. 대적은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잊게 함으로써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방해

대적은 또 우리를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약의 길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 장로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사탄의 계획은 영적인 증거로부터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사업에 더 참여하고 교화되기를 바라십니다.”⁷

우리 시대에는 트위터, 페이스북, 가상 현실 게임 등을 비롯해 방해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기술은 우리가 신성한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은 제대로 사용하기만 한다면, 흠어진 이스라엘을 휘장 양편에서 모으려 할 때 하늘의 권능을 불러올 수 있으며, 기적을 볼 수 있게 해 줍니다.

기술은 경솔하게 사용하지 말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⁸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기술을 통해 구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의 사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좌절

마지막으로 대적은 우리가 좌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낄 때 좌절하게 됩니다.

저도 박사 과정을 시작하면서, 좌절했습니다. 그해 박사 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네 명뿐이었는데 다른 세 학생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들은 시험 성적도 높았고 고위 관리직 경험도 더 많았고 능력 면에서도 자신만만해 보였습니다. 과정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나자 저는 좌절감과 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4년 과정을 마치려면 매 학기 물문경을 다 읽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물문경을 읽을 때마다 성신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는 구주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⁹ 이를 통해 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재확인했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으며, 저의 신성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¹⁰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행복을 앗아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부디 사랑으로 가득 찬 구주의 다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¹¹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평안을 찾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대적의 세 가지 공격을 이겨 낼 수 있을까요?

먼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¹²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동기는 그분과 그분의 아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분들이 주신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분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키운다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커질 것이고, 가족, 친구, 이웃에게 봉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을 구주께서 보시는 것같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¹³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매일, 매일, 매일 기도하십시오.¹⁴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감사를 포함합니다.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모든 일에 인도와 지시를 받을 힘과 용기를 구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힘을 다해 아버지께 기도하여 ...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며, ...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며, 그가 나타나실 때에 ... 그와 같이 되[도록]”¹⁵ 권고드립니다.

세 번째, 물문경을 매일, 매일, 매일 읽고 공부하십시오.¹⁶ 저는 특정한 질문을 염두에 두고 물문경을 읽을 때 더 공부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을 염두에 두고 물문경을



읽을 때, 계시를 받을 수 있고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물문경은 지상의 어떠한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며, ... 다른 어떤 책보다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한다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선언한 말씀이 진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¹⁷ 물문경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고 있으며,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주, 매주, 매주 성찬을 취하십시오. 성찬을 포함한 신권 의식과 성약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¹⁸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성찬 의식은 곧 진실하게 회개하여 영적으로 새롭게 되라는 거룩하고도 반복적인 권유입니다. 성찬을 취하는 행위 그 자체로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심껏 준비하여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이 거룩한 의식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¹⁹

겸손히 성찬을 취하면서, 우리는 겿세마네라고 불리는 거룩한 동산에서 예수께서 겪으셨던 고통과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하신 희생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당신의 독생자, 우리의 구속주를 보내 주신 데 대한 감사를 표하며, 기꺼이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을 항상 기억하겠다는 마음을 보여드립니다.²⁰ 성찬식은 그에 수반되는 개인적이고도 강력한 영적인 깨달음을 가져오며, 우리는 이러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물문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취하려 노력한다면, 주님의 힘을 통해 대적의 속임수를 극복하고, 우리의 신성한



잠재력을 제한하는 **방해 요소**를 최소화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당신의 아들의 사랑을 느끼는 역량을 약화하는 **좌절감**을 이겨 낼 능력을 갖추게 되리라고 약속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께 저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간증드립니다. 저는 그분들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우리에게는 메시아의 재림을 위해 이스라엘을 집합시키고 세상을 준비할 **신성한 임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145쪽.
2. 교리와 성약 138:53; 또한 교리와 성약 138:54~56 참조.
3. 러셀 엠 넬슨, 「진정한 밀레니얼 세대로서 우뚝 서십시오, 『리아호나』, 2016년 10월호, 49쪽; 번역 수정.
4. 모세서 1:4, 6.
5. 모세서 1:12.
6. 모세서 1:20; 또한 모세서 1:16~19, 21 참조.
7. 로널드 에이 레스번드, 「잊어버리지 말라,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115쪽.
8. 베키 크레이븐, 「세심함 vs. 소홀함, 『리아호나』, 2019년 5월호, 9~11쪽 참조.
9. 요한복음 16:13 참조.
10. 우리가 성공적으로 해내야 할 신성한 역할은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것은 지상에서 쏟는 노력으로 얻는, 세상에서 보는 성공과는 상관이 없다. 성신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성한 역할과 우리가 성약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의 힘으로 대적의 유혹을 극복할 때,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일깨워 준다.
11. 요한복음 14:27; 강조체 추가.
12. 마태복음 22:37~38 참조.
13. 요한복음 3:16; 요한1서 4:19; 모사이아서 2:17 참조.
14. 제3니파이 18:18~21 참조.
15. 교리와 성약 7:48; 강조체 추가.
16. 케빈 더블유 피어슨, 「나무 옆에 머무십시오,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114~116쪽 참조.
17. 물문경 소개.
18. 교리와 성약 84:20~21 참조.
19.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죄 사함을 항상 간직하여, 『리아호나』, 2016년 5월호, 61~62쪽.
20. 모로나이서 4:2~3; 5:1~2; 교리와 성약 20:76~79 참조. 우리는 그분의 영과 항상 함께해야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울리세스 소아레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구주를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길에서 신앙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며, 세상의 풍습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 이틀 동안 우리는 지도자들에게서 훌륭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시의적절하게 주어지는 이런 영감 어린 가르침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자 노력한다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통해 우리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며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리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¹

구주께서는 가이사라 빌립보 근처에 계실 때,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및 서기관들에게서 어떤 고통을 당하실지 제자들에게 밝히셨습니다. 주님은 특히 당신의 죽음과 영광스러운 부활에 관해 가르치셨습니다.²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지상에서 이루셔야 할 신성한 사명을 당시에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구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자, 그분을 붙들고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음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³

구주께서는 당신의 사업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복종과 고통이 뒤따른다는 점을 제자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⁴

구주께서는 이 선언을 통해 당신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이들은 모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열망과 욕구와 격정을

조절하여야 하며, 모든 것을, 필요하다면 목숨까지도 희생하여, 당신이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셨던 것처럼 복종해야 한다고 역설하셨습니다.⁵ 이것이 실제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예수께서는 주님의 대업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제자들이 더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십자가라는 상징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에게 자기 십자가나 십자가의 가로보를 처형장까지 공개적으로 지고 가게 했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이미지는 주님의 제자들이나 로마 제국의 주민들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⁶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마음을 열고 그분에 관해 기록된 모든 것과⁷ 그때로부터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⁸

형제 자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주님을 따르는 것의 연관성을 더욱 온전히





이해하기 위하여 생각과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경전을 통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이들은 스스로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의 정욕을 부인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므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⁹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모두 버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희생하며, 주님의 가르침을 힘써 따르겠다고 결심한다면,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환난이나 우리 영혼의 연약함, 혹은 주님의 가르침에 반하는 사회적 압박과 세상의 철학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에서 잘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직 영원한 동반자를 찾지 못하여 외로움과 절망감을 느끼는 이들이나, 이혼으로 인해 버림받고 잊혀진 기분이 드는 이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구주를 따르라는 그분의 권유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주님의 길에서 신앙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며, 항상 고결성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우리의 희망을 중국에는 앗아갈 세상의 풍습에 편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성에게 끌리는 성향으로 낙담하고 절망감을 느끼는 이들에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어찌면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중 일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는 자신에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행복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희생, 그리고 그분들이 사랑으로 주신 계명에 따라 생활할 때, 항상 희망이 있다는 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우리가 굳건하고 흔들림 없이 계명을 지키며¹⁰ 항상 선한 행실로 가득하다면¹¹,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면전으로 인도하시어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당신의 완전한 지혜, 권능, 공의, 자비로 우리를 자기 것으로 인치실 수 있습니다.

심각한 죄를 범한 이들이 이와 같은 권유를 받아들인다는 말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해당 교회 지도자와 상의하고, 회개하여 죄를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또한 마약성 진통제, 약물, 알코올 및 외설물을 비롯한 심신을 쇠약하게 하는 중독과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런 단계들을 거치면서 우리는 구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죄책감, 슬픔, 영적 그리고 육체적 속박에서 해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가족, 친구, 유능한 의료 및 상담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실패가 잇따르더라도, 그리고 죄를 버릴 수도, 중독을 극복할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노력을 멈추고 계속 연약함에 빠져서 죄를 짓는다면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구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 그릇의 안을 깨끗하게 하려는 소망을 보이고자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십시오.¹² 때로 어떤 문제는 몇 달씩 꾸준히 노력한 다음에야 해결할 실마리가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후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몰몬경의 약속을 이런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¹³ 부디 기억해야 할 것은 구주의 은혜라는 선물이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한 ‘후’에야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노력을 기울이기 전에도, 노력하는 중에도, 그리고 노력한 후에도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¹⁴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병 고침을 받는 신앙의 은사와 기적을 행하는 은사로 축복하시리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¹⁵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비통하거나 화나거나 상처받거나, 혹은 무언가 부당하다고 여기는 것 때문에 슬픔에서 헤어나오기 힘든 이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구주를 따르다는 것은 이런 감정을 제쳐 놓고 주님께로 돌이키려고 노력함으로써 주님이 우리를 이런 마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평안을 찾게 도와주실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부정적인 느낌과 감정에 계속 매달려 있으면, 우리 삶에서 주님의 영의 영향력 없이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 회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얽매이지 않음으로써 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¹⁶

경전은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게 도와주시도록 구주를 초대하는 것입니다.¹⁷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약함을 지니고 주님 앞에 나아와, ¹⁸ 그분의 도움과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¹⁹ 특히 매주 일요일 성찬을 취하는 성스러운 시간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함으로써 우리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할 수 있도록 어렵지만 중요한 단계를 밟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주님의 화평으로부터 오는 위안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1839년 리버티 감옥에서 교회 회원들에게 이러한 모든 상황에 아주 적합한 다음 내용이 담긴 서신을 썼습니다. “모든 보좌들과 통치권들, 주권들과 권능들이 드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용감히 견딘 자 모두에게 주어지리라.”²⁰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누구든지 구주의 이름을 받들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며,²¹ 하나님과 함께 결코 끝이 없는 행복한 상태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²²

우리는 모두 살면서 역경에 처하며, 이로 인해 슬픔과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끼며 때로 약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느낌이 들면 우리는 주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하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죠?” “왜 제가 원하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제 십자가를 지고 구주를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그분의 무한하신 지혜를 신뢰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 각자를 알고 계시며 우리의 필요 사항도 알고 계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축복을 구하며 주님께 언제까지 그것을 성취해 달라고 시간 제한을 둡니다. 그분께 충실하겠다는 조건으로 우리의 바람에 응답하실 기한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레이먼인 사무엘이 했던 말이 이루어질 때가 지났으며 형제 자매들을 조롱하고, 믿는 자들 사이에서 혼란을 초래했던 고대의 회의적인 니파이인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²³ 우리는 차분히 인내하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프랑카 성전에서 네 자녀와 함께한 칼라마시 자매.

우리 각자를 알고 계심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²⁴

저는 최근에 육신이 점점 쇠약해지는 병을 앓고 있는 프랑카 칼라마시라는 홀로되신 자매님께 성역을 베풀 기회가 있었습니다. 칼라마시 자매는 자신의 가족 중에서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들어온 첫 회원이었습니다. 칼라마시 자매의 남편은 비록 침례를 받지 않았지만, 선교사들과 만나는데 동의했고 교회 모임에도 종종 참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칼라마시 자매는 계속 충실했고 네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양육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일 년 후, 칼라마시 자매는 네 자녀와 함께 성전에 가서 성스러운 의식에 참여했으며, 가족으로 인봉되었습니다. 이런 의식들에 관련된 약속으로 인해 그녀는 계속 살아갈 힘을 주는 큰 희망과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질병의 증상들이 처음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감독은 칼라마시 자매에게 축복을 주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감독에게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며, 치유되리라는 신앙과 병을 끝까지 견디겠다는 믿음을 전했습니다.

칼라마시 자매를 방문했을 때 그녀의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녀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과 자신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계획에 대한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을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²⁵ 저는 자신이 처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는 그 자매의 확고한 결의를 느꼈습니다. 칼라마시 자매의 삶은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이며, 그분께 바치는 믿음과 헌신 그 자체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구주를 따르기 위해서는 그분의 모범을 따르고 그분과 같이 되기 위해



닐 엘 앤더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열매

노력해야 하며, 삶에서 처한 상황들을 인내로 마주하고, 욕에 속한 사람의 욕구를 부정하고 거부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간증드리고 싶습니다.²⁶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²⁷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²⁸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우리 삶의 궁극적인 치유자이신 그분을 기다린다면, 우리의 영혼은 안식을 얻을 것이고 우리의 짐은 쉽고 가벼워질 것임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²⁹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마태복음 11:29~30; 야고보서 2:24; 니파이후서 25:23 참조.
2. 마태복음 16:21 참조.
3. 마태복음 16:22.
4. 마태복음 16:24-26.
5. 요한복음 6:38 참조.
6. 요한복음 19:16-17 참조.
7. 마가복음 16:17~20; 누가복음 24:36~53 참조.
8. 마태복음 28:19-20 참조.
9. See Joseph Smith Translation, Matthew 16:25 - 29 (in the Bible appendix); 또한 경전 안내서, “담욕”; “욕에 속한 사람”; “욕욕적인, 욕욕적임”; “악한, 악함”; scriptures.ChurchofJesusChrist.org 참조.
10. 엘마서 1:25 참조.
11. 모사이야서 5:15 참조.
12. 엘마서 60:23 참조.
13. 니파이후서 25:23
14. See Bruce C. Hafen, *The Broken Heart: Applying the Atonement to Life's Experiences* (1989), 155-56.
15. 교리와 성약 46:19, 21 참조.
16. 닐 에이 맥스웰, 「회개, 「성도의 빛」, 1992년 1월호, 37쪽 참조.
17. 에스겔 18:31; 36:26 참조.
18. 이디서 12:27 참조.
19. 니파이전서 7:21 참조.
20. 교리와 성약 121:29.
21. 제3니파이 27:6 참조.
22. 모사이야서 2:41 참조.
23. 제3니파이 1:4~7 참조.
24. 교리와 성약 101:16 참조.
25. 니파이후서 31:20 참조.
26. 마태복음 5:48; 제3니파이 12:48; 27:27 참조.
27. 시편 27:14.
28. 시편 33:20.
29. 마태복음 11:30; 모사이야서 24:14 참조.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만 오는 영원한 기쁨에 집중시키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압니다. 이제 한 명만 더 말씀하면 넬슨 회장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의 정신이 초롱초롱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우 흥미있는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과일입니다.

딸기, 바나나, 수박, 망고, 또는 키와노 멜론이나 석류처럼 좀 더 이국적인 것들을 포함해, 과일은 그 빛깔, 질감, 당도 덕분에 오랫동안 매우 귀중한 별미였습니다.

구주께서는 지상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들을 ‘좋은 열매’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¹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니라].”²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라고³ 하셨습니다.

물론경에 나오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한 생생한 꿈에서 선지자 리하이는 자신이 “어둡고 황량한 광야”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곳에는 더러운 물, 어둠의 안개, 이상한 길, 금단의 길이 있으며, 또한 쇠막대⁴가 험악하고 좁은 길을 따라 있는데 그 끝에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 줄 … 열매”가 달린 아름다운 나무가 있습니다. 리하이는 그 꿈을 들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 그 … 열매를



구주께서는 지상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들을 ‘좋은 열매’에 비유하셨다.

먹어 보고는, 그 열매가 지극히 감미로워 내가 이전에 맛본 그 어느 것보다도 더 감미로[웠느니라.] … [그리고] 그것이 나의 영혼을 심히 큰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는지라” 이 열매는 “다른 어떤 열매보다 더 먹음직한”⁵ 것이었습니다.

생명나무와 열매의 의미

가장 귀한 열매가 달린 이 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⁶ 상징하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놀라운 구속의 계획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⁷

이 귀한 열매는 비할 데 없는 구주의 속죄가 주는 놀라운 축복들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필멸의 삶 이후에 다시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회개하며, 계명을 지킴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언젠가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앞에 깨끗하고 순결한 상태로 설 수 있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회복된 복음의 의식과 성약을 받아들이는 것을 상징합니다. 즉,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받고, 주님의 성전으로 가서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약을 지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의로운 가족과 영원토록 함께 산다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약속을 받습니다.⁸

천사가 그 열매를 “영혼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⁹ 말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충실히 남는 것의 어려움

우리 모두 배웠듯이, 회복된 복음이라는 귀한 열매를 맛본 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참되고 충실하게 남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대회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었듯이 우리는 구주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과정에서 경험한 기쁨과 아름다움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앗아가려는 방해물과 속임수, 혼동과 소란,

유혹에 계속 직면합니다.

이런 역경 때문에 리하이의 꿈에는 경고도 담겨 있습니다. 그 강의 맞은편에는 넓은 건물이 있으며, 그곳에 있는 모든 연령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의로운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 건물 속에 있는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놀리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믿는 그들의 신앙을 깎아내리고 비웃고자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가해지는 의심과 멸시의 언어적인 공격 때문에, 그 열매를 맛본 이들 중 일부는 자신이 한때 받아들인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가짜 매력 이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은 나무와 열매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경전의 표현대로 하면 그들은 “금단의 길로 떨어져 나가서는 잃어버린 바” 됩니다.¹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대적의 건설 팀은 초과 근무를 하며 그 크고 넓은 건물을 서둘러서 팽창시키고 있습니다. 그 확장된 건물은 강 너머로 퍼져서 우리의 가정을 둘러싸려고 하며, 한편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자들은 밤낮으로 인터넷이라는 확성기를 통해 시끄럽게 떠들어 맙니다.¹¹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사탄은 간증을 파괴하고 주님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노력을 배가하고 있습니다.”¹² 리하이의 다음 말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¹³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이때쯤 작은 것들이 우리의 영적 균형을 뒤집어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문, 타인에게서 받은 모욕, 신앙이 없는 친구들, 또는 유감스러운 실수와 실망 등으로 인해 그 나무의 귀한 열매로부터 오는 달콤하고, 순수하며, 영혼을 흡족하게 하는 축복으로부터 돌아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만 오는 영원한 기쁨에 집중시키십시오.

제이슨 홀의 신앙

6월에 저는 아내 캐시와 함께 제이슨 홀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제이슨은 사망할 당시에 48세였고 장로 정원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제이슨은 자신의 삶을 바꾼 한 사고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다섯 살 때] 저는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 목이 [부러졌고] 가슴 아래로는 마비가 되었습니다. 양쪽 다리, 그리고 양팔의 일부분을 제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걷거나, 서거나,



우리 모두 배웠듯이, 회복된 복음이라는 귀한 열매를 맛본 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참되고 충실하게 남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 혼자서는 음식을 먹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겨우 숨을 쉬고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¹⁴

“저는 간청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손만 움직일 수 있다면 제가 이 시련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제발, 하나님, 제발. ...’

... 하나님 아버지, 다리는 그대로 두시되, 손만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¹⁵

그러나 제이슨은 결코 다시 손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넓은 건물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제이슨 홀,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듣지 않아! 만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너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겠어? 왜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제이슨 홀은 그들의 소리를 들었지만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그 나무의 열매를 흠족히 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가 ‘일생의 사랑’이라고 표현한 콜레트 콜먼과 성전에서 결혼했습니다.¹⁶ 16년간의 결혼 생활 후에 또 다른 기적으로 그들의 소중한 아들 콜먼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키웠을까요? 콜레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습니다. 그 계획이 저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제이슨이 [훗날] 온전해질 것임을 알았습니다.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주를

보내 주셨으므로 그분의 속죄 희생 덕분에 우리는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계속 앞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¹⁷

제이슨의 장례식에서 열 살 난 아들 콜먼은 아빠가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것들을 가르쳐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지상의 삶은 굉장히 멋진 것이고, 우리는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어요. ... 하지만 ...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만 하고 실수도 하게 돼요.”

콜먼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지상에 보내 주셨어요. 그분이 하신 일은 온전해지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런 후에 우리 모든 사람의 아픔과 슬픔과 죄를 위해 고통을 겪으셔야 했어요. 그런 다음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그런 후 콜먼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 제가 어떤 기분인지를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3일째에 완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건 저한테 중요해요. 왜냐하면 ... [아빠의] 몸이 완전해질 것이고 우리 가족은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콜먼은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제가 아기였을 때부터 매일 밤마다 아빠는 저에게 이렇게 말해 주셨어요. ‘아빠는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너를 사랑하신단다. 너는 착한 아이야.’”¹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

리셀 엠 넬슨 회장님은 홀 가족이 기쁨과 희망을 느끼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기쁨은 우리가 처한 환경과는 거의 관계가 없으며 우리 삶의



제이슨, 콜먼, 콜레트 홀

초점을 어디에 두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복음에 초점을 맞출 때,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혹은 일어나지 않든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옵니다. 그분은 모든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

... 세상을 동경[한]다면, 우리는 절대 기쁨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의로운 삶을 살고자 의식적으로 애쓰는 데서 오는 은사입니다.”¹⁹

돌아오는 이들에게 주는 약속

만일 여러분이 한동안 그 나무의 열매 없이 지내셨다면, 구주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애정 어린 손짓을 하며 “회개하고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²⁰ 그분의 열매는 풍성하며 언제나 제철입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정말로 그 열매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거부당하지 않습니다.²¹

그 나무로 돌아가 다시 한 번 열매를 맛보고자 하신다면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희생의 권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²² 구주를 바라볼 때, 그 나무의 열매는 다시금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며, 그 열매는 아주 맛있고, 여러분의 영혼을 기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가²³ 될 것입니다.

바로 3주 전에 아내 캐시와 함께 포르투갈 리스본 성전 헌납식에 참석했을 때, 저는 구주의 열매가 주는 기쁨이 완전히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1975년, 포르투갈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됨에 따라 회복된 복음의 진리가 그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교회 회원들도, 집회소도, 1,600킬로미터 이내로는 성전도 없던 시절에 처음으로 그 열매의 맛을 보았던 많은 훌륭한 성도들이 이제 그 나무의



귀한 열매가 포르투갈 리스본에 위치한 주님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와 함께 기뻐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구주께 쏟아 온 이 후기 성도들을 정말로 존경합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²⁴

오늘 아침 벨슨 회장님은 전 세계의 교회 회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를 때 얻는 열매의 살아 있는 표본이십니다.” 덧붙여 회장님은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²⁵

벨슨 회장님, 우리는 회장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계시의 권능이 벨슨 회장님께 주어졌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고대의 리하이처럼

러셀 엠 넬슨 회장님도 우리와 하나님의 가족 모두에게 와서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라고 손짓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권고를 따를 수 있는 겸손과 힘을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겸손히 증거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권능과 은혜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가져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마태복음 7:16.
2. 마태복음 7:17.
3. 요한복음 4:36.
4. 2007년 1월 초, 당시 칠십인 정의회 회장단의 일원이었던 저는 2007년 3월 4일에 있을 브리검 영 대학교 영적 모임을 위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2007년 2월 4일에 그 동일한 청중 앞에서 말씀하게 될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에게 어떤 주제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베드나 장로님에게서 쇠막대를 굳게 붙드는 것에 관해 말할 것이라는 대답을 들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말할 제목이 바로 그거였기 때문입니다. 말씀 원고를 교환해서 살펴본 우리는



러셀 엠 넬슨 회장

서로 접근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생수의 보고”였던 그분의 말씀은 경전을 아우르는 것으로서의 쇠막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그 말씀에서 그분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쇠막대를 굳게 잡기 위해 여러분과 저는 매일 경전을 읽고 공부하며 상고하고 있습니까?”(speeches.byu.edu)

그런데 제가 베드나 장로님과 그 대화를 하고 정확히 일주일의 지난 후에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님은 브리검 영 대학교 영적 모임에서 “Lehi’s Dream and You[리하이의 꿈과 여러분]라는 제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팩커 회장님은 성신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개인적인 계시와 영감으로서의 쇠막대를 강조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쇠막대를 붙든다면, 여러분은 성신의 은사와 더불어 여러분이 나아갈 길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 쇠막대를 움켜쥐고 놓지 마십시오. 성신의 권능을 통해 여러분은 평생 여러분이 나아갈 길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Jan. 16, 2007, speeches.byu.edu)

제가 2007년 3월에 전한 “Hold Fast to the Words of the Prophets[선지자들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라는 주제는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으로서의 쇠막대였습니다. (Mar. 4, 2007, speeches.byu.edu). 이 세 가지 말씀이 서로 연결이 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동일한 청중을 위해 준비된 이 세 가지 말씀에 주님의 손길이 작용하였으며 쇠막대, 즉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되었습니다. (1) 경전, 즉 고대 선지자들의 말씀; (2)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 (3) 성신의 권능. 그 경험을 통해 저는 중요한 배움을 얻었습니다.

5. 니파이전서 8:4~12 참조.
6. 니파이전서 11:25.
7. 요한복음 3:16.
8.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리하이의 꿈: 막대를 굳게 잡으십시오」, 『리아호나』, 2011년 10월호, 32~37쪽 참조.
9. 니파이전서 11:23.
10. 니파이전서 8:28.
11. See Boyd K. Packer, “Lehi’s Dream and You” (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Jan. 16, 2007), speeches.byu.edu.
12. 러셀 엠 넬슨, 「우리는 더 잘할 수 있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리아호나』, 2019년 5월호, 68쪽.
13. 니파이전서 8:33.
14. Stephen Jason Hall, “The Gift of Home,” *New Era*, Dec. 1994, 12.
15. Stephen Jason Hall, “Helping Hands,” *New Era*, Oct. 1995, 46, 47.
16. 콜레트 홀이 앤더슨 장로에게 보낸 개인 서한.
17. 콜레트 홀이 앤더슨 장로에게 보낸 개인 서한.
18. 콜레트 홀이 전한 장례식 말씀, 콜레트 홀이 앤더슨 장로에게 전함.
19. 러셀 엠 넬슨, 「기쁨과 영적 생존」,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82, 84쪽, 번역 일부 수정.
20. 제3니파이 21:6
21. 니파이후서 26:25, 33 참조.
22. 교리와 성약 6:36.
23. 니파이전서 15:36.
24. 요한복음 15:5.
25. 러셀 엠 넬슨, 「크고 둘째 되는 계명」, 『리아호나』, 2019년 11월호, 100쪽.

폐회 말씀

개인적인 합당성을 갖추려면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좀 더 주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역사적인 대회를 마치며 우리에게 교훈을 준 말씀과 음악에 주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즐거운 영적 잔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 그분의 교리를 듣고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가져다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각 가정이 화평과 사랑, 그리고 주님의 영이 거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의 성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물론,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하는 성스러운 의식과 성약은 구주가 재림하실 때에 그분을 맞이할 백성을 준비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현재 166개의 헌납된 성전이 있으며, 더 많은 성전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신설 및 개보수된 각 성전은 헌납에 앞서 일반 공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종교에 속하지 않은 많은 친구들이 그런 성전을 둘러보며 성전 축복에 관해 뭔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방문객 중에는 감화를 받아 더 알아보고 싶어 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전 축복을 받기 위한 자격을 어떻게 갖추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는 그런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준비를 갖추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성전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헌납된 성전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들은 합당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자녀가 성전에서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축복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각 사람이 당신의



거룩한 집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셨습니다.

그러한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적절한 시작점은 성전 외벽에 새겨진 “주님께 기록함: 주님의 집”이라는 문구에 주의를 집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의 말씀과 다른 많은 말씀이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각 성전은 거룩한 곳이므로, 각 성전 참여자는 좀 더 거룩하게 되도록 힘을 다해 노력합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모든 자격 요건은 개인적인 거룩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준비가 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성전 축복을 받고자 하는 각 사람은 두 차례의 접견을 갖게 됩니다. 먼저 감독이나 감독단 보좌, 또는 지부 회장과 접견을 하고, 그런 다음 스테이크 또는 선교부 회장이나 그 보좌들 중 한 사람과 접견하게 됩니다. 그 접견 중에 몇 가지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 질문들 중 일부는 명확성을 위해 최근에 수정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그 질문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에 대한 신앙과 간증이 있습니까?
2.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간증과 그분이 형제님/자매님의 구주와 구속주라는 것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까?
3.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었다는 간증이 있습니까?
4.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하며, 그분만이 이 지상에서 모든 신권의 열쇠들을 행사하도록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지지하십니까?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들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하십니까? 교회의 다른 총관리 직원들과 현지 지도자들을 지지하십니까?



- 주님께서서는 모든 것이 그분 앞에서 “청결한 가운데 행”해야(교리와 성약 42:41)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하고 행동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청결하기 위해 힘을 다해 노력하십니까? 순결의 법에 순종하십니까?
5. 형제님/자매님은 개인적으로나 공개적으로 가족과 다른 이들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십니까?
 6.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것에 어긋나는 가르침이나 행위 또는 교리를 지지하거나 장려하십니까?
 7. 가정과 교회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해당되는 모임에 참석하며, 성찬을 위해 준비하고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며, 복음의 율법과 계명에 일치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 힘을 다해 노력하십니까?
 8. 모든 일에서 정직하고자 힘을 다해 노력하십니까?
 9. 온전한 십일조를 내십니까?
 10. 지혜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십니까?
 11. 이전의 배우자나 자녀들에 대해 재정상의 의무나 혹은 다른 의무가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현재 그러한 의무를 다하고 계십니까?
 12. 엔다우먼트 의식에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성전 가먼트를 착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성전에서 맺은 성약을 지키십니까?
 13. 회개의 일환으로 자신의 삶에서 신권 역원과 해결해야 하는 심각한 죄가

있습니까?

14. 자신이 주님의 집에 들어가 성전 의식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일, 이 변경된 성전 추천서 질문이 전 세계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배부될 것입니다.

그 질문들에 정직하게 대답하는 것 외에도, 성전에 참여하는 각 성인은 평상복 속에 신권의 성스러운 가먼트를 착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는 좀 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매일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내적 결심을 상징합니다. 또한 그것은 날마다 우리가 맺은 성약에 충실하고 더 높고 더 거룩한 방법으로 매일 성약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제 잠시,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제한 사용 성전 추천서를 받을 자격을 갖추도록 권고드립니다. 여러분은 접견 질문들 중에서 대리 침례 및 확인 의식을 받기 위한 준비에 해당되는 질문만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합당하게 기꺼운 마음으로 그 성스러운 성전 사업에 참여하는 여러분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합당하려면 개인적으로 많은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도움을 받는다면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도록 준비시키는 것보다 성전을 짓는 것이 더 쉽습니다. 개인적인 합당성을 갖추려면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좀 더 주님을 닮고, 정직한

시민이 되고, 더 나은 모범이 되며, 더 기록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준비는 인생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축복을 가져오며 다가올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들을 가져오게 될 것임을 간증 드립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의 가족이 “끝이 없는 행복한” 상태로¹ 영원히 존속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다가올 해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 봄이 되면, 조셉 스미스가 첫번째 시현으로 알려진 하나님에 대한 시현을 보았던 때로부터 정확히 200년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네 살의 청소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사건을 기점으로, 성경에 예언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²

그 후에 하늘로부터 사자들이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그중에는 모로나이, 침례 요한, 초기 사도들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었으며, 모세, 일라이어스, 엘리야를 포함한 다른 사자들도 뒤이어 방문했습니다. 각 사자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금 축복하기 위해 신성한 권세를 가져왔습니다.

기적과도 같이, 우리는 또한 성경과 짝을 이루는 경전인 물문경: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을 받았습니다. 또한 교리와 성약 및 값진 진주에 나오는 계시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영원한 진리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신권의 열쇠와 직분도 회복되었는데, 여기에는 사도, 칠십인, 축복사, 대제사, 장로, 감독, 제사, 교사, 집사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성들은 상호부조회, 초등학교, 청년, 주일학교 및



기타 교회 부름에서 용감하게 봉사하고 있으며, 이 모든 부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2020년은 200주년을 기념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내년 4월 연차 대회는 이전의 대회와는 다를 것입니다. 다음 6개월 동안, 모든 회원과 가족이 회복된 복음의 토대를 기념할 특별 대회를 위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먼저, 값진 진주에 기록되어 있는 첫번째 시현에 관한 조셉 스미스의 기사를 다시 읽으면서 그런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의 내년도 학습 과정은 물문경입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들을 숙고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물문경에서 얻은 지식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첫번째 시현에 뒤이어 일어난 사건들은 나와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또한 물문경 비디오도 이제 공개되고 있으므로, 여러분은 개인 및 가족 학습을 할 때 이 비디오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질문을 선정하십시오.

여러분만의 계획을 설계하십시오. 회복이라는 영광스러운 빛에 몰두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내년 4월 연차 대회는 기억에 남을 만한 대회일뿐만 아니라 잊지 못할 대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대회를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저의 사랑을 전하고 여러분이 나날이 더욱 행복하고 기록하게 되도록 축복합니다. 그러는 동안, 이 교회에는 계시가 계속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계시는 주님의 인도에 따라 계속되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³

저는 그렇게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에 대한 저의 사랑을 재차 확인하며,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간증을 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이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모사이야서 2:41.
2. 이사야 2:2; 29; 에스겔 37:15~20, 26~28; 다니엘 2:44; 아모스 3:7; 사도행전 3:21; 에베소서 1:10; 요한계시록 14:6 참조.
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007), 142쪽.

업데이트된 성전 추천서 접견 질문과 다른 성전 소식

러셀 엠 넬슨 회장이 2019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업데이트된 성전 추천서 접견 질문을 발표했다.(121쪽 참조) 성전의 표준은 동일하지만, 일부 질문은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어구를 수정하였다. 해당 교회 지도자들은 2019년 10월 6일에 이런 업데이트된 질문이 포함된 제일회장단 서한을 받았을 것이다.

넬슨 회장은 또한 8개의 새로운 성전 계획을 발표했다.(79쪽 참조) 새로 성전이 건립될 지역은 시에라리온 프리타운,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 아칸소주 벤틀빌, 필리핀 바콜로드, 미국 텍사스주 매캘런, 과테말라 코반, 미국 유타주 오렘과 테일러즈빌 등이다.

2019년 4월 연차 대회 이후 헌납된 성전은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 포르투갈 리스본, 아이티 포르토프랭스, 브라질

포르탈레자 성전이며, 재헌납된 성전은 미국 캘리포니아 오글랜드, 미국 테네시 멤피스, 독일 프랑크푸르트, 미국 오클라호마 오클라호마시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롤리 성전이다.

팜 지고, 카보베르데 프라이아, 푸에르토리코 산후안, 페루 리마(로스 올리보스) 브라질 벨렘에서는 성전 기공식이 있었다. 뉴질랜드 오글랜드, 미국 유타 레이턴과 사라토가 스프링스에서는 성전 부지가 선정되었다.

성전 보수 계획도 발표되었는데, 솔트레이크 성전은 올 12월에 문을 닫은 후 2024년에 다시 문을 열고, 유타 세인트조지 성전은 2019년 11월에 문을 닫은 후 2022년에 다시 문을 열게 된다. ■

성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temples.ChurchofJesusChrist.org에서 볼 수 게재되어 있다.



왼쪽부터: 브라질 포르탈레자 성전, 포르투갈 리스본 성전,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 성전, 아이티 포르토프랭스 성전

교회가 의식 증인에 관한 정책을 조정하다

교회의 총관리 직원 및 본부 직원들이 제일회장단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교회 연차 대회 지도자 모임에서, 러셀 엠 넬슨 회장은 침례식과 인봉 의식에서 누가 증인으로 봉사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교회 정책의 절차상 조정 사항을 발표했다.

2019년 10월 2일 날짜의 제일회장단 서한에 그 조정 사항이 자세히 나와 있다.

“감리 직원의 지명에 따라,

1. 제한 사용 추천서를 포함하여, 현재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소지한 모든 회원은 대리 침례의 증인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2. 엔다우먼트를 받았으며, 현재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소지한 모든 회원은 산 자를 위한 인봉 혹은 대리 인봉 의식의 증인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3.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하여 침례받은 모든 교회 회원은 산 자를 위한 침례의 증인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

지도자들이 새로운 어린이와 청소년 프로그램을 소개하다

어린이와 청소년 프로그램이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영적, 사회적, 신체적, 지적으로 성장하면서 구주를 따르도록 돕는다. 이 잡지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프로그램을 논의하는 말씀을 더 보려면 40쪽과 53쪽을 참조한다.

러셀 엠 넬슨 회장은 2019년 9월 29일 특별 방송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오늘날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돕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작은 과제들을 주는 대신, 우리는 여러분이 어떻게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는지를 직접 주님과 의논해 보도록 권유합니다. 그것은 보람되고 즐거운 일이 되겠지만, 여러분의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인 계시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그 계시에 따라 어떻게 행할 것인지 스스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행하라는 영의 속삭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넬슨 회장은 부모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했다. “어린 자녀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도움을 드릴 수 있지만, 그들은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그들의 성공에 여러분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사랑과 격려와 조언을 주되, 그들을 여러분의 방법대로 통제하겠다는 유혹을 이겨 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선택의지를 행사할 때 가장 잘 해낼 것입니다.

이 권고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담당하는 우리의 훌륭한 지도자와 교사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넬슨 회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했다. “특히 반과 정원회 회장단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고 성별받은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반이나 정원회를 이끌게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신권 권세가 위임될 것입니다. 그들은 반이나 정원회를 이끄는 데 필요한 영감을 받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발표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 대리인 엠 러셀 벨라드 회장은 어린이와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적을 소개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그것은 “자라나는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강화하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어린이와 청소년과 그들의 가족이 성약의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¹ 어린이와 청소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얻도록 돕는다면, 그들과 우리 모두의 삶에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방송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소개 자료』의 사용을 보여 주는 활동을 한 후, 벨라드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활동을 막 시작한 것입니다. 이 활동은 가정에서 모두 함께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 활동을 마저 하시기 바랍니다. … 부모 여러분, 이 활동을 가정에서 계속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벨라드 회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다. “이것은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것을] 뒷받침하는 프로그램”이며 “가족이 이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그토록 훌륭한 이유가 바로 그 점입니다.”

전 세계 많은 지역의 부모 및 지도자들

역시 부모와 지도자를 위한 소개 자료를 받았다. 그 외 지역에서도 2020년도 후반까지는 어린이와 청소년 프로그램이 자국어로 번역될 것이다.

복음 학습, 봉사 및 활동, 개인적 발전(목표 설정 및 달성 포함)은 어린이와 청소년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이 되며, 청소년이 계획을 주도해야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약의 길을 따라 나아가며 가족, 지도자 및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개인적인 계시를 구한다. 벨라드 회장은 어린이와 청소년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인 프로그램이며, “어디에 살고 있는지 가족의 환경이 어떠한지”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자료는 2019년 11월 17일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페이스투페이스 방송에서 제공될 것이다. 이 모임에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게렛 더블유평 장로가 출연한다. 참석자로는 2020년에 8세에서 18세가 되는 어린이와 청소년, 그들의 부모, 청년 지도자, 아론 신권 고문 및 초등회 지도자 등이 초대된다. 어린이와 청소년 프로그램에 관한 질문이 있다면 faceface.ChurchofJesusChrist.org로 공장로에게 제출한다. 18개 언어로 방송되는 생방송 모임이 끝나면, 영상은 언제든지 스트리밍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보관된다. ■

페이스투페이스 모임에 대한 정보를 비롯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ChildrenandYouth.ChurchofJesusChrist.org 및 ChildrenandYouthLeaders.ChurchofJesusChrist.org를 참조한다.

주

1.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어린이와 청소년: 부모와 지도자를 위한 소개 자료』(2019), 1.



어린이와 청소년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FSY 대회

전 세계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합하려는 교회 노력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미국 및 캐나다 지역의 스테이크는 2년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FSY) 대회를 주최하게 된다.

미국 및 캐나다 밖의 지역에서는 FSY 대회가 이미 10년 이상 열렸으며, 이 모임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계속된다.

이에 관한 추가 정보는 2019년 11월 17일 페이스투페이스 모임에서 제공됩니다. ■



청소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조직상의 변화

교회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성한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러셀 엠 넬슨 회장(38쪽 참조)이 2019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청남 청년 조직의 조정 사항을 발표하고 십이사도 정원회의 쿠엔틴 엘 쿡 장로(40쪽 참조)와 본부 청년 회장인 보니 에이치 코든 자매(67쪽 참조)가 그 내용을 설명했다.

이러한 변경은 넬슨 회장이 말씀하신 감독의 “첫째 되고 가장 중요한 책임은 그 와드의 청남과 청년을 돌보는 것”임을 강조한다. 와드 청남 회장단의 폐지도 변경 사항에 포함되어 있다. 감독단은 아론 신권 회장단으로서 정원회 고문의 도움을 받고, 경우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도 받을 것이다. 와드 청년 회장은 감독에게 직접 보고하게 될 것이다.

정원회 및 반 회장단은 회원 선교 사업, 개종자 유지, 활동화,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 복음 교육 등을 비롯해 구원 사업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청소년 정원회 및 반 회장들이 일요일 모임, 봉사 프로젝트 및 제반 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한다.

청소년을 위한 활동은 더 이상 “상호향상회”라고 부르지 않고, “청년 활동”, “아론 신권 정원회 활동”, 또는 “청소년 활동”이라고 부르게 된다. 청소년 활동에 대한 예산은 두 조직의 청소년 수에 따라

공평한 비율로 배분해야 한다.

청년 주제가 개정되었으며, 청년 반의 수는 청년의 수와 필요에 따라 구성해야 한다. 반의 명칭은 “청년반”이 되며, 반에 속한 청년의 나이에 따라 “청년 12~14”, 모두가 함께 모이는 경우는 그냥 “청년반”이라고 부른다. “꿀벌반”, “장미반” 및 “월계반”이라는 명칭은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스테인크 고등 평의원의 일원이 스테이크 청남 회장으로 봉사하게 되며, 스테이크 청남 회장단은 스테이크 청년 회장단, 청년에게 지명된 고등 평의원, 초등학교 지명된 고등 평의원과 함께 스테이크 아론 신권 청년 위원회에서 봉사하게 된다.

다른 변화로는, 상호부조회, 청년, 청남, 초등학교 및 주일 학교는 “보조 조직”이라는 명칭 대신 “조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지도자들은 교회 전체 차원에서는 “본부 역원”이라고 하며, 지역 차원에서는 “스테인크 역원” 및 “와드 역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다. ■



2020년 4월 연차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4가지 방법

20 20년은 1820년 봄에 있었던 첫번째 시현의 200주년을 기념하는 해가 된다. 이에 따라 러셀 엠 넬슨 회장은 다가오는 내년 4월 연차 대회에서 “회복된 복음의 토대를 기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122쪽 참조)

그는 모든 회원과 가족이 이 “특별 대회”를 준비하도록 격려했으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1. 첫번째 시현에 관한 조셉 스미스의 기사를 다시 읽는다.
2. 『와서 나를 따르라』 2020년 교재를 공부하면서 몰몬경에서 얻은 지식과 몰몬경으로 인해 받은 축복에 대한 질문들을 숙고해 본다.
3. 개인 및 가족 학습에서 새로운 몰몬경 비디오투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4. 자신만의 질문을 선정하고 자신만의 계획을 설계하여 “회복이라는 영광스러운 빛에 몰두”한다.

“그렇게 할 때, 내년 4월 연차 대회는 기억에 남을 만한 대회일뿐만 아니라 잊지 못할 대회가 될 것”이라고 넬슨 회장은 말씀했다. ■

와서 나를 따르라 연차 대회 말씀을 통해 배우기

살아 있는 선지자와 교회 본부 지도자들의 가르침은 우리가 주님의 일에 참여하려고 할 때 영감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매달 둘째 및 넷째 일요일에 장로 정원회와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회원들의 필요와 영의 인도에 기초하여 모임에서 토론할 연차 대회 말씀을 선택한다. 때에 따라,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이 토론할 말씀을 제언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지도자들은 제일회장단 및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이 전한 말씀을 주로 다뤄야 한다. 그러나 가장 최근 연차 대회에서 나온 말씀이라면 무엇이든 토론할 수 있다. 지도자와 교사들은 회원들이 선정된 말씀을 미리 입도록 격려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장로 정원회 및 상호부조회 모임에 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 7.8.1, 9.4.1, ChurchofJesusChrist.org를 참고한다.



가르칠 준비를 함

다음의 질문은 교사가 연차 대회 말씀을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 1.** 연사는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기를 바라는가? 연사는 어떤 복음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가? 그 원리는 우리의 장로 정원회나 상호부조회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 2.** 연사는 자신의 메시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경전 구절을 인용했는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읽을 만한 다른 경전 구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몇 가지 구절은 말씀의 미주나 경전 안내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3.** 회원들이 그 말씀을 더 깊이 숙고하도록 도우려면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가? 그들이 자신의 삶과 가정, 그리고 주님의 사업이 이 말씀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아는 데 어떤 질문이 도움이 되겠는가?
- 4.** 모임에 영을 초대하기 위해 그 외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토론을 향상하기 위해 이야기나 비유, 음악 및 예술 작품을 포함하여 무엇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 연사는 무엇을 사용했는가?
- 5.** 연사가 권유한 것이 있는가? 회원들이 이러한 권유에 따라 행동하려는 소망을 갖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활동 아이디어

회원들이 연차 대회 말씀을 통해 배우도록 도울 방법은 많다. 다음은 몇 가지 예시이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장로 정원회나 상호부조회에서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다.



- **그룹별로 토론한다.**
회원들을 소그룹으로 나눈다. 각 그룹별로 연차 대회 말씀의 다른 부분을 배정해 준 뒤 읽고 토론하게 한다. 그런 후 각 그룹이 배운 진리를 나누어 달라고 한다. 또는 연차 대회 말씀의 서로 다른 부분을 읽은 회원들로 새로운 그룹을 만들어 배운 점을 서로 나누게 할 수도 있다.
- **질문에 답한다.**
회원들에게 연차 대회 말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 보라고 한다. 이 말씀에서 어떤 복음 진리를 찾았는가? 이러한 진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어떠한 권유와 약속된 축복이 주어졌는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바라시는 일에 관해 무엇을 가르치는가?
- **인용문을 나눈다.**
회원들에게 연차 대회 말씀에서 구원 사업에서 자신이 맡은 책임을 다하도록 영감을 준 인용문을 나누어 달라고 한다.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성역 대상자를 포함하여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해 이 인용문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격려한다.
- **실물 공과를 한다.**
몇몇 회원에게 연차 대회 말씀을 가르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가져오라고 미리 부탁한다. 모임에서 그 물건들이 어떻게 말씀과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 달라고 한다.
- **가정에서 가르칠 공과를 준비한다.**
회원들에게 짝을 지어 연차 대회 말씀을 기초로 가정의 밤 공과를 계획해 보라고 한다. 어떻게 하면 그 가르침을 우리 가족과 관련 지을 수 있는가? 성역 대상자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 **경험을 나눈다.**
연차 대회 말씀 내용 중 몇 구절을 함께 읽는다. 회원들에게 그 구절이 가르치고 있는 교리를 설명하거나 강화하는 예를 경전이나 자신의 삶에서 찾아 나눠 달라고 한다.
- **성구에 관해 배운다.**
회원들에게 연차 대회 말씀에서 언급된 성구를 읽어 보라고 한다. 그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어떻게 그 성구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는지 토론하게 한다.
- **답을 찾는다.**
연차 대회 말씀을 사용하여 답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을 미리 만든다. 깊이 생각하게 하거나 복음 원리를 적용하도록 격려하는 질문에 초점을 둔다.(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31~32쪽 참조) 그런 다음 회원들이 한 가지 질문을 선택하여 말씀에서 답을 찾게 한다. 소그룹으로 모여 자신이 생각하는 답을 토론하게 한다.
- **구절을 찾는다.**
회원들에게 말씀을 훑어보면서 자신에게 의미 있는 구절을 찾아보라고 한다. 그들에게 찾은 구절과 그 구절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 보게 한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성취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 **무언가를 만든다.**
회원들이 연차 대회 말씀에서 짧지만 영감을 주는 구절을 찾아 포스터나 책갈피를 만들어 보게 한다. 자신이 만든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기회를 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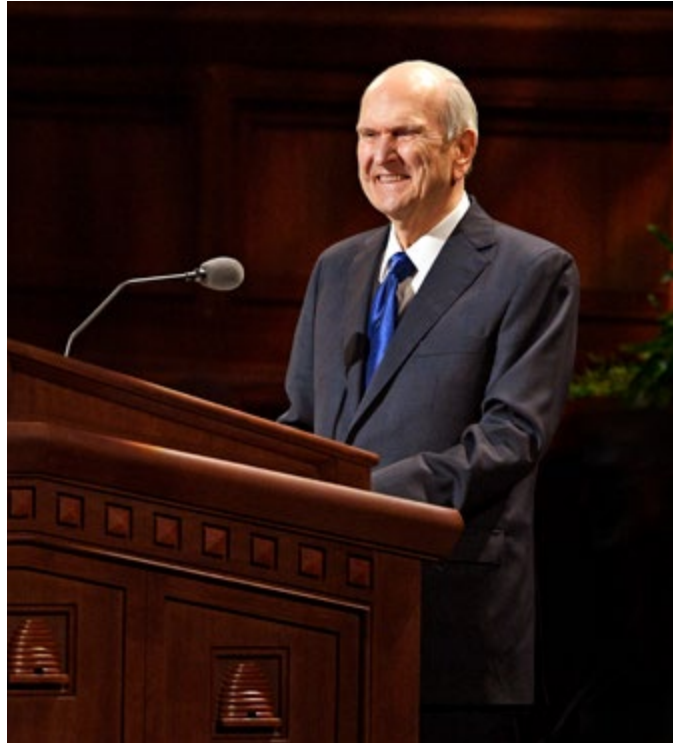
© 마이클 폴먼, 복사 금지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록한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하는 성스러운 의식과 성약은 구주가 재림하실 때에
그분을 맞이할 백성을 준비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

각 성전은 기록한 곳이므로, 각 성전 참여자는 좀 더 기록하게 되도록 힘을 다해 노력합니다.”

러셀 엠 벨슨 회장, 『폐회 말씀』, 120, 121쪽.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오르신 그리스도,
마이클 폴먼



러셀 엠 넬슨 회장은 189차 반연차 대회 of 마지막 모임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2020년은 200주년을 기념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내년 4월 연차 대회는 이전의 대회와는 다를 것입니다. 다음 6개월 동안, 모든 회원과 가족이 회복된 복음의 토대를 기념할 특별 대회를 위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 그렇게 할 때, 내년 4월 연차 대회는 기억에 남을 만한 대회일뿐만 아니라 잊지 못할 대회가 될 것입니다.”

2020년 4월 연차 대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122쪽과 126쪽을 참조한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